

정책연구 2009-12

고등직업교육을 위한 특수대학원 개선방안 연구

정지선 이남철 이기성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머 리 말

과학기술의 진보와 산업·직업 구조의 변화,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시대적 요청은 대학으로 하여금 전문인들의 계속교육 요구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 고학력 시대에 전문인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 급증은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평생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해야 할 당위성을 형성하는 요소들이자이다.

특수대학원은 고학력 직업인과 성인들을 위한 계속교육기관이며 특수대학원이 지닌 사회적 책무의 이행 여부는 대학평생교육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금껏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여 특수대학원은 양적 팽창을 해왔으나 교육의 질적 수준은 저하되고 열악한 교육여건은 개선의 여지가 많은 실정이다. 무분별한 특수대학원 설립의 증가는 학습자 유치를 위한 과열 경쟁을 조장해 운영상의 문제를 수반하였다.

고학력 사회, 고령화 사회, 평생직업 사회로 묘사되는 우리 사회에서 고학력 사회와 평생학습의 특성을 합하면 특수대학원이 담당해야 할 기능이 명백해진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노인 인구의 학습과 일은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또 하나의 과제이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대학과 대학원의 평생학습적 기능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특수대학원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대학원 수준의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정부와 대학 당국이 특수대학원의 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바쁜 일정을 할애하여 면담조사에 응해주신 특수대학원 교수, 행정부장, 재학생, 졸업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전문가협의회를 통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

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년 기본연구 2009-15 번으로 진행되었으며, 정지선 박사가 연구책임자로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남철 박사, 송실대학교 이기성 교수가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여 수행되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안소영 학생은 위촉연구원으로서 자료수집과 정리, 보고서 편집 등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아울러 연구진 모두의 노고를 널리 치하하는 바이다.

2009년 11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권 대 봉

목 차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목적 · 3

제3절 연구의 내용 · 3

제4절 연구 방법 · 4

제2장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특수대학원

제1절 고등교육 수요의 증가 · 11

제2절 대학원의 유형 및 개념 · 13

제3절 특수대학원의 설립요건과 학위규정 · 19

제3장 외국 대학원 교육의 사례 및 시사점

제1절 미국의 대학원 교육제도 · 28

제2절 호주의 대학원 교육제도 · 48

제3절 외국 대학원 교육의 시사점 · 79

제4장 특수대학원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 제1절 특수대학원의 일반적 현황 · 83
- 제2절 특수대학원 교육 CIPP 분석의 틀 · 93
- 제3절 특수대학원 교육의 현황 분석 · 98
- 제4절 특수대학원 운영상의 문제점 · 122

제5장 고등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특수대학원 개선방안

- 제1절 성인학습대학원으로서의 발전방안 · 132
- 제2절 정부의 행 · 재정적 지원방안 · 137
- 제3절 특수대학원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내실화 방안 · 141
- 제4절 Work-to-school 내실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 145
- 제5절 특수대학원 개선방안의 장 · 단기적 주체별 분류 · 152

제6장 요약 및 결론

- 제1절 요약 · 153
- 제2절 결론 · 155

SUMMARY · 159

<부록 1> 특수대학원 CIPP 모형에 따른 면담 내용의 틀 · 165

<부록 2> 특수대학원 면담조사지 · 169

2-1. 정부부처 담당자 대상 면담조사지 · 169

2-2. 교학과장 대상 면담조사지 · 170

2-3. 교수 대상 면담조사지 · 174

2-4. 재학생 대상 면담조사지 · 177

2-5. 졸업자 대상 면담조사지 · 181

<부록 3> 특수대학원의 종류와 설립목적 · 185

참고문헌 · 215

〈표목차〉

- 〈표 1-1〉 지역별 특수대학원 재적학생 수 분포 · 6
- 〈표 1-2〉 지역별 계열별 특수대학원 학생 비율 · 7
- 〈표 1-3〉 면담조사 대상자 · 8

- 〈표 2-1〉 대학원 유형의 특징 · 15
- 〈표 2-2〉 연도별 대학원 유형의 증가 추세 · 16
- 〈표 2-3〉 설립 주체별 유형별 대학원의 수 · 17
- 〈표 2-4〉 대학원 유형별 입학 정원 · 19

- 〈표 3-1〉 고등교육기관 수(자격 기준 분류) · 36
- 〈표 3-2〉 고등교육기관 수(기관 성격, 공·사립 기관 분류) · 36
- 〈표 3-3〉 최근 고교졸업자의 대학진학률 · 37
- 〈표 3-4〉 등록학생 수 · 38
- 〈표 3-5〉 학위수여기관에의 등록학생 수(30세 이상) · 39
- 〈표 3-6〉 자격별 취득 학생 수 추이 · 41
- 〈표 3-7〉 자격취득 학생 수 · 59
- 〈표 3-8〉 자격 취득 학생 수(연령대 기준)(2007년) · 60
- 〈표 3-9〉 고등교육 과정 입학 학생 수(연령대 기준)(2007년) · 61
- 〈표 3-10〉 Full-Time과 Part-Time의 과정 이수 기간(예) · 65
- 〈표 3-11〉 개설 자격과정에 따른 입학자격 등의 차이 · 65
- 〈표 3-12〉 고등교육 승인에 관한 국가 규약 중 규약 A의 내용 · 67
- 〈표 3-13〉 RMIT 대학의 대학원 과정(Coursework 과정) · 68
- 〈표 3-14〉 Griffith University의 Business and Commerce 대학원 과정 · 71
- 〈표 3-15〉 Griffith University의 교육학 분야 대학원 과정 · 73

- 〈표 3-16〉 Griffith University 대학원 교육학과정의 특징 · 74
- 〈표 3-17〉 연방정부 재정지원 학생 정원과 지원 금액(2007) · 76

- 〈표 4-1〉 특수대학원 계열별 학과수 및 학생수 현황(2008) · 85
- 〈표 4-2〉 특수대학원 지역별 현황 (2008) · 86
- 〈표 4-3〉 학부와 다른 전공 선택 이유 · 87
- 〈표 4-4〉 석사과정 진학동기 · 88
- 〈표 4-5〉 교육비 충당 방법 · 89
- 〈표 4-6〉 취업기관 유형 · 90
- 〈표 4-7〉 취업정보 출처 · 91
- 〈표 4-8〉 석사학위의 효용성 · 92
- 〈표 4-9〉 학교교육과 현장의 괴리 정도 · 112

- 〈표 5-1〉 주체별 장·단기적 개선방안 · 152

[그림목차]

[그림 2-1] 연도별 대학원 추세 · 17

[그림 3-1] 미국의 교육구조(4대 영역을 중심으로) · 32

[그림 3-2] 미국의 교육구조(자격제도 중심) · 34

[그림 4-1] 특수대학원 분석 모형 · 94

【요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대학원 교육제도는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그 중에서 특수대학원은 직업인을 비롯한 일반 성인들의 계속교육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직장인들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그리고 산업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실용적 교육을 추구하는 곳이 특수대학원이다. 특수대학원은 양적으로는 급속하게 팽창되어 왔지만 교육 프로그램이 설립취지에 걸맞지 않고 비체계적이며 산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연구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인 특수대학원이 성인 및 직업인들의 계속교육과 재교육을 위한 실무 중심의 직업교육기관으로 work-to-school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CIPP 모형에 따라서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특수대학원 교수, 교학부장, 재학생, 졸업자의 네 그룹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2.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특수대학원

한국의 고등교육은 급속한 양적 팽창 속에서 이미 대중화와 보편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85% 가량이 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다. 또한 지식기반사회에서 과학기술과 지식정보의 급속한 변화

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누구나 학습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학습사회가 도래하였다. 대학 졸업 학력 성인과 재직자들의 work-to-school 이행을 위한 계속교육과 재교육도 대학원에서 담당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특수대학원은 이러한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점차 그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이 가중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서는 특수대학원의 교육목적은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학문중심의 일반대학원이나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과 차별화된다.

3. 외국 대학원교육의 사례 및 시사점

외국의 사례로는 우리와 같이 성인들의 대학원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제도가 유사한 미국과 평생학습 차원의 교육체제가 잘 정립된 호주의 대학원교육제도를 탐색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가장 참고가 되는 점은 대학원 교육을 운영함에 있어서 인증기관의 역할이 무척 강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대학원은 인증을 받기 위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게 된다. 또한 비학위 과정, 파트타임 등 학습자의 사정에 맞게 운영되고, 경험학습을 인정하고 학점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제도화되어 있다. 우리 대학원과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자율성 정도이다. 대학원 스스로 사명과 목적을 정하고, 그 사명과 목적에 맞게 학사조직을 편성·운영하고, 각종 지원시스템을 스스로 갖춘다는 점이 특기할만하다.

4. 특수대학원의 실태와 문제점

가. 특수대학원의 환경적 요인

고학력화 추세와 맞물려 대학원 수준의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수대학원은 설립이 용이하지만 관리체계가 부재하여 본래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나. 특수대학원 교육의 투입적 요인

학생들의 입학 동기는 대체로 학위취득, 직무능력향상, 교수와 동료들과의 networking, 경력개발, 자격증 취득, 직장 내에서의 승진, 학문적 관심, 자기개발, 현업무의 전문성 확보, 자기개발을 통한 사회변화 적응 등 무척 다양하다. 두 가지 이상의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수대학원의 재정수입은 등록금으로 충당되지만 대학본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형태이다.

장학금 액수나 학비 감면 액수는 매우 부족하다. 또한 장학금 지급에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학생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대학본부는 특수대학원의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인식이 부족하고 발전계획이나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다.

다. 과정적 요인

첫째, 특수대학원만의 고유한 교육과정이 미비하다.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이 부족하며, 입학 및 졸업요건, 학사관리 등 학사 운영 등에서도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둘째, 전임교수들은 학부와 일반대학원에서 주로 강의를 하고 특수대학원의 수업은 대부분 강사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강의의 질이 문제시 되고 있다. 셋째, 야간수업을 담당하는 교수들에 대한 보상체제가 미흡하다. 넷째, 학사관리가 부실하여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학위를 취득하는 경향이다. 다섯

째, 어학 실력이 필수인 시대적 상황에서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여섯째, 특수대학원 학생을 위한 연구실, 컴퓨터실, 실습실, 세미나실 등 학업에 필요한 시설이 미흡하고 도서관 이용시간도 야간수업을 하는 특수대학원생들에게는 불리하게 짜여져 있다. 일곱째, 행정서비스가 미흡하다.

행정직원이 부족하여 야간 학생들은 제공되는 서비스가 제한되어 불편을 겪게 된다. 또한 행정직원들의 행정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하여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친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라. 산출 요인

첫째, 졸업 논문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다. 논문지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논문이 작성되어 질적인 수준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둘째, 특수대학원 질관리 방안이 부재하다. 정부가 특수대학원 평가를 실시하여 교육의 질을 관리해 나가고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특수대학원만의 고유영역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5.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특수대학원 개선방안

가. 성인학습대학원으로서의 발전방안

1) 특수대학원의 교육목적 및 기능 재구축

특수대학원은 대학원 수준의 평생학습기관으로 고유영역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인력 수준별·산업 분야별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성인 중심 교육의 특성을 체계화하여 성인학습대학원 교육의 정체

성을 확보하며 자격증과정, 단기과정, 모듈식 교육과정의 개념을 도입하여 다양한 고학력 성인들과 재직자들의 학습수요에 부응하는 work-to-school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2) 특성화와 다양화를 통한 성인학습 수요 부응

특수대학원 교육은 특성화와 다양화를 병행하여 보다 많은 성인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과 특성화된 전공 분야를 개발하여 넓은 범위의 학습수요자를 위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학 본부에서 특수대학원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타 대학원과 구별될 수 있는 특성을 명확히 가질 수 있도록 개편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시간제 학생 제도와 학점제 도입

다양한 연령층의 평생학습 수요를 흡수하는 교육기관으로서 특수대학원 교육을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Part-Time) 학습도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회사의 업무로드를 감안하여 시간제 학습 제도가 활성화되고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합리적인 입학전형 정립

현장 경험에 의한 특별전형 선발을 확대하여 능력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여야 한다. 입학전형에서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과 전공과의 연계성, 진로계획과 학습계획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모듈식 자격증과정 개설

성인과 직장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격증 과정을 모듈 교육

과정으로 개설하여 학위과정과 병행하여 운영한다.

6) 선행경험학습에 대한 인증체제 도입

재직자 및 성인학습자의 전문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학습과정이 되기 위하여 선행학습과 경험학습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특수대학원에서 교육을 시작하기 이전 시점까지의 경험학습과 선행학습에 대한 인정을 기반으로 입학과 교육과정을 선택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정부의 특수대학원 행·재정적 지원방안

1) 국가의 종합적 발전계획 수립

교육시장의 논리에 적합한 지원정책을 포괄하는 특수대학원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 발전계획(master plan)이 수립되어야 한다.

2) 표준교육비 산정에 근거한 재정지원

특수대학원의 발전을 위하여 대학 차원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특수대학원 자체의 발전계획이 마련되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대학 본부로부터의 예산 증액과 더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체 등도 특수대학원의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소스로 활용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3)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평가방안 마련

특수대학원은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며 평가대상도 아니었다. 독립된 교육기관으로서 평가하고 재정지원도 해야 한다. 대학이나 일반대학원처럼 정부 혹은 고등교육평가원(가칭)처럼 공신력 있는

기관에 평가를 위탁하여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4) 대학원 간 협력체제 구축

특수대학원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원 간에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질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대학원 간의 역할 분담, 상호경쟁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상호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면 동시에 특수대학원의 특성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5) 진학희망자에 대한 장기적 대책 마련

특수대학원 과정은 석사학위 과정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 대부분이 직장인으로 구성된 학생들은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친 후 박사학위 과정으로의 진학을 희망하지만 현실 제도상 쉽지 않아 아예 포기해 버리고 잠재적 수요자로 은닉하게 된다. 계속교육에 대한 이들의 학습의지를 지켜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다. 특수대학원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내실화 방안

1) 현장지향적 교육과정 개발

재직자를 위한 평생학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일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과는 차별화되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산업계의 니즈에 부응하는 교육이 되기 위하여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기능 활성화가 필요하다. 교육과정도 특수대학원 특성에 적합하게 현장지향적인 교육과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학생들이 수강 신청할 때 자신이 추구하는 교육목표와 진로계획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교육을

추구해야 한다. 맞춤형 교육과정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입직경로의 매칭 효율을 높여 준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2) 어학 프로그램 강화

외국어 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대학원에서 제공하여 성인근로자의 학습수요를 흡수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우선 대학에 확보되어 있는 전문 인력을 활용하면 교육의 질이 보장될 수 있어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졸업논문의 내실화와 자율화

졸업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교수의 논문지도가 체계화되어야 한다. 특수대학원은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므로 전공 특성에 따라서 논문 대신에 현장적응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과목을 더 이수하거나 실습 혹은 작품전시회 등으로 대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추진하는 성인학습자들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실효성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4) 국제교류의 활성화

글로벌 시대에 평생학습기관을 찾는 외국 학생들이 용이하게 입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또한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외국대학과 상호간의 장점을 벤치마킹하여 상호이익이 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5) 학위의 공신력 제고

대학원 평가 인증제를 통해서 학위의 사회적 공신력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가 일반대학원의 학술학위

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사회 수요와 무관하게 학위 수여를 목적으로 한 특수대학원의 정원 확대와 사회의 간판주의에 편승하여 학위를 남발하는 경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Work-to-school 내실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1) 장학금 확대 및 고용보험 환급

장학금 지급 액수를 확대하여 수혜자를 대폭 늘리는 것과 동시에 장학금 지급 기준을 체계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정부의 고용보험제도를 활용하여 재직자들이 교육훈련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행정서비스의 질적 양적 개선

야간 수업은 하나의 완성된 교육체제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야간 수업이라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한을 받거나 불편함을 감수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학생 1인당 행정지원 인력 지표를 도출하여 이를 준수하여 행정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

3) 네트워킹 강화 기회 확대와 지원

학생들은 학교행사나 선·후배와의 모임을 통하여 네트워킹과 단합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다. 특수대학원 학생들에게 학구적인 분위기와 더불어 친목도모도 중요한 부분이므로 대학원 차원에서 이에 대한 인식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학생 정보 DB 구축

특수대학원 입학 전과 졸업 후의 변동 사항들을 분석하는 것은 대학원에서 교육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때 주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특수대학원 학생들은 대부분 재직자이기 때문에 취업현황, 학부 전공과의 일치도, 현직과 전공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자료를 DB로 구축, follow up 하고, 전산화해야 할 것이다.

5) 홈페이지 및 카페 이용 활성화

직장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 원하는 정보 습득과 교류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와 카페를 개설해 주어 필요에 따라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편리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6) 대학원 독립채산제 도입

특수대학원의 예산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대학 본부가 대학원을 평가하여 실적에 따라 교부금을 배분하여 주는 체제이다. 특수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자체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독립채산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전임교수 확보와 현장경력 강사 확보

특수대학원 자체 전임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수대학원 행정과 재정 운영이 자율적으로 되도록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업체 현장의 전문가도 섭외하도록 한다.

8) 연구공간과 시설 확보

야간에 등교하여 수업을 하는 특수대학원 학생들에게도 마땅히 대학원생 연구실과 세미나실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야간 수업 전후 시간과 주말, 공휴일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대학원 차원에서 연구 공간 마련이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한 학교는 단기계획으로, 그렇지 않은 학교는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1장 서론

정지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우리 사회는 고학력화가 진행되어 오면서 대학 진학은 물론 대학원으로의 진학도 크게 증가해 왔다.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성인근로자들이 재교육과 훈련 등 학습의 필요성에 직면하면서 대학원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식기반사회의 전개와 더불어 성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확대되어 온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원 교육제도는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그 중에서 특수대학원은 직업인을 비롯한 일반 성인들의 계속교육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고등교육기관이며 야간과정으로 개설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직장인들의 자기개발을 위하여 그리고 산업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실용적 교육을 추구하는 곳이 특수대학원이다. 즉 대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출한 직장인이 다시 직무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재교육의 목적으로 상급 교육기관으로

이행하여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대학원이다.

특수대학원의 종류는 대학마다 다양하고 상이하지만 대체로 실용적, 실무적 학문 분야를 중심으로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대체로 경제, 경영, 공학, 언론홍보, 행정, 교육, 보건복지, 예술, 스포츠 등의 분야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최근 학생 수의 증가로 특수대학원은 양적으로 팽창되어 왔다.

특수대학원은 양적으로는 급속하게 팽창되어 왔지만 교육 프로그램의 정체성이 모호하고 설립취지에 걸맞지 않으며 비체계적이고 산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특수대학원이 직업인의 계속교육과 재교육을 위한 실무 중심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산업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재정비가 필요하다.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와 궁극적 수요처인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산업계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성인과 재직자들을 위한 평생학습 차원의 대학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된 특수대학원이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고 고학력 평생교육의 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특수대학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실무 중심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입학제도, 수업 운영 방식, 교육운영 현황, 졸업요건, 취업 및 진학 등의 요인들을 중심으로 정체성과 기능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특수대학원 설립 및 커리큘럼 운영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을 내실화하여 직업인 교육의 질적 제고와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인 특수대학원이 성인 및 직업인들의 계속 교육과 재교육을 위한 실무 중심의 직업교육기관으로서 work-to-school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특수대학원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성인들의 직업능력개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실용적 인재개발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대학원의 설립취지와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타 대학원과의 차별성, 성인 직장인의 계속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입학절차, 학습 동기, 학위과정 운영, 직업능력개발 수요의 충족도, 결과의 인정, 직무능력 및 취업과의 연계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둘째, 설립 취지에 적합한 실용적 인재개발의 기능을 내실있게 수행하기 위한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특수대학원 교육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의 내용

위에 기술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하였다. 첫째, 대학원의 설치근거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각각의 설립 취지 규정을 분석하여 특수대학원의 정의와 범위를 논의하였다.

둘째, 외국의 대학원 교육체제와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분

석하였다. 한국의 대학원 교육체제와 가장 유사한 미국의 대학원 교육 운영 현황과 실무능력 중심의 교육훈련에 중점을 두는 호주의 대학원 교육체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수대학원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에 외국 대학원 교육 사례의 시사점이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셋째, 한국의 대학원 수준의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특수대학원 기능 수행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CIPP(Contexts, Input, Processes, and Products) 모형을 활용하여 특수대학원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Contexts)으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발전, 고학력 사회와 평생학습의 필요성의 부각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특수대학원의 설립과 운영 관련 규정과 성인재직자를 위한 입학절차 및 과정 등을 투입적 요인(Input)으로, 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실태 등은 과정적 요인(Process)으로,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와 졸업 후 직무 능력 향상 및 취업 현황 등은 산출적 요인(Products)으로 분석하였다.

넷째, 위에 제시한 특수대학원의 현황과 문제점으로 분석된 내용을 기반으로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직장인들의 평생학습기능을 제공하는 특수대학원으로 발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4절 연구 방법

연구 내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채택한 연구 방법은 이론적 배경, 특수대학원 현황 통계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외국 대학원 제도 파악을 위한 국내외 자료 수집 및 선행연구 분석, 특수대학원 현황과 문제점 파악을 위한 심층면담조사 실시, 연구의 방향 설정, 면담조사 내용 검토, 특수대학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 개최 등이다.

1. 문헌 수집 및 분석

선행연구 및 정부기관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특수대학원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였다. 평생직업교육체제 및 대학원 관련 문헌 수집 및 분석을 통한 특수대학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외국 대학원제도의 특성을 분석하고 성인과 직장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체제 등을 탐색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선행연구, 문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2. 특수대학원 운영 현황 관련 서류 조사 - 양적, 객관적 지표

특수대학원 운영실태 관련 정부부처와 대학원 담당자를 통하여 양적인 지표와 관련된 내용과 객관적 자료를 면담조사에 앞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특수대학원의 학생 및 학교 수 현황과 증감추세, 지역별 현황, 학생들의 입학동기 및 교육비 부담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태를 파악한 선행연구자료를 활용하였다.

3. 특수대학원 현황과 문제점 파악을 위한 심층면담조사

가. 조사의 목적

특수대학원 프로그램 운영 실태, 문제점, 수요, 만족도 등 정성적 지표와 질적인 분석이 필요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특수대학원 유형별·지역별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조사 대상 표집

특수대학원의 계열별 유형을 사회, 인문·교육, 공학·자연, 보건·의학, 예체능 5개 계열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특수대학원 교직원, 교수, 재학생, 졸업자,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재적학생수의 분포를 기준으로 하여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으로 묶고, 나머지 충청, 강원·호남·영남 권역을 비수도권으로 묶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특수대학원 중 16개의 특수대학원을 전공 분야별로 선정하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내에서도 학생 수의 계열별 인원과 비례를 감안하여 사회계열, 교육계열, 이·공·의계열, 인문·예술계열로 분류하여 면담 대상 대학원을 선정하였다.

<표 1-1> 지역별 특수대학원 재적학생 수 분포

지역	재적학생 수
서울	55,746명
경기, 충청	43,220명
강원, 호남, 영남, 제주	47,010명
계	145,976명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9).

<표 1-2> 지역별 계열별 특수대학원 학생 비율

(단위: %)

지역/계열	지역별			계열별							
	수도권	비수도권	계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학	예체능	계
재학생 비율(%)	53.6	46.4	100.0	11.7	29.7	38.5	8.3	1.8	4.0	6.1	100.0

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9).

다. 면담조사 대상자와 실시과정

면담자 수는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 지원과의 담당자 외에, 16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수대학원에서 교수, 교직원(행정부장), 학생, 졸업생 각 1명씩을 면담하였다(<표 1-3> 참조). 연구진이 면담조사를 사전 예약하고 16개 대학원의 64명(교수, 행정직원, 재학생, 졸업자)과 면담조사를 추진하였다. 실제로 연구진이 각 특수대학원을 방문하였을 때 64명 중에서 총 59명¹⁾이 조사에 응하여 각 피면담자에 해당하는 면담조사지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9년 7월 1일부터 8월 17일까지이며 면담장소는 피면담자의 편리를 고려하여 연구진이 각 특수대학원을 방문하였다.

1) 교수 14명, 교학과장 (혹은 부원장이나 행정부장 등) 15명, 재학생 15명, 졸업자 15명이 면담조사에 응하였다.

<표 1-3> 면담조사 대상자

특수대학원	대학교	면담자	일시	장소	피면담자
공학대학원	고려대학교	안소영	7/16	공학대학원 사무실	교학과장, 재학생, 졸업자
교육대학원	동신대학교	이남철	7/23~7/24	교육대학원 사무실	교수, 교학과장, 재학생, 졸업자
	동아대학교	이기성	7/7~7/8	교육대학원 사무실	교수, 교학과장, 재학생, 졸업자
	송실대학교	이기성	7/3	교육대학원 사무실	교수, 교학과장, 재학생, 졸업자
	중앙대학교	이기성	7/13	교육대학원 사무실	교수, 교학과장, 재학생, 졸업자
보건대학원	연세대학교	이기성	7/20	보건대학원 사무실	교수, 교학과장, 재학생, 졸업자
사회복지대학원	청주대학교	정지선	7/8	사회복지대학원 사무실	교수, 교학과장, 재학생, 졸업자
산업대학원	한경대학교	정지선	8/17	산업대학원 사무실	교수, 교학과장, 재학생, 졸업자
	부경대학교	이남철	7/27~7/28	산업대학원 사무실	교수, 교학과장, 재학생, 졸업자
스포츠과학대학원	단국대학교	이남철	7/31	스포츠과학대학원사무실	교학과장, 재학생, 졸업자
영상대학원	세종대학교	정지선	8/6	영상대학원 사무실	교수
예술대학원	중앙대학교	이기성	8/13	예술대학원 사무실	교수, 교학과장, 재학생, 졸업자
유리조형대학원	남서울대학교	정지선	7/7	유리조형대학원사무실	교수, 교학과장, 재학생, 졸업자
중소기업대학원	송실대학교	이기성	7/16	중소기업대학원 사무실	교수, 교학과장, 재학생, 졸업자
행정대학원	연세대학교	안소영	7/21	행정대학원 사무실	교수, 교학과장, 재학생, 졸업자
	전북대학교	이남철	7/9~7/10	행정대학원 사무실	교수, 교학과장, 재학생, 졸업자
계	16개 특수대학원				총 59명

*교수: 14명, 교학과장: 15명, 재학생: 15명, 졸업생: 15명

나. 면담내용

특수대학원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면담내용은 CIPP 모형에 의하여 특수대학원의 교육 전반을 환경적 요인, 투입요인, 과정적 요인, 산출요인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요인에 해당하는 하위 요인들을 지표화하여 각 지표에 따라 면담조사 내용을 작성하였다([부록 1]~[부록 5] 참조).

또한 면담대상자인 교수, 교학과장, 재학생, 졸업자에 적합한 면담내용을 구분하여 실시하여 재학생들의 관점과 대학 측의 관점을 모두 파악하였다.

4. 전문가협의회 개최

특수대학원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 수행 과정에서 교육 관련 선행연구자, 평생학습 전문가, 정부부처 관계자, 산업체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연구의 진행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 제1차 전문가협의회
 - 목적: 면담조사 내용 구성을 위한 전문가협의회
 - 내용: 특수대학원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특수대학원 교수, 교학과장, 재학생, 졸업자 대상의 면담조사 내용의 설계에 관한 논의
 - 일시: 2009년 5월 27일
 - 참석자: 특수대학원 교수, 교학과장, 관련 연구자, 평생학습 전문가 등 9명
- 제2차 전문가협의회
 - 목적: 조사 결과 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위한 전문가협의회
 - 내용: 면담조사 결과 분석된 특수대학원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과의 검토

10 고등직업교육을 위한 특수대학원 개선방안 연구

- 일시: 2009년 9월 2일
- 참석자: 특수대학원 교수, 교학과장, 관련 연구자, 평생학습 전문가 등 7명
- 제3차 전문가협의회
 - 목적: 특수대학원의 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전문가협의회
 - 내용: 연구수행 결과 및 면담조사 결과 분석된 현황과 문제점으로부터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 전문가들과의 논의와 검토
 - 일시: 2009년 11월 16일
 - 참석자: 특수대학원 교수, 교학과장, 관련 연구자, 평생학습 전문가, 정부부처 관계자 등 14명

제2장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특수대학원

정지선

제1절 고등교육 수요의 증가

한국의 고등교육은 급속한 양적 팽창 속에서 이미 대중화와 보편화의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이제 질적 고도화를 위한 변화를 요청받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과학기술과 지식정보의 급속한 변화는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고등교육의 환경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학습사회의 도래로 대학원 교육은 학문을 추구하기 위한 교육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성인 근로자들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직업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기관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평생학습사회로 접어들면서 학습자 유형이 다양화되면서 대학원의 역할과 기능도 다양한 수요를 흡수하게 되었다.

단순히 순수한 학문적 진리 추구를 위하여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보다 최신의 기술과 이론을 습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원으로 회귀할 수 있다. 이제 대학이 사회진출의 최소요건을 갖추도록 준비시키는 기관이라면, 대학원은 재직자들의 직업 전문성이나 전직과 이직을 위한 전문성 심화를 위한 평생교육기관의 역할과 기

능까지 담당해야 한다.

학습사회론은 전통적으로 학교 중심의 제도적 교육관이 폐쇄적 교육모형을 고수해 왔음을 지적하면서 확대된 열린 학습모형으로 변모해 갈 것을 역설한다. Schuller & Field, Ainley, Gorard & Rees, Alheit 등의 학습사회론자들은 고전적인 인간자본론 혹은 인적자원개발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급격한 지식의 발전과 경제환경의 변화는 개인을 더 이상 과거의 지식과 기술만으로 살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습득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학습활동에의 참여가 필요하며 사회는 이러한 계속학습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최운실 2008, p.131).

또한 인적자본론에 따르면 교육(schooling)이 사람을 더 생산적으로 만든다는 것이고, 선별신호기능이론에 따르면 교육과 능력이 정(+)¹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정지선 외, 2008). 대학에서 성인근로자들이 계속교육을 받고 학습을 계속하는 것은 최소한 임금상승을 통한 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순환교육(또는 재교육)으로 출발하여 지식편향적 기술진보에 대한 대응으로서 평생교육을 강조한 OECD는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UNESCO가 시민적 권리나 인권으로서의 평생교육을 강조하는 반면에 OECD는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한 근로자의 학습과 훈련을 강조한다. OECD는 특히, 지식기반경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근로자들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성인학습의 형태, 성인교육의 불평등의 원인, 참여의 장애요인, 그리고 성인교육의 혜택을 논하고, 이를 위한 재정 및 전달체계의 혁신을 검토하고 있다(OECD, 2005).

순환교육론(Recurrent Education)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개인적 이익의 산출은 물론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생산적 교육모델로서 노동시장에의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에 유용한 지식자본을 형성하는 실효성 있는 교육모델을 강조한다.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간의 연계와 상호교류 인정, 교육과 노동시장 간의 연계 강화, 실업 대비 지식기술 갱신을 위한 재

교육의 강화, 기업의 인력개발을 위한 교육을 강조한다(최운실, 2008, p.131). 평생학습은 개인적, 시민적, 사회적, 그리고 고용 관련 측면에서 지식, 기술,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생을 통해 수행하는 모든 학습 활동인 것으로 개념화되며, 인력부족, 능력결핍의 문제를 극복하고, 숙련된 기술인력 육성을 도모하여 경제성장 촉진에 기여한다. 즉 학습사회의 구현으로 모든 형태와 수준의 교육과 훈련을 포괄하는 학습을 실시함으로써 취업역량(employability)과 적응력(adaptability)을 제고하고 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로 한국 사회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85% 가량이 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다. 대학 졸업 학력자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성인과 재직자들의 work-to-school 이행을 위한 계속교육과 재교육도 대학원에서 담당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특수대학원은 이러한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설립되었으며 이제 그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이 가중되고 있다.

제2절 대학원의 유형 및 개념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학원의 유형은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이 있다. 일반대학원은 학문의 기초 이론과 고도의 학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전문대학원은 전문직업분야 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 특수대학원은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한다(고등교육법 제29조 2항). 특수대학원은 계속교육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에 주안점을 두는 일반대학원과 다르며, 전문직업분야 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과도 구별된다(정운경, 2008, p.5; 이석열, 2007, p.374). 법령상 특수대학원의 목적과 역

할은 곧, 직업인의 계속교육 차원에서 실천적인 이론과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미 학부 수준의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직업인들을 대상으로 야간이나 방학을 이용하여 전문성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권대봉, 2004, p.30).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의 법적규정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1〉 참조). 각 대학원은 학위과정과 학위의 종류에도 차이가 있다.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라 특수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만을 둘 수 있고, 전문대학원은 학칙에 따라 박사학위과정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일반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공히 설치할 수 있다.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도 차이가 있는데 특수대학원은 전문학위, 일반대학원은 학술학위, 전문대학원은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학위와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표 2-1> 대학원 유형의 특징

구 분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목 적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	전문직업분야 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	직업인 또는 일반성인을 위한 계속교육
수업형태	주 간	주 간	야간·계절제
학위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원칙), 학칙으로 박사과정 설치 가능	석사과정
수여학위	학술학위	전문학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 수여 가능	전문학위
교육내용	학술이론 및 연구방법론	실천적 이론 및 실무 위주 교육	실천적 이론 및 실무교육
학부의 교원·교사 활용	학부와 연계	학부와 연계되어 있으나 별도의 대학원 전임교원 확보	학부와 연계
배출인력	연구 및 교수인력 (R&D)의 양성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 인력의 양성	직업인의 계속교육

<표 2-2>과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원의 종류는 2008년 현재 일반대학원 158개, 전문대학원 150개, 특수대학원 747개로 대학원 전체의 수는 1,055개이다. 10년 정도의 기간 중에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전문대학원이며 종류의 수는 특수대학원이 가장 많아 대학원 전체 중에서 약 70.8%를 차지하고 있다. 설립 주체별로 구분하여 보면 약 82.4%에 해당하는 869개 대학원이 사립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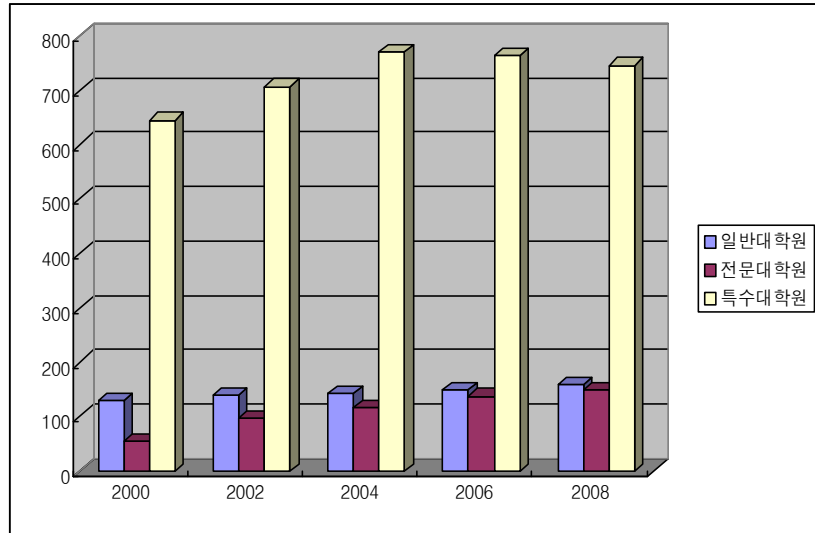
<표 2-2> 연도별 대학원 유형의 증가 추세

(단위: 개 대학원)

연도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합계
1999	117	21	538	676
2000	129	54	646	829
2001	135	75	695	905
2002	139	98	708	945
2003	143	109	758	1,010
2004	142	117	771	1,030
2005	145	130	776	1,051
2006	149	138	764	1,051
2007	154	148	740	1,042
2008	158	150	747	1,055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9).

[그림 2-1] 연도별 대학원 추세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9).

<표 2-3> 설립 주체별 유형별 대학원의 수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합계
국립	25	31	116	172
공립	2	3	9	14
사립	131	116	622	869
합계	158	150	747	1,055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9).

1997년에 대학원 규정 제정에 따라 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어 특수대학원 및 일반대학원의 관련 학과 폐지를 전제로 전문대학원 설립을 인가하기 시작하였다. 대학 진학자의 증가와 대학교육의 보편화 추세와 더불어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도입되었으며 대학원의 수와 대학원 학생 수가 급격히 팽창하였다. 대학원 입학정원은 국립대 정원 동결 등 지속적인 정원 억제정책과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증가로 2003년 이후 약간의 등락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완만한 감소 추세이며, 특수대학원 입학정원 역시 완만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정원 자율화 정책에 따라 총정원 범위 내에서 수요가 감소된 석사과정 정원을 감축하고 수요가 증가하는 박사과정 정원을 증원하는 경향이다. 2000년 이후 박사과정 정원은 2000년 13,052명에서 2003년 15,828명, 2008년 19,727명으로 증가 추세이다. 반면에 석사과정 정원은 2000년에 94,450명, 2003년 107,695명, 2008년 101,798명으로 2003년 이후 약간의 감소를 보인다.

대학원의 종류 중에서 특수대학원이 가장 규모가 큰 편이다. 특수대학원의 입학정원은 전체 대학원 정원의 약 50%에 근접하고 있다. 일반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모두 운영하는 데에 반해, 특수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만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석사학위과정에 대한 입학정원만 비교해 본다면 특수대학원의 입학정원의 규모는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석사학위과정의 대학원 입학정원이 특수대학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은 내부적으로 학과 신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신설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특수대학원은 학부에 최소 3명 이상의 관련 분야 전임교수를 확보하면 학과 신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전문대학원이나 일반대학원에 비하여 신설이 수월한 편이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대학설립준칙주의의 도입으로 대학원 인가가 용이해진 점도 일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고학력을 선호하는 사회문화적 추세와 지식기반사회에서 직무능력향상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특수대학원 학생들의 입학 목적을 재교육이나 계속교육보다는 석사학위 취득으로 직장 내에서 승진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수대학원의 본래 취지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특수대학원의 입학 지원경쟁률은 평균 약

1.7:1이며, 입학시 취업자의 비율은 83%이다(이석열, 2007).

특수대학원의 급증은 신입생 유치 경쟁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되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다(강인수, 2002). 이로 인해 특수대학원의 직업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여도가 낮아지고 학위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저하되면서 대학원 교육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높아질 것이 우려된다. 지금까지 특수대학원은 대학원 유형에 따른 특성화된 교육과정 개발이 부족하고, 운영 면에서도 유형별 특성화와 차별화를 확립하지 못하였다.

<표 2-4> 대학원 유형별 입학 정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113,814	119,103	123,523	123,115	123,911	121,877	121,119	121,525
일반대학원	55,720	57,532	58,153	57,691	57,581	55,931	55,173	56,675
전문대학원	4,749	6,371	7,094	7,127	8,041	9,041	10,855	10,943
특수대학원	53,345	55,200	58,296	58,297	58,289	56,905	55,091	53,907

주: 2000-2007(교육통계연보), 2008(2008.4월 교과부 잠정 집계)

제3절 특수대학원의 설립요건과 학위규정

1. 일반대학원

가. 목적 및 설립요건

일반대학원은 학문의 기초 이론과 고도의 학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현행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일반대학원의 설립기준은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 운영과 학위 수여를 위한 교육과정 이수요건에 관한 사항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는 범용성 있는 학제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나. 학위규정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대학원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대학원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 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한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입학할 수 있으며,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학과 또는 전공의 폐지로 입학한 재학생이 학과 또는 전공을 옮기는 경우 당해 학생이 그 학과 또는 전공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학위제도는 일제시대 신교육제도와 함께 도입된 복선형 학제와 이에 준한 학위제도, 그리고 해방 후 도입된 단선형 학제와 학위제도를 거치면서 독자적인 제도로 발전해 왔다. 해방 전에는 일본의 제도, 해방 후에는 미국의 제도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그 결과 현재 일본식과 미국식이 혼재된 학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서정현 외, 2006, pp.142-145).

대학원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는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고, 석·박사통합과정의 중도퇴학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의 경우에는 석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고등교육법 제35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을 합격한 후 학위논문 제출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전문학위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다(고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학위종류는 석사학위와 박사학위가 있다.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되, 그 종류 및 표기방법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

로 정한다(고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고등교육법시행령 제46조). 그리고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는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고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

고등교육법 제31조제2항 수업연한에 관한 조항에 의하면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각각 2년 이상이며,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은 4년 이상이다. 이때 학칙이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이상의 수업연한을 마친 후 학위논문을 작성하게 되는데 학위취득까지 걸리는 기간은 대개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 정도 소요되는 실정이다 (서정현 외, 2006, pp.145-146).

2. 전문대학원

가. 목적 및 설립요건

전문대학원은 전문 직업분야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개발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다(고등교육법 제29조). 전문대학원은 실천적 이론에 초점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에 주안점을 두는 일반대학원과 다르며 또한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직업인 또는 일반성인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대학원과도 구별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제15665호-'98.2.24) 제2의 대학원 규정에 있는 전문대학원 설립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설조건 및 절차는 대학의

관련 학부 및 특수대학원의 폐지를 전제로 하며,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문대학원 신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교원확보는 구 대학원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원 소속 교원을 확보하되, 이중 1/3은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으로 배치 가능하다. 교사확보는 [대학설립, 운영기준](대통령령 제19501호-'06.6.7) 제2조의 3 제1항을 준용하여 제4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교사기준 면적을 확보하되, 전문대학원을 위한 전용시설 확보하여야 한다. 전문대학원에 확보하여야 할 최소 전임교원 중 1/2 이상은 국제적 수준의 학술지 또는 전국 규모 학술지에 최근 5년 이내 2편 이상의 논문발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대학원의 석사과정 정원을 감축하여 박사과정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원 여건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나. 학위규정

고등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의해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이 4학기, 박사학 박사과정은 6학기로 운영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확대하여 운영하는 전문대학원도 존재한다. 졸업이수학점은 일반대학원에서는 석사학위과정은 24학점, 박사학위과정은 36학점 정도를 요구하나, 전문대학원은 일반대학원에 비해 더 많아 석사과정은 약 85% 정도가 25학점, 박사과정은 약 49% 정도가 37학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문대학원마다 졸업이수학점에 차이가 많다. 또한, 전문대학원은 전문학위와 학술학위의 유형별로 학점 이수 과정에서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논문제출자격은 다음과 같다. 전문대학원생은 전문대학원 교육에서 소정의 교과목을 이수한 후에 교과목 이수에 대한 종합적 평가, 즉 석·박사 학위논문의 제출자격을 인정하는 종합시험을 치르게 된다. 종합시험은 학위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강화책의 하나로 필수적이다. 종합시험의 목적은 전공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이어야 하며, 대학원 교과목 이수를 통하

여 습득한 전공지식을 정리하게 함으로써 학위논문 작성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종합시험의 결과는 대학원생의 장기적인 학술적 성장 가능성에 대한 개별적 평가의 기준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대학원 교과과정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재평가의 기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중 외국어 시험의 경우 대학원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TOFEL 또는 TOEIC으로 대체하는 추세이다. 합격 기준은 대학원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영어를 중요시하는 국제대학원의 경우는 합격기준이 높고, 이공계 전문대학원의 경우는 실험 등의 연구가 주가 되므로 합격기준을 낮게 하는 등 전공별로 차이를 두고 있다.

전문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학위논문의 작성은 일반대학원과 마찬가지로 대학원생이 학술적 전문가와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대학원 교육을 종합하여 연구하는 활동으로, 학위논문은 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준을 판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대학원교육에서 학위논문의 작성은 실질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교육 및 연구 활동이다. 전문대학원에서는 효율적인 논문지도를 위하여 입학과 동시에 지도교수가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학생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가운데 지도교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기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영역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지도교수를 선택한다. 논문지도 교수 1인당 적절한 논문지도 학생수는 4-6명 정도이나 실질적으로 각 전문 대학원별로 편차가 있다(서정현 외, 2006, pp.174-175).

3. 특수대학원

가. 목적 및 설립요건

특수대학원은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과 대학의 새로운 기준인 성인학습의 관점, 그리고 동시에 인력개발의 관점에 그 목적을 두

고 있다. 특수대학원의 학과 신설의 기준은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에 비해 명확하지 않아서 학과 신설이 용이하다. 특수대학원의 교수배치 기준 및 시설확보 등의 법령상 설치기준을 보면, 관련학부에 3명 이상 확보를 명시하고 있어 일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에 비해서 상당히 완화된 기준이다. 특수대학원의 대학설립운영규정은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이 동일한 기준으로 교수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대학원의 학생 정원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고, 대학원의 학생 정원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① 대학원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대학원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한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입학할 허가를 하며,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과 또는 전공의 폐지로 재적생이 학과 또는 전공을 옮기는 경우에는 당해 학생이 그 학과 또는 전공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나. 학위규정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특수대학원은 논문 대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도 있고, 학위논문을 제출할 경우 효율적인 논문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가 정해진다. 다만 일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보다는 지도학생이 많아서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 수가 4명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특수대학원도 논문학기에 앞서 논문계획서를 발표하고 있다. 논문계획서 발표는 논문에 대한 초안을 발표

하는 것으로 통과 여부의 구속력은 없다. 논문심사를 위해 자체 전공교수 또는 타 대학교 교수들을 심사위원으로 적극 위촉하는 방안이 실행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학위논문의 심사는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3인 이상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되어있다. 종합시험을 통해 평가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논문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서는 특수대학원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는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또한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하고(고등교육법시행령 제46조), 그 종류 및 표기방법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 있다(고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 특수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이 2년 과정의 주간제로 운영되는데 반해, 특수대학원은 2년 6개월 과정의 야간제와 3년 과정의 계절제로 운영되는 차이가 있으며, 실무적 차원의 전문교육을 위해 설립되었지만, 수업연한·이수학점체제·제 규정·학위수여 종별 등에 있어서는 일반대학원의 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5학년도부터 특수대학원의 평생교육 기능 내실화를 목표로 특수대학원의 직업인 및 성인들의 재교육·계속교육 수요에 부응하도록 특성화 정책 추진과 학생모집에서 지원율이 감소하는 분야의 폐지 등 수요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 조정 권장, 엄격한 학사관리, 논문지도 철저 등 질 관리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특수대학원으로 사이버대학원의 설립을 가능하게 하여 최근 e-learning의 발달에 따른 대학원 교육수요를 따라가고 있다.

제3장 외국 대학원 교육의 사례 및 시사점

이남철 · 이기성

교육제도가 다양하듯이 대학원 교육제도와 프로그램도 국가마다 사회마다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학원 유형이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회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우리나라의 학제와 교육제도는 미국의 것과 유사하게 운영되어 왔다. 미국에는 우리나라처럼 특수대학원 제도가 있지는 않으나 대학원 교육은 학문 중심 대학원 코스와 실무 중심의 대학원 코스로 분류되어 있다. 이번 장에서는 미국 대학원 교육의 사례를 살펴보고, 또한 학제 상에 평생학습제도가 잘 구축된 호주의 대학원 수준의 교육제도를 분석하여 한국의 성인과 재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두 국가 모두 대학원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공통점이 있다.

제1절 미국의 대학원 교육제도

미국 대학교육의 경쟁력 중 특히 대학원 교육의 우수성은 잘 알려져 있다²⁾. 화학, 물리, 의학, 경제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의 과반수가 미국에서 대학원 학위를 받은 사람이다. 미국은 대학원 교육이 지식의 생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쟁력에 중요하게 기여한다고 보고 있지만, 이외에도 민주적 이상을 수호하는 교육받은 시민(Educated Citizenry)을 만들어낸다는 점도 중시하고 있다(CHEA, 2007).

우리나라의 대학 제도는 미국의 대학 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에 따라 교육기관, 고등교육 학제, 그리고 자격(학위)제도가 미국과 흡사하다. 전문대학은 비록 그 성격이 미국의 Community College와 다른 측면이 존재하지만, 4년제 대학(University)은 미국의 대학제도와 많이 흡사하다. 학사운영의 기본 열개는 4년제 과정, 쿼터제도로 운영되는 대학도 있지만 주로 2학기제가 중심이 되고 있다. 졸업학점 120학점 이상, 전공교육보다는 교양교육을 중시하는 학부과정, 석·박사 과정 운영과 학위수여를 위한 기준과 절차 외에도 전문대학원 제도, 학부제, 수능시험, 최근 도입되고 있는 AP(Advanced Placement)나 입학사정관과 같은 대학 입시제도는 미국의 대학교육을 참조한 바 크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 차이점도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대학 제도에 대한 규율과 법령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존재하지 않으며, 주 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고등교육법령은 우리의 경우처럼 공립과 사립대학을 모두 규율하고 교육과정에 대해 관여하는 것이 아니며 주 정부의 규제권한이 큰 것도 아니다. 주 정부가 설립한 대학의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관여할 따름이다. 실제 학사조직의 운영에 대한 책임은 개별

2) 미국의 대학원 교육에 대한 내용은 연구진이 원고를 작성하면서 김환식박사의 글을 참고하였음.

기관의 몫이며, 이를 외부에서 통제하는 것은 바로 인증기관(Accrediting Bodies)의 몫이다. 즉, 미국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을 거론한다면 바로 인증기관의 역할이 무척 강력하다는 점이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의 질 관리도 정부의 규제가 아닌 인증기관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운영되며, 석·박사 과정을 제공하는 것도 대학 스스로의 자율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하여 소수의 대학에서만 가능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연구의 주제인 한국에서 운영되는 성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특수대학원과 비교할 만한 대학원 기관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미국의 대학원 교육 제도를 우리와 직접 단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 역시 우리나라처럼 성인들의 대학원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미국 제도를 살펴보고 한국의 특수 대학원 교육제도 발전에 시사하는 바를 찾아보고자 한다.

1. 미국 교육제도의 개괄

미국의 교육제도는 주에 따라 설립되어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설명하거나 일부 주의 대학의 특수한 사례를 일반화하여 설명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대학교육의 특성을 도출해 내기 위하여 교육제도 전반부터 살펴보려고 한다. 연방 교육부와 기타 연방차원에서 활동하는 Fulbright Foundation나 CHEA 등 주요 교육 관련 기관들의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판단해 보면, 미국의 교육제도는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초·중등교육(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직업기술교육(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중등이후교육(Post-Secondary Education), 그리고 성인계속교육(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이 그것이다. 초·중등교육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와 거의 유사하고 이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생략하고, 이 연구와 직접 관련이 되고, 또 우리의 제도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직업기술교육부터 탐색해 보고자 한다.

미국에서 직업기술교육은 중등교육, 중등이후교육, 그리고 성인교육 단계에서 제공되는 직업기술 관련 교육으로 수준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직업기술교육에는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이 모두 포함된다. 중등이후 단계에서 직업기술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Community Colleges, Vocational/Technical Institutes, 사립직업기술학교(Private Trade and Technical Schools), 고용주, 노동조합, 그리고 전문협회(Professional Associations) 등이다. 그리고 직업기술교육의 결과로는 Certificate, Diploma 또는 준학사(Associate Degree)를 수여한다.

즉, 미국의 중등이후 직업기술교육은 우리의 직업훈련과 직업교육과 상당부분 상응하는 범위이며 주로, 준학사(우리의 전문학사) 수준 이하의 교육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문가(Professional)를 위한 직업교육훈련은 중등이후 교육의 범주에서 논의된다.

중등이후교육은 중등교육 이후의 고등교육으로 일차적으로는 학위과정(degree course)을 의미하나, 학위로는 인정되지는 않지만 그 이하의 수준인 Certificate가 발급되고 통용되는 과정도 포함된다. 이러한 Certificate는 학사 미만 뿐만 아니라 대학원 수준의 교육에서도 발급될 수 있다.

성인계속교육은 주로 생활(life), 일(work) 그리고 가족(family)이 있는 성인(mature adults)으로서 개인적 목적으로 또는 일과 관련된 목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고자 수행하는 추가교육(additional education)을 의미한다. 이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 ◆ 성인기초교육(Adult Basic Education): 주로 중등수준이나 그 이하의 기본능력인 읽기, 쓰기, 셈하기, 그리고 비판적 사고능력(reading, math, writing, critical thinking)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이다. 이민자가 많은 미국 사회에서 수요가 많으며, 정규교육 중도 탈락자들을 위하여 수행된다.

- ◆ 성인중등교육(Adult Secondary Education): 16세 이상으로서 아직 고등학교(high school) 교육을 마치지 못한 자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졸업 자격증(credential)을 취득하도록 도와주는 교육과정이다.

◆ 성인계속교육(Adult Continuing Education): 이미 중등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고등교육 학위를 취득한 성인에게 제공되는 교육과정이다. 이러한 계속교육은 주로 학부 (undergraduate) 또는 대학원 (graduate) 수준이다. 대부분 직무와 관련된 능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며, 중등 이후교육기관, 고용주, 민간훈련기관, 그리고 성인교육센터에서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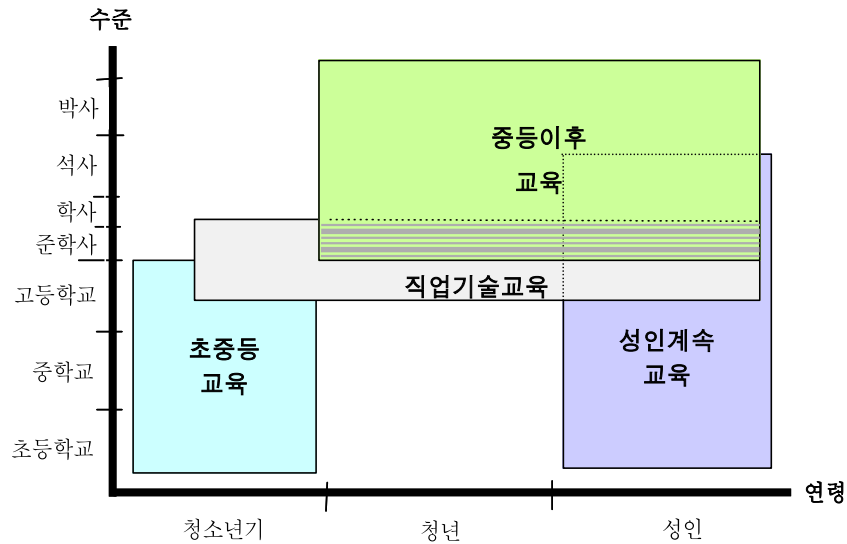
◆ 계속전문교육(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 면허가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전문직업인(professionals)에게 제공되는 계속교육이다. 이들의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재교육과정(refresher courses)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인계속교육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지만, 보통은 준학사 미만의 교육훈련인 성인의 기본능력(Basic skills) 함양과 관련된 교육과 성인 중등교육을 성인계속교육으로 다루고 있다. 그렇기에 때문에 성인계속교육과 관련된 자료들도 주로 위의 두 영역을 중심으로 수집되고 관리가 이뤄진다. 나머지 두 영역인 성인계속교육(Adult Continuing Education)과 계속전문교육(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은 중등이후교육의 영역에서 주로 논의된다.

이와 같이 미국의 교육은 크게 네 단계로 구분되지만, 이 네 단계는 서로 중첩되는 영역도 많다. 그리고 우리처럼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이 교육과 학기기술부와 노동부 등 관할하는 정부부처를 기준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기술교육이나 성인계속교육의 틀 속에서 융합되어 존재한다. 그리고 준학사 이상의 과정은 성인계속교육일지라도 중등이후교육의 틀 내에서 논의된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 이후 준학사에 이르는 과정까지는 직업기술교육과 중등후기 교육의 활동영역이 각각 존재한다.

이 연구의 주제인 대학원 교육은 이 중에서 중등이후교육에 속한다. 성인계속교육 과정에는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 전문직업인(professional)의 교육이 포함되지만, 이는 학위과정이기보다는 주로 비학위과정이나 재교육과정에 해당되므로 중등이후교육에 포함하여 논의한다.

[그림 3-1] 미국의 교육구조(4대 영역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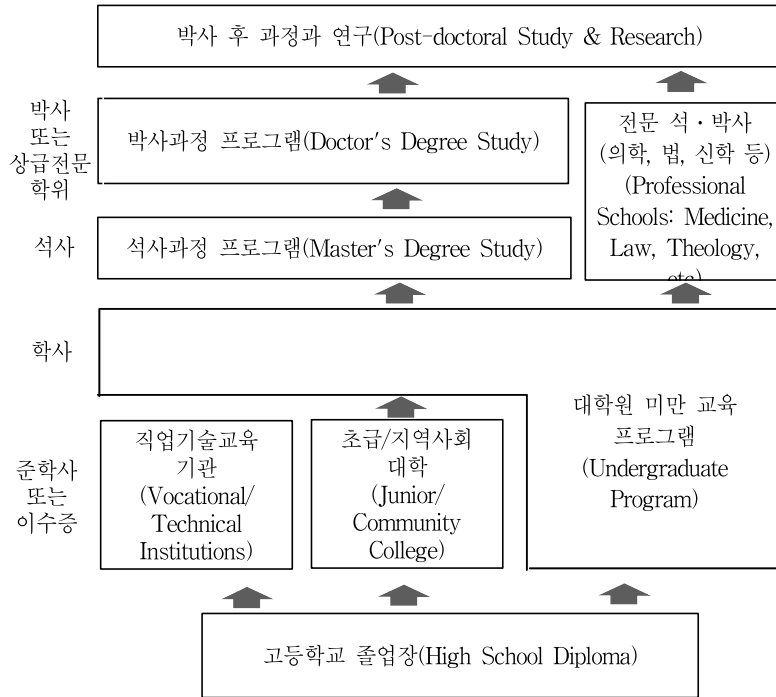
또한, 미국은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고등교육을 기관(institution)을 중심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수여되는 자격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에 따라 미국 대학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자격(학위)제도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공식적인 미국의 자격제도는 고등학교 졸업장(High School Diploma)에서 시작된다. 그 다음이 준학사학위(Associate Degree), 학사학위(Bachelor's Degree), 석사학위(Master's Degree), 박사학위(Doctoral Degree)의 순서이다. 이러한 자격은 공식적으로 상급과정으로 진학할 때 요구되는 자격이고, 또한 진학과 관련이 없는 비학위과정으로서 과정이수증(certificate)이나 각종 diploma 과정이 존재한다³⁾. 석사는 크게 연구석사(Research Master)와 전문(Professional)석사, 그리고 박사는 보통

3) 미국 연방 교육부의 공식 소개 자료(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 Brief Overview)에는 Certificate 과정은 Associate Degree 이하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소개되어 있으나, 미국 교육통계청(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의 원격교육 관련 통계자료(Distance Education at Degree-Granting Postsecondary Institutions: 2006-07)에 의하면 Certificate 프로그램으로 대학원 미만과 대학원 이상 과정으로 자료가 분류되고 있다.

연구박사(Research Doctorate)를 의미한다. 하지만 전문박사도 존재한다. 미국의 교육통계자료는 대학원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관리하기보다는 준학사(Associate Degree) 미만, 준학사과정, 학사과정, 연구석사, 전문석사, 그리고 연구박사와 전문박사, 기타 비학위과정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학사학위과정이 미국 고등교육에서 가장 보편적인 첫 번째 학위과정이다. 그리고 이는 advanced studies에 접근할 수 있는 학위이다. 전일제 학생의 경우 보통 4년이 소요된다. 그러나 공학, 건축 그리고 몇 분야의 경우에는 그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 물론 우수한 학생들은 조기 졸업도 가능하다. 학사과정은 전문영역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보다는 인문사회학적 교양(또는 자연과학적 교양)을 충분히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다. 그에 따라 학제간 또는 다학문간 연계(Inter-disciplinary, Multi-disciplinarity)가 중요한 특징이며, 학위도 그래서 Bachelor of Arts 또는 Bachelor of Science가 기본이 되는 것이다. 학사학위는 학문적 또는 전문적 학문영역에서 모두 수여된다.

보다 전문적인 교육은 대학원 과정으로 수행된다. 의학, 법학, 신학 등과 같은 전문영역에 대해선 전문 석사·박사 제도가 존재하며, 기타의 경우엔 연구석사만이 존재한다. 미국 고등교육시스템에서 박사(연구박사 또는 철학박사)는 가장 높은 학문자격을 의미한다. 박사과정은 높은 수준의 학업(advanced study)과 교수의 지도 하에 수행된 연구(supervised research)가 포함된 구조화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석·박사과정과 전문 석·박사과정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이수증(Certificates)과정이나 Diploma과정이 존재한다.

[그림 3-2] 미국의 교육구조(자격제도 중심)



자료: 미국 연방교육부(2005).

이러한 공식자격 이외에도 미국 교육제도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계속교육단위(Continuing Education Units: CEUs)라는 제도이다. 이는 당초 학점(credit)을 인정받는 교육활동은 아니지만, 학습결과(learning outcomes)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대외적으로 통용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우리의 학점은행제와 교육훈련계좌제(평생학습계좌제) 성격이 포함된 제도이다. 그러나 몇몇 CEUs는 학문분야의 학점(academic credit hours)으로 변환될 수 있다. 이를 위해 IACET(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ontinuing Education and Training)에서 기

준과 평가를 담당한다. CEUs를 대학의 학문분야 학점으로 변환하는 역할은 미국 총·학장 협의체인 미국교육협의회(The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ACE)에서 담당한다. ACE(2008)가 펴낸 Course Evaluation Handbook에 의하면 이러한 CEUs에 대학원 수준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

학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기관은 크게 College와 University로 구분된다. College는 독립된 기관이거나 대학 부속 기관일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학부속 College는 대학의 명칭을 사용하며, 대학원과 전문석사과정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로 학사과정을 제공한다. University는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과정을 개설,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학사과정부터 그 이후까지 모든 범위의 자격을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일부 University는 박사과정을 개설하지 않는 곳도 있다.

2. 미국의 대학원 교육 현황

미국의 대학원 교육은 학사를 취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이러한 교육에는 원격교육(Distance Education) 뿐만 아니라 학위 수준의 교육, 비학위 교육 그리고 기타 성인계속교육이나 전문가의 재교육 활동도 포함된다. 미국의 교육제도에는 우리처럼 성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대학원 수준의 교육을 특성으로 하는 특수대학원이라는 유형의 대학원 교육기관은 없다. 다만 대학원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활동이 수행되고 있다.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의 수를 보면 2006년 가을학기 기준으로 총 4,301개의 기관이 존재한다. 이들 중 2년제 기관과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소규모 기관의 비중이 크며, 석사와 박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오직 20.8%에 불과하다(〈표 3-1〉 참조).

<표 3-1> 미국 고등교육기관 수(자격 기준 분류)

구분	총계	박사 ⁴⁾ (extensive) 과정 대학원	박사 ⁵⁾ (intensive) 과정 집중 대학원	석사 ⁶⁾ 과정 대학원	Baccalaureate ⁷⁾ (학부대학)	Specialized Institutions ⁸⁾ 특성화 대학	2년제 대학
숫자(개)	4,301	151	107	637	639	1,101	1,676
비중(%)	100.0	3.5	2.5	14.8	14.9	25.6	39.0

출처: NCES(2008)

<표 3-2> 미국 고등교육기관 수(기관 성격, 공·사립 기관 분류)

구분	총계	4년제							2년제
		소계	연구중심 대학 very high ⁹⁾	연구중심대 학 high ¹⁰⁾	박사/ 연구중심 대학 ¹¹⁾	석사 ¹²⁾	Baccalaur eate	Special focus	
공립	1,685	653	63	75	27	264	177	47	1,032
사립/ 비영리	1,624	1,532	33	27	45	344	534	549	92
사립/ 영리	1,043	490							553
계	4,352	2,675	99	102	72	608	711	596	1,677

자료: NCES(2008)

- 4) 박사(extensive) 기관은 1년에 적어도 15개의 학문영역(disciplines)에서 50명 이상의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기관이다.
- 5) 박사(intensive) 기관은 1년에 3개 영역 이상에서 적어도 10명 정도의 박사학위를 수여하거나 또는 적어도 전체적으로 20명 정도의 박사를 배출해내는 기관이다.
- 6) 석사 기관은 전 분야에 걸친 Baccalaureate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석사과정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적어도 1년에 20명 정도의 석사를 배출해야 한다.
- 7) Baccalaureate 기관은 학부수준의 교육에 일차적으로 초점을 두는 교육기관이다.
- 8) 4년제 특성화대학들은 단일 학문분야(예: 의학, 경영, 순수예술, 신학 등)에서 학위를 수여하는 기관이다.
- 9) 매우 높은 수준의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중심대학
- 10) 높은 수준의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중심대학
- 11) 1년에 20명 정도의 박사는 배출하나 높은 수준의 연구 활동을 보여주지는 않는 연구중심대학
- 12) 1년에 적어도 50명 정도의 석사를 배출하는 대학

공립 대학의 상당수는 2년제 대학이며, 4년제 대학의 경우 석사 이상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비영리 사립의 경우 2년제 기관은 매우 미미하고 대부분이 석사, 학부 또는 단일영역의 교육을 제공하는 특성화 대학기관이라는 특징이 있다. 영리 사립의 경우엔 2년제와 4년제 간에 큰 차이는 없다.

미국은 고등교육이 보편화된 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일찍이 고등학교 졸업자의 상당수가 고등교육을 이수해오고 있다. 고등교육 인구는 급격한 증가와 감소가 없이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1960년도에 45.1%가 대학에 진학했고, 2007년에는 무려 67.2%가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3〉 참조).

〈표 3-3〉 최근 고교졸업자의 대학진학률

구분	1960	1970	1980	1990	2000	2007
고교졸업자(천명) ¹³⁾	1,679	2,758	3,088	2,362	2,758	2,955
대학진학자(천명)	758	1,427	1,523	1,420	1,745	1,986
대학진학비율(%)	45.1	51.7	49.3	60.1	63.3	67.2

자료: NCES(2008)

고등교육기관의 등록학생 수를 보면, 2008년 기준 약 18,200,000명에 달하고 있다. 이 중 학부 수준의 학생이 15,570,000명이고, First Professional 과정과 대학원 수준의 학생은 각각 354,000명과 2,275,000명이다. 학생 수의 규모는 1980년에서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약 50.5%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대학원 수준의 학생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표 3-4〉 참조).

13) 고등학교를 졸업한 16세에서 24세까지의 인구 또는 전 12개월 내에 GED 시험을 마친 사람임.

<표 3-4> 등록학생 수

(단위: 천명)

구분	1980년 (A)	1990년	2000년	2005년	2008년 추정(B)	증감(% (B-A) / A
계	12,097	13,819	15,312	17,487	18,200	50.5%
학사이하	10,480	11,960	13,155	14,964	15,570	48.6%
First Professional	277	274	307	327	354	27.8%
대학원	1,344	1,586	1,850	2,187	2,275	69.3%
공립	9,457	10,845	11,753	13,022	13,562	-
학사이하	8,442	9,710	10,539	11,698	12,201	-
First Professional	114	112	124	138	144	-
대학원	901	1,023	1,089	1,186	1,216	-
사립	2,640	2,974	3,560	4,466	4,638	-
학사이하	2,033	2,250	2,616	3,266	3,369	-
First Professional	163	162	183	199	210	-
대학원	443	563	761	1,001	1,059	-

자료: NCES(2008)

미국 연방교육부(교육통계센터)(2008)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성인의 대학원 교육 참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학위수여기관의 등록학생 수(30세 이상)를 보면 1970년 이후 2008년까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35세 이상의 등록학생의 숫자가 약 40년 사이에 274.2%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표 3-5> 참조). 이는 동 기간 동안 전체 등록 학생의 증가율이 약 50.5%인 것과 비교해보면, 30세 이상의 등록학생 수가 어느 정도나 급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30세 이상 학생은 전일제 학생 뿐만 아니라 시간제 학생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표 3-5> 학위수여기관에의 등록학생 수(30세 이상)

(단위: 천명)

구분	1970 (A)	1980	1990	2000	2005	2008 추정(B)	증가율(% (B-A)/A
30-34세	487	1,243	1,322	1,265	1,354	1,434	194.5%
-전일제	100	251	387	422	549	613	-
-시간제	387	905	935	843	805	821	-
35세 이상	823	1,421	2,484	2,749	3,090	3,080	274.2%
-전일제	134	182	471	599	818	767	-
-시간제	689	1,145	2,012	2,150	2,272	2,313	-
30세 이상	1,310	-	-	-	-	4,514	244.6%
-전일제	234	-	-	-	-	1,380	489.7%
-시간제	1,076	-	-	-	-	3,134	191.3%

자료: NCES(2008)

학위의 종류는 사회문화적·역사적 배경과 대학원 운영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크게 학술학위(academic degree)와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로 구별하고 있다. 학술학위는 학문연구능력을, 전문학위는 전문적인 능력을 가늠하여 수여된다. 미국에서 석사학위의 경우 학술학위는 M.A. (Master of Arts)와 M.S.(Master of Science)가 있고, 전문학위로는 M.B.A.(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M.F.A.(Master of Fine Arts), M.M.(Master of Music), M. ED.(Master of Education) 등 140여종의 전문석사학위가 있다.

박사학위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학술 박사학위는 Ph. D.(Doctor of Philosophy)¹⁴⁾인데, 미국에서는 박사학위 경우에도 학술학위 이외에도 법과대학, 의과대학,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등의 전문고등교육

14) 여기서 철학(philosophy)이란 학문 분야로서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최고의 지성 또는 가장 높은 수준의 학술연구인으로서의 자질을 상징하는 것이다.

기관인 전문대학원이 별도로 있어서 일반대학원과는 달리 별도의 교수진을 가지고 있고 독자적으로 J.D.(Doctor of Juris), Ed. D.(Doctor of Education), M. D.(Doctor of Management) 등 40여 종의 전문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학술박사학위와 전문박사학위를 통합하여 볼 때, 교육학, 경영학, 보건, 그리고 공학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는 학생의 수가 많다. 여기에서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해볼 수 있다. 경영학은 준학사과정, 학사과정, 그리고 석사과정까지 많은 학생들이 이수하고 있으나 박사과정에서는 4대 핵심 영역에 끼지 못하고 있다. 반면, 교육학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서 오히려 그 비중이 큼을 알 수 있다. 보건 분야는 준학사과정부터 박사과정까지 비교적 고르게 자격취득자가 존재한다. 석사과정까지는 공학 분야가 대표적이었으나, 박사과정부터는 분과 학문인 생물학에 관련된 분야가 4대 핵심영역에 처음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석사과정에서는 교육학과 경영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 반면, 박사과정부터는 각 영역이 10% 내외에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고 있다.

<표 3-6> 자격별 취득 학생 수 추이(자격별 핵심 4대 학문분야를 중심으로)

구분	1996-1997		2006-2007		1996-1997 to 2006-2007		
	학생 수	비중 (%)	학생 수	비중 (%)	학생수 증감	증가율 (%)	
준학사	계	571,226	100.0	728,114	100.0	156,888	27.5
	Liberal arts and sciences, general studies, and humanities	181,341	31.7	250,030	34.3	68,689	37.9
	Health professions and related clinical sciences	102,077	17.9	145,436	20.0	43,359	42.5
	Business	100,400	17.6	116,101	15.9	15,701	15.6
	Engineering and engineering technologies	57,234	10.0	50,662	7.0	-6,662	-11.6
학사	계	1,172,879	100.0	1,524,092	100.0	351,213	29.9
	Business	225,934	19.3	327,531	21.5	101,597	45.0
	Social sciences and history	124,891	10.6	164,183	10.8	39,292	31.5
	Education	105,116	9.0	105,641	6.9	525	0.5
	Health professions and related clinical sciences	87,997	7.5	101,810	6.7	13,813	15.7
석사	계	419,401	100.0	604,607	100.0	185,206	44.2
	Education	108,720	25.9	176,572	29.2	67,852	62.4
	Business	97,204	23.2	150,211	24.8	53,007	54.5
	Health professions and related clinical sciences	36,162	8.6	54,531	9.0	18,369	50.8
	Engineering and engineering technologies	27,106	6.5	32,162	5.3	5,056	18.7
박사	계	45,876	100.0	60,616	100.0	14,740	32.1
	Health professions and related clinical sciences	2,179	4.7	8,355	13.8	6,176	283.4
	Education	6,297	13.7	8,261	13.6	1,964	31.2
	Engineering and engineering technologies	6,250	13.6	8,123	13.4	1,873	30.0
	Biological and biomedical sciences	5,094	11.1	6,354	10.5	1,260	24.7

자료: NCES(2009)

미국 대학원교육제도에서 석사학위과정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연구석사와 전문석사인데, 연구석사(Research Master's Degrees) 과정은 학문 분야에서 수여되며 일반적으로 대학원 과정 수업과 세미나 코스 등이 필수로 구성된다. 연구석사 과정 학생들은 연구를 하는 세부전공별 종합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교수의 지도 하에 논문을 준비하고 논문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논문작성 절차 없이, 전공 프로젝트 수행이나 규정에 의한 논문 제출로 대체할 수도 있다.

전문석사학위(Professional Master's Degrees) 과정은 전문 영역에서 수여되는 석사 학위로 연구석사과정과 유사하게 구조화되거나 응용 전문분야의 최고위 과정(예: MBA 과정)에서 학생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시키도록 구조화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특정 코스워크나 세미나 코스, 혹은 특정 수준의 실천학습 등이 있다. 그리고 프로젝트나 기타 필수요건은 논문으로 대체될 수 있다. 전문적 인턴십을 현장지도와 함께 필수적으로 수행하기도 한다.

일차전문학위(First professional degrees) 과정은 6년 또는 그 이상의 교양과목(처음 3년간)과 전문교육(대개 후반부 3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이수한다. 중등이후 교육, 전문직으로 활동하기 위한 학업이나 사전 전문학습 등을 위해서 운영된다. 미국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자가 입학할 수 있으나 학부 수준의 프로그램으로 간주된다. 그 이후 과정은 학사학위,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과정으로 구성된다.

신학석사과정은 학사학위 이후 3년간의 프로그램, 의학전문학사는 3년간의 예비학습과정 이후 4년간의 학습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리학박사 과정은 3년간의 예비학습과정 이후 3년간의 학습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 대학원 법학사과정은 일차전문학위로 전환되었다. 그 외에도 약학박사는 6년간의 학업기간을, 건축학사는 4년에서 8년까지로 의무기간이 변경되었으나, 다른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3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으로 운영된다. 일차 전문학위는 학사학위로 취급된다. 직업의 수

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공실습은 학사학위 취득 후 석사학위 과정에서 실시한다.

가. 전문석사(Professional Master's Degree) 과정

전문석사학위과정은 회원 기관들이 문서화 된 지역 내 인력 수요와 민간, 정부, 비영리 기관에 취업을 희망하는 졸업생들의 수요를 감안하여 석사학위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안되었다.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그리고 인문학 분야에서 학사학위로는 부족한 기술적 학문적 배경을 연마하고, 실무적 작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과정이다. 전문석사과정은 전문직 취업자격을 쌓는 것이 주목적이다. 박사과정 졸업생들은 흔히 연구 능력은 넘치도록 충분하게 성취하나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직 기술은 부족하다. 전통적인 학문분야 석사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박사학위 프로그램이나 법, 의료와 같은 전문직 분야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공학, 사회복지, 공공행정 분야는 석사 수준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무적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부 인문교양 분야 졸업생 중에서는 대략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서 20%, 인문학에서는 40% 만이 대학원 교육을 추구한다. 대학원 교육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분야는 교육, 경영, 보건 등의 전문직업 분야들이다. 전문석사학위는 그 분야의 전문직을 추구하는 학생들에게 박사학위에 대한 대안으로 기능한다.

나. 석사학위

석사학위 과정은 전문석사학위과정을 포함하여 M.A., M.S., M.B.A. 등으로 공히 최소 1년 이상, 일반적으로 18~24개월의 기간을 요구한다. 대학

원 학위과정의 필수요건은 학사학위 소지자이며, 특정 과정의 학점은 반드시 필수적이다. 석사학위는 대체로 최소 30학점에서 최대 60학점까지 이수해야 하고, 평균 B 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수여되는 기관도 많이 있다.

3. 미국 대학원 교육의 특징

성인의 계속교육이 어떤 형태로 보장되는지를 중심으로 미국 대학원 교육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대학원 교육의 특징은 한국의 대학원 교육의 특징과 상이한 점들이 많다.

첫째,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학술편위와 전문학위를 구분하는 것은 교육과정 상의 다양성 확보에 가장 큰 목적이 있는데 이를 통하여 다양한 교수진과 학생을 수용하여 통합화와 세분화, 선택권 보장으로 순수한 학문발전의 기초를 얻을 수 있는 한편, 지속적으로 새로운 학문 영역과 전문 영역을 개척할 수 있게 된다(박윤성, 2004, p.61). 또한 대학원 교육이 전문성을 확보하여 사회에서 요구하는 고급 인적자원을 적절히 공급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둘째, 인증기관의 역할이 무척 강력하다.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학위의 인정도가 약화될 수는 있지만 그 학위의 통용성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학위장사꾼(degree mill)의 학위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증을 받게 되면 학위의 통용성과 호환성,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활용도가 보장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college나 university)은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물질, 인적 자원의 투자 뿐만 아니라 학교의 전반적인 거버넌스와 경영관리체제 등의 생산성이 보장되고 특정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인에게 특별한 우대를 하는 것이 타당성을 갖지 않는 이상 대학은 이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을 제공하는 과정을 두지않고 성인이나 근로자들도 대학을 갓 졸업한 학

생들과 동일하게 대학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성인이 주로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과정과 마찬가지로의 교육수준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되며, 나아가 이러한 질 관리 노력은 비단 학위과정 뿐만 아니라 비학위과정까지도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의 프로그램의 질은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지역 인증기관 중의 하나인 중부고등교육위원회(Middle States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2006)에서 발간한 인증 기준에 의하면, Certificate Programs (예: Post-Baccalaureate, Post-Masters, Post-Doctoral Levels 등)도 다른 학위과정과 다르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물론 비학점과정이나 원격교육도 고등교육기관에서 제공하려면 그 질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후술하는 CEUs에 대한 학점화, 원격교육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인증 절차를 통과하여 기관과 프로그램의 인증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부각된다.

셋째, 연방정부나 주 정부의 권한이 크지 않다. 연방정부의 법적 권한이 적은 이유는 연방헌법에 의거 교육은 연방정부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이다. 외교 문제에 관련될 경우에 최소한도의 개입이 가능하다. 그에 따라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연방정부와 교육부에서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인정하거나, 질 보증을 위한 조사를 하거나, 또는 교육수준을 결정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질 보증에서의 연방정부의 역할은 연구와 통계,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정책 리더십, 그리고 인증기관들의 승인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승인을 하는 이유도 인증기관들이 연방정부로부터 용자나 보조금을 받을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그리고 연방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인증해 주기 때문이다.

반면에, 전문협회나 비영리 기구에 의한 자율규제나 전문가 규제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인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정부와 무관하지만 고등교육기관의 대표로 구성

된 비영리기관인 CHEA(The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이며, CEUs를 학점화 하는 일은 대학 총학장 협회인 ACE(the American Council of Education)에서 담당한다. 프로그램 인증에 대해서도 관련된 협회나 단체의 참여가 적극적이다. 현재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기관은 총 61개가 존재하는데(CHEA, 2008), 이들 기관의 대부분이 바로 업종별, 산업별, 직업별 협회이다. 이러한 협회를 예로 들면, 건설교육협회(American Council for Construction Education), 치과인증 협회(American Dental Association Commission on Dental Accreditation), 치료기술교육협회(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Accreditation Council for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 교양교육학회(American Academy for Liberal Education) 등이 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과정을 운영하기 곤란한 것이다.

넷째, 성인의 계속교육 수요를 위한 원격교육이 일부 활성화되어 있다. 미국은 영토가 넓기 때문에 성인의 교육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격교육이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원격교육도 인증이라는 절차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보장되어 왔다. 원격교육훈련협회 DETC(Distance Education and Training Council(2009)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인증을 받은 원격교육기관은 총 113개 기관이다. 그 중에서 명시적으로 학부 수준을 넘어선 과정을 제공하는 기관은 약 47개 정도의 기관이다. 이들 기관에서 제공하는 과정은 대부분이 석사 및 자격증이나 졸업장 과정이며, 예외적으로 교육학 박사과 같은 소수의 전문박사를 제공하는 기관도 있다. 석사 과정의 대부분은 역시 보건과 경영 관련된 분야이다.

다섯째, 비학위 과정, 파트타임 등과 같이 학습자의 상황을 반영한 교육 과정 편성과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상당수가 시간의 제약을 고려해서 파트타임이나 비학위 과정(Certificates 나 Diploma)을 채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대학들은 공식적

인 자격인 전문학사, 학사, 연구 석·박사, 전문 석·박사 이외에도 단기 과정인 비학위 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마쳤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수를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연구박사가 주로 철학박사(Ph. D.)를 의미하기 때문에 전문박사를 별도로 인정해 교육학박사(Ed. D.) 등과 같은 박사학위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

여섯째, 경험학습이나 평생학습노력을 관리·인정하고, 이를 궁극적으로 학점으로 전환해주는 노력이 공식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학점으로 전환하는 우리나라 학점은행제와는 달리 미국의 CEUs는 주로 직장에 근무하는 성인(working adults)의 지식과 기술의 재교육, 학점 불인정 프로그램과 과정(non-credit programs와 courses)의 성공적인 수료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서, 정부의 개입이 아닌 미국의 계속교육훈련국제협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ontinuing Education and Training: IACET)라는 비영리 협회(a non-profit association)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 IACET에서 계속교육훈련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질 관리 기준과 지침(IACET's Criteria and Guidelines)을 만들고, 이 기준과 지침에 따라 수천 개의 프로그램을 인증하고 있는 것이다.

CEUs를 대학의 학점 수(academic credit hours)로 전환하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CE에 의해서 제공된다. 전환되기 위해서는 인증된 기관에서의 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그 결과를 ACE에서 성적표(transcript)로 발급받아야 하며, 이 결과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colleges나 universities에서 학점으로 전환해주게 되는 것이다. 교육과정의 수준에 따라서는 대학원 수준의 학점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ACE(2008)에서 펴낸 과정평가핸드북(Course Evaluation Handbook)에 의하면, 과정 평가 이후 그 수준에 Upper-division Baccalaureate degree와 대학원 학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판단할 수 있다.

일곱째, 미국 대학과 우리 대학의 가장 큰 차이 중의 하나는 역시 대학의 자율성 정도일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공립·사립대학은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데 있어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은 기관 스스로 대학의 사명과 목적을 정하고, 그에 맞게 학사조직을 편성·운영하고, 각종 지원시스템을 대학 스스로 갖추는 점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관의 자율성이 인증 시스템과 결부됨으로써 대학마다 독특한 특징을 갖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다. 즉, 기관과 과정의 인증시스템도 대학의 자율성을 고려하되, 대학교육과 연구의 질을 보장하는데 일차적 관심이 있다.

그렇다 보니, 우리처럼 4년제 대학이면 대학원이 모두 존재해야 하고, 또 박사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미국 대학의 운영과 평가인정 과정과는 무척 상이한 것이다. 그에 따라 미국에서는 대학에 따라 연구박사를 길러내는 대학, 최대 석사까지만 과정을 개설하는 대학, 학사 수준에 집중하는 대학 등 굉장히 다양한 양상의 대학이 만들어지고 특징 있게 발전될 수 있는 것이다.

제2절 호주의 대학원 교육제도

호주의 대학원 교육제도¹⁵⁾는 한국과는 매우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반적인 교육제도 자체가 한국과는 매우 상이하다. 한국의 대학원 체제와 다르며 특수대학원과 같은 교육적 특성을 가진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다. 호주의 대학원교육제도를 한국의 특수대학원과 직접 매칭시켜서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최근 호주에서도 성인들의 대학원교육에 대한 수요

15) 한국의 대학원 유형이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으로 분류되는 것과는 달리 호주의 대학원 교육의 유형은 과정대학원과 연구대학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한국과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호주의 대학원 교육제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는 일은 한국의 제도 발전에 참고 될 수 있다¹⁶⁾.

최근 통계에 의하면 호주에는 대학교육의 전통적 소비계층이었던 학생 집단은 감소하는 반면, 이 공백이 25세 이상의 성인집단에 의해 상쇄되고 있다. 학사이후 과정프로그램(coursework programs)에 등록된 성인의 숫자는 2001년 95,000여 명에서 2006년 114,000여 명으로 증가한 반면, 학부 과정 등록은 같은 기간에 147,600명에서 137,400명으로 약 10,000명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직업생활에서 생명력이 길어지고 경력 전환이 발생하다 보니 성인으로 하여금 그들의 전문 자격을 향상시키거나 또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자격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필요성이 증가하여 평생학습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정부와 고등교육기관들(HEPs: Higher Education Providers)¹⁷⁾은 성인과 직장인들의 대학 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도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의 대학원 교육이란 특수대학원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한국적인 개념의 제도이지만 호주의 대학원 교육제도는 교육의 과정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또한 호주의 자격제도(AQF: Australian Qualification Framework)¹⁸⁾의 시각에서 대학원교육을 정의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설명이 될 수 있다. 즉, 호주의 대학원 교육은 호주자격제도(AQF) 중 우등학사학위(bachelor honours degree) 이후의 자격을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관점은 학교 영역, 직업교육훈련

16) 호주의 대학원 교육에 관한 내용은 연구진이 원고를 작성하면서 김환식박사의 글을 참고하였음.

17) Higher Education Provider (고등교육기관 혹은 고등교육공급자)라는 용어도 호주 제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곤란하다. 후술하지만 호주는 university외에도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기관들이 매우 다양하기에 이를 모두 포괄하여 Higher Education Providers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공급자)라는 용어로 통칭하고 있다.

18) AQF는 단순히 '호주자격제도'로 번역되고 있으나, AQF는 단순한 자격제도 이상의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호주의 자격제도는 교육훈련제도를 종으로, 횡으로 연계하고, 학습자의 학습경로(learning pathway)를 다채롭게 보장하는 호주교육훈련제도의 큰 틀이기 때문이다. AQF는 호주 교육훈련제도의 기반이며 출발점이 되고 있다.

(VE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영역, 그리고 고등교육 (Higher Education) 영역으로 구분된 호주의 교육훈련제도의 특성과 대학 교육의 현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1. 호주 교육제도의 개괄

가. 정규학교교육제도

호주의 교육제도는 직업훈련을 포함하며 크게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정규학교교육제도가 기본적인 학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주정부마다 차이가 있다¹⁹⁾. 이 글은 비교적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퀸즈랜드 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대분해 보면 11학년부터 시작되는 직업교육훈련과 12학년의 학교교육을 마친 이후 시작되는 고등교육으로 구분된다. 호주의 교육제도는 한국과는 달리 직업교육훈련이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학교와 직업교육훈련, 직업교육훈련과 고등교육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학교는 극소수의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직업교육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종합고등학교이다. 10학년까지는 의무교육이어서 우리의 국민공통 10년 교육과정처럼 누구나 다 이수해야 하며, 11학년부터는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구분되어 학생 개개인별로 교과목을 선택하여 직업교육반과 대학진학반으로의 이분적 제도 없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학습활동이 이루어진다.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진학하고자 하는 학업 분야에 따라 11학년과 12학년에서 선택하는 교과목이 서로 다르다. 이는 이 기간 동안 선택한 과목들이 대학 입학시 고려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면 한국의 고등학교 졸업장에 해당하는 senior statement를 받게 되고, 만약 정부가 정한 기준²⁰⁾을 충족하게

19) 호주는 연방국가로 현재 6개의 주 정부와 2개의 준주(準州)가 존재한다. 퀸즈랜드는 6개의 주 정부 중의 하나이다.

되면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또 다른 자격인 고등학교 수료증(Senior Secondary School Certificate)을, 퀸즈랜드 주의 경우엔 퀸즈랜드 교육수료증(Queensland Certificate of Education: QCE)이 주어지게 된다. 수료증이 대학에서는 입학 자격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누구나 다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QCE를 받은 자만이 대학 입학자격이 주어지고, QCE를 받았다는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문해능력과 수리능력(Literacy와 Numeracy)을 갖추어 대학수학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이 가능하다.

나. 성인과 재직자를 위한 교육훈련제도

한편 일정기간의 직업경험이 있는 자를 비롯해 성인에 대해서는 QCE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대학입학을 지원하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가 존재한다(QSA, 2008; QPAC, 2008). 대부분의 중등단계 직업교육훈련은 11학년부터 극소수의 중등단계 직업교육훈련기관 제외한 대부분 등록된 직업훈련기관(RTOs: Registered Training Organizations)²¹⁾에서 주 1일 정도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다. 12학년을 졸업하면 그 이후에는 RTOs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는다.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채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는 자, 이미 노동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다시금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이 RTOs에서 실무역량 중심의 직업교육훈련을 받게 된다.

20) 최소한 20학점을 성공적으로(sound achievement, pass or equivalent) 취득해야 하고, literacy와 numeracy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때 20학점 중 최소 12학점은 핵심과목(core subjects)에서 취득해야 하고, 나머지 8학점은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21) RTO는 호주 직업교육훈련 시장에서 활동하면서 AQF 상의 자격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이다. RTO가 아니면 AQF 상의 자격을 발급할 수 없고, 그로 인해 RTO가 아닌 기관에서 발급하는 자격은 호주 내에서 공식적인 통용성을 보장받지 못한다. 가장 대표적인 RTO는 공립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서 우리의 전문대학과 일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TAFE(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Institute가 있으며, 이외에도 일부 school, 순수한 민간회사, 영리법인 등도 정부의 심사(audit)를 받으면 RTO가 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그 교육과정과 자격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점이다. 이를 ‘국가능력배양제도(National Skills Framework)’라 하여, 모든 주 정부는 이 프레임워크에 의한 제도와 기준 등을 준수하여 운영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직업교육훈련의 전달과 자격의 질을 제고하고 국가적 일관성을 도모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국가능력배양제도(NSF)는 AQF, AQTF 2007, 그리고 Training Packages의 3가지 하위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제도의 운영은 각 주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운영의 형태도 주에 따라 다양하다(DESTa, 2007)

이 중에서 AQTF(Australian Quality Training Framework) 2007은 RTOs에 의해서 제공되는 직업교육훈련과 평가 서비스에 대해 국가적으로 합의한 질 보장 제도의 집합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에 등록하거나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RTO가 갖춰야 할 기준, 직업교육훈련기관을 인가하는 정부 당국이 갖춰야 할 기준, 그리고 RTO가 높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들에 부합함으로써 RTO는 양질의 직업교육훈련을 학습자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Training Packages(TPs)는 개별산업, 광범위한 산업영역 또는 기업 차원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평가하고 인정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지원에 의해 산업별협회(Industry Sector Councils: ISCs)²²⁾에서 만든 국가적으로 인정된 자격과 자격취득에 필요한 실무역량단위(unit of competency)²³⁾ 등의 집합이다. 이를 통해 직업교육훈련을 통해서 배출되는 인력들의 질, 일관

22) 현재 총 11개의 ISCs가 존재한다.

23)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실무역량단위의 이수가 요구되며, 그 수와 수준(level)은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에 따라 변한다. 이 실무역량단위는 고등교육 영역에서의 과목과 유사하다. 각각의 TPs에는 그 산업분야의 직업(직무) 등과 관련된 다수의 자격이 존재하고, 각 자격별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역량단위가 기술된다. 물론 전달과 평가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raining Package를 예로 들면, Certificate I(1개 자격), Certificate II(1개 자격), Certificate III(1개), Certificate IV(8개 자격), Diploma(9개 자격), Advanced Diploma(2개 자격)이 존재한다. 이중 Certificate IV in Information Technology(Websites)를 보면, 선수로 취득해야 할 실무역량단위는 9개이고, 12개의 핵심 단위(core units)는 누구나 다 이수하되, 만약 디자인 분야로 나갈 경우에는 9개의 관련 분야 단위(specialist core stream units)를, 만약 관리분야로 나갈 경우에는 8개의 관련 분야 단위를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선택으로 4개 단위를 이수해야 한다.

성, 그리고 산업관련성이 보장된다. RTOs는 이 TPs에 기초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달하며, 그리고 평가해야 한다. 이 직업교육훈련 영역에서 제공하는 자격은 중등단계의 I단계 자격증(Certificate I)에서 III 단계 자격증²⁴⁾, 그리고 중등단계 이후 단계로 간주되는 IV단계 자격증, 졸업장(Diploma), 상위졸업장(Advanced Diploma), 학사이후 단계로 간주되는 직업대학원 수료증(Vocational Graduate Certificate), 직업대학원 졸업장(Vocational Graduate Diploma)이 있다.

고등교육 영역은 실무역량에 기반을 둔 직업교육훈련 영역과는 달리 지식의 생성, 보존 그리고 전수활동과 관련이 깊다. 이를 위해 연구와 학문활동을 수행하고, 학사과정과 대학원 학생들을 교육한다. 그리고 전문직업(예: 의사, 변호사 등)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한국의 교육훈련제도와는 상이하게 대학교 이외에도 AQF 상의 고등교육 자격을 발급하는 공급자로 자율인증기관과 비자율인증기관²⁵⁾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 특히 기관의 사명과 목적, 가르침과 연구의 방법, 학생조직의 구성,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할 자율성을 광범위하게 보장 받고 있는 점이 큰 특징이다. 따라서 대학마다 각각 서로 다른 학사조직과 행정조직을 갖고 있다(DEEWR, 2008).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는 의학전문대학원과 의과대학을 정부가 규제하고 있지만, 호주는 어떤 형태의 학사조직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대학의 자율사항이다²⁶⁾. 해당 협회에서 이들 학사조직에 대한 인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원 조직, 제공하는 과정, 입학요건, 평가 등이 기관마다 서로 다르다.

대학교의 경우 대부분 주 정부의 개별 설치 법률²⁷⁾에 의해서 각각의 대

24) 중등학교에서 Year 12를 마치고 일정기준에 충족하는 자에게 수여되는 Senior Secondary School Certificate(SSSC)는 직업교육훈련 영역의 Certificate III 정도로 인정된다. SSSC를 받지 못한 채 Year 12를 졸업한 자는 보통 Certificate II 정도로 인정된다.

25) 자율인증기관(Self-Accrediting Institution)은 University는 아니지만, University처럼 자격과 교육 과정을 스스로 인증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는 기관이며, 비 자율인증기관(Non Self-Accrediting Institution)은 이러한 힘이 없이 주 정부에 의해 주기적으로 심사받고 승인받아야 하는 기관이다.

26) 예를 들면, 퀸즈랜드 주의 가장 오래된 대학인 the University of Queensland의 경우 전문대학원 형태인 반면 후발대학인 the Griffith University는 의과대학 형태를 취하고 있다.

27) 예를 들면, 공립대학인 Griffith University는 the Griffith University Act 1988이, 사립대학인

학교가 만들어지지만,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의사결정기구²⁸⁾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직원 채용, 재원활동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자율성(autonomy)을 보장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주 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퀴즈랜드 주의 경우 고등교육기관 설치에 관한 법인 Higher Education (General Provisions) Act 2008에 자율인증기관, 비자율인증기관 및 대학교(unmodified universities, university college, specialized university 등)²⁹⁾ 등의 승인과 갱신에 관련된 내용과 소비자들의 진정(appeals) 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직업교육훈련 영역은 1990년대 이후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제도가 만들어졌고, 주 정부의 규제도 이러한 표준화된 제도에 준해서 수행되고 있으며, 재정지원은 주로 주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 영역에서의 규제는 주로 주 정부 차원에 의해서, 재정지원은 고등교육지원법(HESA: Higher Education Support Act) 2003에 의거 주로 연방정부

Bond University는 the Bond University Act 1987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 28) 일반적으로 각 University의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governing body)는 council, senate or board of governors 등으로 불리며, 이들은 governing body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명예총장(Chancellor)에 의해서 운영된다. governing body의 구성은 정부, 산업, 지역사회, academic staff, 졸업생 그리고 학생 등의 대표로 구성된다. 하지만 실제 University의 운영은 총장(Vice-Chancellor, 최근에 점차 President로 불림)에 의해 이뤄진다. 이 Vice-Chancellor가 University의 CEO인 것이다. 이 Vice-Chancellor가 governing body에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 29) 연방정부의 '고등교육승인과정'에 대한 국가지침(National Guidelines for Higher Education Approval Process)'에 의하면 호주의 University는 3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Unmodified Universities, University Colleges, Specialized Universities가 그것이다. Unmodified Universities는 우리의 종합대학(지금은 존재하진 않지만) 개념과 유사하며, 이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개 이상의 대분류 학문영역(a broad field of study)에서 AQF 상의 고등교육 자격을 전달하고, 연구석사(Research Masters)와 철학박사(PhDs)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박사(Research Doctorates) 자격을 전달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물론 그 수준은 국제기준에 동등해야 한다. University College가 되기 위해선 적어도 3개의 대분류 학문영역에서 과정 석사(Masters coursework degrees)와 적어도 1개의 영역에서 연구석사 그리고 철학박사 또는 동등한 연구박사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University Colleges가 된 이후 5년이 지나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그때 Unmodified Universities가 될 수 있다. Specialized University는 1개 또는 2개의 대분류 학문영역에서 AQF 상의 고등교육 자격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연구석사 그리고 철학박사 또는 동등한 연구박사 포함). Unmodified University가 아니면 명칭 사용과 광고에서 University College 등으로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반면, 퀴즈랜드 주의 Higher Education Act 2008에서는 하나가 더 추가되어 Specialized University Colleges가 있다. 위와 같은 Universities의 구분은 2008년 이후부터 만들어진 것으로서 현재 호주의 University는 모두 Unmodified University라 할 수 있다.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차이가 있다(DEEWR, 2009).

직업교육훈련 영역과 고등교육 영역을 막론하고 AQF 상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호주로 유학을 온 외국유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훈련의 질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연방정부에서 제정한 해외유학생 교육서비스 법(ESOS: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Act 2000)이 존재한다.

더욱이 대학원에 대한 규제는 거의 전무하다. 즉, 대학원의 설치 여부, 제공하는 과정 모두가 고등교육기관의 책임인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처럼 정부의 법령에 의거 좌우되는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과 같은 용어가 없다.

HESA 2003은 공적자금지원과 관련하여 호주 고등교육공급자를 크게 A, B, C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연방정부의 보조금으로(A기관에게만 자격부여) 연방정부에 의해서 할당된 정원³⁰⁾에 비례해서 지급된다³¹⁾.

고등교육 영역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은 졸업장(Diploma), 상위졸업장/ 준학사 학위 (Advanced Diploma/Associate Degree), 학사학위 (Bachelor Degree), 대학원 수료증(Graduate Certificate), 대학원 졸업장 (Graduate Diploma), 석사학위(Master Degree), 박사학위(Doctoral Degree) 총 7개이다. 이 중에서 우리에게는 생소한 자격은 Diploma, Advanced Diploma, Graduate Certificate, Graduate Diploma이다. 물론 AQF의 운영핸드북(Implementation Handbook)에서는 이를 더 세분하여 학사 학위 외에도 우등학사(Bachelor Honours)가 존재하고, 석사·박사에도 연구석사·박사, 과정석사·박사, 그리고 전문직업 분야에서의 과정석사·박사, 우등박사(higher doctorate)³²⁾가 존재한다. 학사학위는 과정마다

30) 이때 정원이라 함은 우리처럼 입학정원이나 대학 총정원 개념처럼 입학 규모 등을 결정하는 학생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운영되는 학생 숫자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재정지원하지 않더라도 university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학생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외국 유학생이 이러한 학생의 중요한 예이다.

31) 물론 '국가 중점 인력양성분야', '학문 대분류', 지방대학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된다.

32) AQF 집행핸드북에 의하면 Higher Doctorate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이 학위를 수여하게 될 기관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특정 지식에 원천적으로 공헌했다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차이가 있으나 보통 3년이다. 물론 대학에 따라서 그 명칭과 학습자의 학업경로는 서로 다르다. 즉, 자율성과 더불어 다양성이 보장되고 있다.

이외에도 호주 고등교육은 높은 수준의 질 보증 체제와 관련이 깊다. 고등교육공급자들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호주 대학 질 관리 청(AUQA: Australian University Quality Agency)'에 의해 주기적으로 교육의 질을 점검받아야 하고, 대학 스스로도 다양한 형태의 자체 점검 활동을 해야 한다.

위와 같이 호주의 교육제도가 학교, 직업교육훈련, 고등교육으로 구분된다고 할 때, 호주의 대학원 교육은 일차적으로 고등교육 영역을 토대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 교육부(DEEWR)가 작성하는 공식 통계에 의하면 학사 자격은 Honours Bachelor Degree까지를, 그 이후인 대학원 수료과정(Graduate Certificate)부터는 대학원 수준의 자격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의 대학원교육제도는 고등교육 영역에서 제공되는 대학원 수료증, 대학원 졸업장,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Graduate Certificate, Graduate Diploma, Master, Doctor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대학원 영역의 자격을 Graduate Certificate 이상으로 본다면, VET 영역에서도 2개의 자격(Vocational Graduate Certificate와 Vocational Graduate Diploma)이 발급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우리와는 달리 호주의 직업교육훈련기관인 등록훈련기관도 대학원 수준의 자격을 발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특수대학원은 성인이나 직장인의 재교육과 관련된 대학원 교육이기 때문에 직업교육훈련 영역에 대하여 2개의 자격도 포함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다. 즉, 호주의 대학원 교육이라 함은 고등교육 영역과 직업교육훈련 영역에서 제공되는 직업대학원교육수료과정 이상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2. 호주의 대학원교육 현황

고등교육 영역에서 2007년 기준 호주의 고등교육 자격을 발급하는 기관

자에게 수여되는 자격이다.

인 대학교³³⁾는 37개의 공립³⁴⁾대학교 2개의 사립대학, 1개의 해외진출 분교 대학, 3개의 자율인증 고등교육기관, 그리고 약 150개 정도의 비자율인증 고등교육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DEEWR, 2008a).

정부의 공식통계나 대학협회(UA)에서도 대학원 숫자에 대한 공식 통계 자료는 발표되지 않고 있고, 자격을 기준으로 한 통계만이 제공되고 있다. 즉, 호주는 고등교육시장 규모를 학교 수와 자격과정을 중심으로 한 학생 수를 토대로 파악하고 있다. 2007년 기준 학생 수는 국내학생 756,747명과 외국학생 273,099명을 포함해 1,029,846명이다. 이중 학사과정 학생은 720,003명, 대학원과정 학생은 278,257명, 그리고 대학입학준비과정에 다니거나 비학위과정에 다니는 학생이 31,586명이다. 이중 약 636,000학생이 정부의 HESA 2003의 고등교육 대출 프로그램³⁵⁾에 의거, 학비감면이나 대부분을 통해서 학위과정에 다니고 있다. 국내학생 756,747명 중 636,000학생이 고등교육대출 프로그램(HELP)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DEEWR, 2008a). 석사과정도 이와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방정부의 직접 보조금이 대학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53%에서 2006년 42%로 감소한 반면, 학생들의 직접적, 간접적 부담은 1997년 29%에서 2006년 39%로 증가하고 있다. 외국학생들의 부담은 동 기간 동안 7%에서 15%로 상승하였으며, 1996년 \$10.2billion이던 대학의 재정은 2006년 \$15.5billion으로 약 51% 증가(실질가치 기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DEEWR, 2008a).

자격취득 학생 수의 변화를 보면(〈표 3-7〉 참조) 연구석사를 제외하고 각 과정별로 자격취득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연구 석·박사보다

33) 이 글에서 대학교는 고등교육 자격을 발급하는 기관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34) 공립이라 함은 정부가 설립한 대학이다. 우리처럼 엄밀히 구분하면 연방정부의 법률에 의거 설립된 호주국립대학 등 2개의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사립 제외)는 공립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호주에서는 이러한 구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35) HELP는 Higher Education Loan Program의 약자로서 우리나라에서는 Income Contingency Loan으로 알려져 있다. 학생들은 정부로부터 무이자로 학비를 융자받을 수 있고, 상환은 소득이 일정시점 이상이 되었을 때 세금처럼 자동 징수됨으로써 이뤄진다.

는 과정석사, 대학원 수료 자격 취득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다. 연령대를 기준으로 2007년 자격취득 학생 수를 보면(〈표 3-8〉 참조), 학사 학위 취득은 24세 이전에 대부분 종료되고, 과정석사는 20세부터 39세까지 그리고 기타과정은 30-39세에 가장 많이 취득하고 있다. 이는 입학연령을 기준으로 한 고등교육 학생 통계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되고 있다(〈표 3-9〉 참조).

2008년 기준 전임 교수 중, 강의 또는 강의와 연구 병행 교수가 26,643명 이고, 연구 전담(research only) 또는 기타 교수가 29,602명으로 총 56,245 명이다. 교수에 대한 규제는 없고 대학의 자율이다. '퀸즈랜드 공과대학(The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의 규정에 의하면 연구전담교수진은 크게 수석연구교수(Principal Research Fellow), 선임연구교수(Senior Research Fellow), 연구교수(Research Fellow), 연구업무교수(Research Officer), 선임연구업무교수(Senior Research Officer), 박사후연구원(Post-doctoral Fellow), 선임부연구원(Senior Research Associate), 그리고 부연구원(Research Associate)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들을 직무의 수준에 비추어 Level A에서부터 Level E(최고 수준)로 구분하고 있다.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는 교수, 부교수, 전임강사, 강사, 부강사 (professor, associate professor, senior lecturer, lecturer and associate lecturer)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도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다르다. 즉, professor가 되어야만 학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대학에 의해 채용된 정규교수가 아니라도 학기 중의 수업과 평가활동을 위해 채용되는 자리도 있다³⁶⁾. 임용 종류도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 임명 (전일제, 시간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기간제 임명 (전일제, 시간제), 시간제로 임용되거나 시간제로 지급이 되는 임시임용(Casual appointment), 기타 임용(Additional

36) (Sessional academic staff positions). Sessional lecturing, Sessional tutoring, Music accompanying, Undergraduate clinical nurse education, Sessional marking(채점과 평가), Other required academic activities 등이 그것이다.

Appointment)이 있다. 고용의 유형도 전일제와 시간제로 구분된다.

<표 3-7> 자격취득 학생 수

자격(과정의 수준)	1996년	2000년	2007년
Higher Doctorate	58(57)	16(16)	28(26)
Doctorate by Research	2,905(2,326)	3,793(3,183)	5,721(4,405)
Doctorate by Coursework	3(3)	55(44)	274(138)
Master's by Research	1,767(1,494)	1,641(1,374)	1,420(1,101)
Master's by Coursework	14,708(11,160)	25,283(14,394)	52,029(21,642)
Postgrad. Qual/Prelim.	373(303)	119(101)	26(18)
Grad.(Post) Dip. - new area	13,267(11,970)	12,698(10,819)	14,038(11,150)
Grad.(Post) Dip. - ext area	5,430(4,945)	4,111(3,553)	5,787(4,911)
Graduate Certificate	5,121(4,829)	7,853(7,088)	13,264(11,069)
Bachelor's Graduate Entry	2,324(2,249)	3,818(3,585)	3,908(3,470)
Bachelor's Honours	7,580(7,197)	8,201(7,762)	10,162(9,116)
Bachelor's Pass	87,948(77,822)	99,928(81,060)	129,970(94,257)
Associate Degree	0(0)	402(388)	1,735(1,689)
Advanced Diploma (AQF)	986(961)	888(825)	1,116(878)
Diploma (AQF)	2,034(2,008)	1,622(1,593)	7,213(1,675)
Other undergraduate award courses	724(654)	466(331)	835(385)
Total	145,228(127,978)	170,894(136,116)	247,526(165,930)

주: ()는 내국 학생 수 자료: www.deewr.gov.au

<표 3-8> 자격 취득 학생 수(연령대 기준) (2007년)

연령대	학사 이후 과정							학사 및 그 이하 과정				total
	Higher Doc.	Doc. by Re	Doc. by Cw	Mas. by Re	Mas. by Cw	Other	Sub- total	Bac.	Asso. Degree	Other	Sub- total	
19세 이하	0	0	0	0	17	28	45	7,111	62	3,556	10,729	10,774
20-24	0	115	4	141	14,611	7,799	22,670	99,239	557	4,044	103,840	126,510
25-29	0	1,724	56	396	15,823	7,617	25,616	18,048	402	646	19,096	44,712
30-39	2	1,996	65	428	13,038	9,322	24,851	11,972	378	509	12,856	37,710
40-49	9	1,099	92	254	6,233	5,914	13,601	5,656	200	265	6,121	19,722
50-59	13	602	46	141	2,044	2,159	5,005	1,712	106	108	1,926	6,931
60 이상	4	185	11	60	263	264	787	302	30	36	368	1,155
미상	0	0	0	0	0	12	12	0	0	0	0	12
total	40	5,519	292	1,584	50,424	32,034	89,893	144,102	896	4,569	149,567	239,460

자료: www.deewr.gov.au

<표 3-9> 고등교육 과정 입학 학생 수(연령대 기준)(2007년)

연령대	학사 이후 과정						학사 및 그 이하 과정				대학 예비과정	Non-award 과정	total
	Doc. by Re	Doc. by Cw	Mas. by Re	Mas. by Cw	Other	Sub-total	Bac.	Asso. Degree	기타	Sub-total			
16세 이하	0	0	0	0	3	3	656	31	235	922	143	952	2,020
17	0	1	0	4	8	13	37,271	192	1,501	38,964	856	457	40,290
18	0	0	0	11	26	37	57,604	339	3,389	61,332	893	743	63,005
19	1	2	0	186	55	244	30,130	291	2,557	32,978	634	2,312	36,168
소계	1	3	0	201	92	297	125,661	853	7,682	134,196	2,526	4,464	141,483
20	13	0	6	1,248	667	1,934	20,478	239	1,766	22,483	528	3,843	28,788
21	339	6	87	4,054	1,908	6,394	16,213	202	1,015	17,430	421	2,379	26,624
22	641	18	182	6,885	2,874	10,600	12,202	160	732	13,094	325	1,341	25,360
23	600	14	184	7,877	3,459	12,134	8,728	146	534	9,408	296	1,122	22,960
24	536	22	191	6,642	3,110	10,501	6,637	117	435	7,189	272	915	18,877
소계	2,129	60	650	26,706	12,018	41,563	64,258	864	4,482	69,604	1,842	9,600	122,609
25	506	9	181	4,992	2,669	8,357	5,039	108	287	5,454	210	665	14,686
26	504	26	147	4,036	2,343	7,056	4,085	89	188	4,362	213	533	12,164
27	400	18	144	3,440	1,944	5,946	3,301	80	137	3,518	153	410	10,027
28	373	10	118	2,884	1,850	5,235	2,805	89	132	3,026	181	349	8,791
29	322	16	91	2,428	1,673	4,530	2,545	71	107	2,723	160	276	7,689
소계	2,105	79	681	17,780	10,479	31,124	17,795	437	851	19,083	917	2,233	53,357
30-39	2,447	128	738	15,244	12,837	31,394	16,544	520	746	17,810	1,439	2,116	52,759
40-49	1,467	115	466	6,903	8,173	17,124	7,458	254	472	8,184	803	1,129	27,240
50-59	674	48	250	2,258	3,090	6,320	2,127	131	230	2,488	238	419	9,465
60 이상	170	10	69	262	378	889	332	34	58	424	31	77	1,421
소계	4,758	301	1,523	24,667	24,478	55,727	26,461	939	1,506	28,906	2,511	3,741	90,885
계	8,993	443	2,854	69,354	47,067	128,711	234,175	3,093	14,521	251,789	7,796	20,038	408,334
계 2006	8,407	482	2,895	65,251	44,610	121,645	225,587	2,927	5,191	233,705	6,570	19,779	381,699
증감 (%)	7.0	-8.1	-1.4	6.3	5.5	5.8	3.8	5.7	179.9	7.7	18.7	1.3	7.0

자료: www.deewr.gov.au

등록직업훈련기관(RTO)도 평가를 통해 승인을 받으면 고등교육 영역의 자격을 발급할 수 있다. 2009년 3월 12일 기준으로 호주직업교육훈련정보시스템(NTIS: National Training Information System)에 등록된 정보의 경우 호주직업교육훈련연구소(NCVER)가 공개한 원 자료에 의하면, RTO는 약 8,880여개 정도이고, 이 RTO에서 약 350여 개 정도의 대학원 수료와 졸업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15개의 훈련패키지에서 직업 대학원 수료 자격과정(Vocational Graduate Certificate, Diploma)을 개발한 것으로 추산된다. 직업 대학원 수료자격은 최근에 도입된 바, 아직 공식 통계는 발표되어 있지 않다.

3. 호주 대학원교육의 특징

위에서 본 것처럼 호주도 우리처럼 성인들의 학사 이후의 과정(대학원)을 이수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호주의 대학원교육에서 성인들의 참여가 증가하는 이유를 교육훈련제도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성인근로자들의 직업경험을 인정하는 대학원 교육 운영

우리와 달리 직업 대학원 수료과정 (Vocational Graduate Certificate Diploma)이라는 자격이 AQF 상에 공식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성인들이 전일제 과정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관련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전에 이수한 학습을 정규교육에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성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성인들의 경우 굳이 장기간이 소요되고 비용 측면에서도 부담이 되는 과정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과정 석·박사와 연구 석·박사가 구분되어 있고, 과정에의 입학

과 졸업, 그리고 자격의 활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부 연구나 학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과정 석·박사를 활용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구 석·박사 과정이 아니면 반드시 학사학위 취득을 입학의 전제로 하지 않는다. 입학기준 등은 대학마다 다르지만 직업경험이나 다른 자료들을 평가받아 포트폴리오 평가를 통해 대학원 과정에 입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RMIT대학의 공학, 시설운영, 정보통신 전공의 석사과정³⁷⁾의 경우,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3년의 근무경험을 갖고 있거나, 또는 상위 졸업장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최소 10년의 근무경험과 현재 회사에서 상위직급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게 입학자격이 주어진다. 즉, 이처럼 호주의 경우엔 공식학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직무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음이 입증되면 일단 입학이 허가될 수 있다.

특히, 직업교육훈련 영역에서 직업경험을 인정하는 것은 무척 당연시된다. 예를 들면, 퀸즈랜드 주 TAFE 중의 하나인 Southbank Institute of Technology의 경우 몇 개의 직업 대학원 수료과정을 개설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10학년³⁸⁾ 또는 12학년 졸업자격, 5년간의 산업체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직업대학원 수료 자격을 취득한 후 과정석사과정으로의 진학도 가능하다. 그리고 과정석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학원 수료 과정도 연계되어 강좌가 개설되고 있기 때문에(〈표 3-9〉참조), 학사학위가 없는 자도 직업경험을 인정받아 대학원 수료과정으로 입학하고, 그 이후 자연스럽게 과정석사까지 공부할 수 있는 학업경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는 이를 학벌세탁이라는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지만, 호주에서는 오히려 이를 장려하고 있으며, 이렇게 해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교육의 질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과정에 따라서는 선행

37) Master of Project Management, Specializations in Engineering, Facilities Management, Information Technology

38) 퀸즈랜드 주의 경우 10학년까지가 의무교육이다. 따라서 의무교육만 이수해도 이후 직업경험을 인정받아 직업대학원수료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것이다.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함으로써 자격 취득 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

나. 대학원 직업교육의 다양성과 유연성

호주 대학원에서 제공하는 과정은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선 기업이 나 기업연수원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대학의 정규과정의 하나로 제공되고 있다. 이는 대학의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려는 노력 때문에 가능하며, 우리와 달리 기업교육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즉, 가능하면 모든 교육 훈련 수요를 정규교육훈련 과정으로 흡수하고 있으며, 일부 극소수의 대학을 제외하곤 고등교육기관이 전문직업교육기관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우리는 민간자격으로 인정되는 자격들이 이곳에서는 정상적인 대학의 자격으로 제공되고 있다. 즉,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업무역량을 대학원 교육으로 이수하고, 해당 전문직업의 노동시장 규제기준을 충족함으로써 관련 협회에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 특수대학원 중 가장 수요가 많은 편인 교육대학원과 유사한 교육학 분야의 대학원 과정을 예로 들어보면 다수의 세부전공이 존재하고(〈표 3-15〉 참조), 세부전공별로 각각 다른 모집요강에 의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또한, full-time 뿐만 아니라 part-time으로도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석사과정의 경우 최대 3년 정도면 과정 석사를 취득할 수 있다. 입학도 우리 처럼 주로 1학기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과정에 따라서 1학기, 2학기(3학기제를 하는 대학은 과정에 따라선 3학기에도 입학 가능) 모두 입학이 가능하다. 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 수(credit point)도 과정마다 다양하다. 또한, 수업전달도 반드시 수업에 참여함으로써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원격교육, 인터넷 수업, 외부수업, 인쇄물 수업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표 3-10〉, 〈표 3-11〉, 〈표 3-14〉 참조).

<표 3-10> Full-Time과 Part-Time의 과정 이수 기간(예)

자격	Full-Time	Part-Time
석사	1.5년	3년
Graduate Diploma	1년	2년
Graduate Certificate	0.5년	1년

<표 3-11> 개설 자격과정에 따른 입학자격 등의 차이

개설 자격과정	입학학기/수업연한/ 취득학점	입학자격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 Master with Honours - Master - GD - GC	140CP ■ Sem 1 or 2 ■ 1,5(+0,5)(3,5), ■ 1,5(2,5), 100CP ■ 1(2), 80CP ■ 0,5(1) 40CP	■ 학사 또는 그리피스 대학에서의 GD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또는 그리피스 대학에 의해 인정된 자격 ■ GD: 학사 또는 그리피스 대학에서의 GC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또는 그리피스 대학에 의해 인정된 자격 ■ GC: 학사 또는 그리피스 대학에 의해 인정된 자격
Commerce - Master(Advanced) - Master - GC	■ Sem 1 or 2 ■ 2(4), 160CP ■ 1,5(3), 120CP ■ 0,5(1), 40CP ■ 선행학습의 학점화 ■ 학점화(credit for prior study)를 통해 상급석사와 석사과정의 경우 각각 최대 2학기(80Cp), 1학기(40CP)까지 기간 단축 가능	■ ASIC(the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에 의해 인정된 courses를 성공적으로 이수한 졸업생은 PS 146 compliance requirements를 충족 ■ 세부전공으로 Financial Planning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졸업생은 PS146 compliance requirements를 충족시키고 그리고 the Financial Planning Association of Australia Limited의 멤버가 될 자격 확보 ■ 세부전공으로 Professional Accounting을 이수하면 CPA Australia and the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in Australia(ICAA)의 멤버 자격 확보 ■ 상급석사: Commerce과정석사에서 80CP를 이수하는 동안 평균 7.0만점 4.5이상을 받은 자 ■ 석사: 학사(대학교에서 7.0 기준 4.0이상) ■ GC: 석사와 유사
Master of Adult and Vocational Education	■ Internal study on-campus and external study off-campus via printed materials and the Learning@Griffith website ■ 1(2)/ 80CP	■ 학사 학위 ■ relevant work experience ■ ICT 사용 능력

자료: Griffith University(2009)

다. 대학원의 자율성 보장

호주 대학원과 한국 대학원의 가장 큰 차이는 역시 대학의 자율성 정도일 것이다. 호주의 경우 자율 인증을 할 수 있는 기관(대부분 University)은 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학사조직을 정비하고, 관련 교수를 채용하는 등에 있어서 거의 완전한 자율을 보장받고 있다. 그에 따라 대학의 비전과 사명 그리고 전략에 따라 대학의 자원을 동원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학에 자율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과정이 제공될 수 있으며 특성화 될 수 있는 것이다.

라. 교육의 질 관리

이처럼 자율적이고 다양하며 유연함에도 불구하고 호주 대학원 교육이 정상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이유는 고등교육 대한 철저한 질 관리 때문이다. 대학원은 교육의 질에 대하여 매년 자체 점검을 해야 하고, 새로운 과정을 개설할 때는 그에 적합한 조사와 타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대학을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주기적으로 AUQA에 의해 질 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대학의 정보가 최대한 정부에 전달되어야 하고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승인에 대한 국가 규약(National Protocols for Higher Education Approvals Processes)'에서 요구하는 각종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마. 정부의 학습자 재정지원

호주 연방정부가 연구 과정을 제외하고 대학원 교육에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은 없다. 다만, 43개의 적절한 고등교육공급자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학생 정원(정부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관리, 실제 선발인원과 일치하지 않음)만

크 정부 보조금(CGS: Commonwealth Grant Scheme)을 받아 학교 운영비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정부 보조금은 연구과정 학생을 제외한 대학원 학생도 정부가 지원하는 정원에 해당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학교에 합격한 자는 수업료가 아닌 대학이 결정한 학생 부담금만을 내면 되고, HECS-HELP를 통해 무상용자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은 대학을 응시해 합격한 사람은 수업료 전액을 내야하며, FEE-HELP의 지원대상이 된다.

<표 3-12> 고등교육 승인에 관한 국가 규약 중 규약 A의 내용(일부 요약)

“고등교육 승인에 관한 국가 규약” 중 규약 A: 모든 고등교육기관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법령에 의해 설립된(또는 인정된) 법적 실체(즉, 법인)이어야 한다. ○ 호주의 고등교육 목표에 공헌해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과 이해의 제고 √ 개인의 성장과 성취를 달성하고, 노동시장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며, 그리고 사회에 건설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학습 √ 질 높은 교육을 통해 노동시장의 수요를 충족 √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사회·문화적 그리고 국제적 지식, 숙련과 태도를 습득 √ 민주적·평등적 그리고 문명화된 사회에 기여 √ 국가경제발전의 기여 (높은 수준의 skills, knowledge and research를 통해, 경제계, 산업계 그리고 정부와의 협력연구를 포함) √ 이러한 목표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평한 접근기회를 보장(equitable access) · 지역사회와 물질적, 인간적, 사회적 그리고/또는 환경적 Wellbeing에 관여 ○ 명확하게 잘 정리 연계된 고등교육 목적을 갖고 있어야 ○ 상급지식과 탐구와 결부된 가르침과 학습을 제공해야 ○ 그 기관의 목표와 학문적 목적(academic purposes)에 적합하게 지배구조 결정(governance arrangements), 질 보장 과정(quality assurance processes),

<p>그리고 역량 있는 직원들을 보유해야</p> <p>○ 재정적 그리고 경영적 관리 활동을 충분히 해야 하고, 미래에도 기관의 프로그램을 학습자에게 제공할 정도로 충분한 재정적 그리고 기타 자원을 갖고 있어야</p> <p>○ 관련 자격들은 AQF 고등교육 명칭(titles)과 서술(descriptors)에 부합해야</p> <p>○ academic staff은 그들의 가르침을 위해 연찬활동에 능동적이어야 하고, 연구과정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연구에 능동적으로 관여해야</p> <p>○ 학생들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지원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야</p> <p>○ 과정의 일부 또는 법인의 폐쇄라는 사건이 발생할 때 학생들의 보호를 제공해야</p>

<표 3-13> RMIT 대학의 대학원 과정(Coursework 과정)

분야	과정	개설 자격
Architecture, Building and Plan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ject Management ● Property ● Valuations 	MA/ GD/ GC MA/ GD/ GC MA/ GD
Art and Desig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t in Public Space ● Arts Management ● Creative Media ● Fashion and Textiles ● Graphic Communication ● Graphic Design 	MA/ GD/ GC MA/ GD/ GC MA/ GD/ GC MA/ GD/ GC MA/ GD/ GC MA/ GD
Busi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siness Administration MBA(Executive) ● Business Services Science ● Business Administration MBA ● Business Information Technology ● Commerce ● Finance ● Innovation and Service Management ● Logistics Management ● Information Management ● Marketing ● Organisation Dynamics ● Statistics (Business) ● Professional Accounting 	MA/ GD/ GC MA/ GD/ GC MA/ GD/ GC MA/ GD/ GC MA/ GD/ GC MA/ GD MA/ GD/ GC MA/ GD/ GC MA/ GD/ GC GD/ GC MA/ GD/ GC MA/ GD/ GC MA/ GD/ GC MA/ GD MA/ GD/ GC

<표 계속>

분야	과정	개설 자격
Community Services and Social Scien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iminal Justice Administration ● International Development ● Applied Human Rights ● Disability Studies ● Policy and Human Services ●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tudies 	MA/ GD/ GC MA/ GD/ GC GD/ GC MA/ GD MA/ GD/ GC MA/ GD/ GC
Comput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puting ● Computer Engineering ● Computer Science Research ● Enterprise Architecture ● Information Security and Assurance ● Information Technology ● Network Engineering ● Internet and Web Computing ● Software Engineering 	MA/ GD/ GC MA/ GD/ GC MA/ GC MA/ GD MA/ GD/ GC MA/ GD/ GC MA/ GD/ GC MA/ GD/ GC GC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arly childhood Teaching ● Education (Early Childhood) ● Career Education and Development ● Education (Primary) ● Education (Secondary) ● Educational Leadership and Management ● Industrial Education and Training ● Tertiary Teaching and Learning 	GD GD GD/ GC GD GD GD/ GC GD/ GC GC
Engineer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viation Industry Management ● Aviation Supply Chain Management ● Aircraft Maintenance Management ● Aviation Safety and Risk Management ● Electronic Engineering ● Engineering Management ● International Automotive Engineering ● Microelectronic Engineering ● Integrated Logistics Management ● Manufacturing ● Quality Management ● Systems Engineering ● Telecommunication Engineering ● Sustainable Energy 	GD/ GC GC GC MA/ GC MA/ GD/ GC MA/ GD/ GC MA/ GD/ GC MA/ GD/ GC MA/ GD/ GC MA/ GD MA/ GD/ GC MA/ GD/ GC MA/ GD/ GC MA/ GD/ GC
Environ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ernational Urban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 Environment and Planning ● Sustainable Practice 	MA/ GD/ GC MA/ GD/ GC MA/ GD/ GC

〈표 계속〉

분야	과정	개설 자격
Health and Medical Scien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havioural Science ● Acupuncture ● Laboratory Medicine ● Midwifery ● Nursing ● Medical Science ● Nutrition Medicine ● Psychology ● Sonography ● Wellness 	GD MA/ GD GD MA/ GD/ GC 아래 참조 MA/ GD MA/ GD/ GC GD MA/ GD MA/ GD/ GC
Media and Communic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iting and Publishing ● Advertising ● Journalism ● Public Relations 	GD MA/ GD/ GC MA/ GD GD
Sci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omolecular Technologies ● Biotechnology and Business ● Bioinformatics ● Biotechnology ● Biotechnology Industry ● Food Science and Technology ● Laboratory Health, Safet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 Research Commercialisation ● Statistics and Operations Research ● Geospatial Information 	GD/ GC MA/ GD/ GC GD/ GC MA/ GC/ GC GC MA/ GD/ GC MA/ GD MA/ GD/ GC GC MA/ GD MA/ GD
Nurs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ster of Nursing ● GD in Nursing/ GD in Child and Family Health Nursing/ GD in Mental Health Nursing ● GC in Management for Health Care Professionals/ GC in Critical Care Nursing/ ● GC in Emergency Nursing/ GC in Gerontology/ GC in Neuroscience Nursing 	

<표 3-14> Griffith University의 Business and Commerce 대학원 과정

분야	개설 자격과정	졸업학점/ 수업기간
Accounting / Banking and Finance/ Financial Plan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ster of Commerce (Advanced) ● Master of Commerce ● G. Cert in Commerce ● G. Cert in Financial Plan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0CP(credit transfer 80CP까지 가능)/ 2(4)년 ● 120CP(credit transfer 40CP까지 가능)/ 1,5(3)년 ● 40CP/ 0,5(1)년 ● 40CP/ 0,5(1)년
Asian Studies/ Internation- al Business/ Internation- al Rel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ster of Asian Studies ● G. Cert in Asian Studies ● Master of International Business with Honours ● Master of International Business ● G. Cert in International Business ● Master of International Relations ● G. Cert in International Rel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CP/ 1(2) ● 40CP/ 0,5(1) ● 160CP/ 2 ● 120CP/ 1,5 ● 40CP/ 0,5 ● 80CP/ 1(2) ● 40CP/ 0,5(1)
Business Administ- 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Advanced) ●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incorporating Honours) ● G. Cert in Business Administration ● International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Advanced) ● International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incorporating Honours) ● G. Cert in International Business Administ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0CP/ 2(4) ● 120CP/ 1,5(3) ● 40CP/ 0,5(1) ● 160CP/ 2(4) ● 120CP 또는 160CP(직업경험 없는 자)/ 1,5(3) ● 40CP/ 0,5(1)
Employe- ment Relations/ Human Resource Managem- ent/ Industrial Rel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ster of Employment Relations with Honours ● Master of Employment Relations ● G. Cert in Employment Relations ● Master of HRM with Honours ● Master of HRM ● G. Cert in HRM ● G. Cert in Industrial Rel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0CP/ 1,5(3) ● 80CP/ 1(2) ● 40CP/ 0,5(1) ● 120CP/ 1,5(3) ● 80CP/ 1(2) ● 40CP/ 0,5(1) ● 40CP/ (1)
Information Syste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ster of Information Systems (Advanced) ● Master of Information Systems with Honours ● Master of Information Systems ● G. Cert in Information Syste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0CP/ 2(4) ● 120CP/ 1,5(3) ● 80CP/ 1(2) ● 40CP/ 0,5(1)

〈표 계속〉

분야	개설 자격과정	졸업학점/ 수업기간
Logistics and Supply Chain Man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 Cert in Logistics and Supply Chain Man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CP/ (1)
Marke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 Cert in e-Marketing ● G. Cert in Franchising ● Master of Marketing with Honours ● Master of Marketing ● G. Cert in Marke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CP/ (1) ● 40CP/ (1) ● 120CP/ 1,5(3) ● 80CP/ 1(2) ● 40CP/ (1)
Public Administ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ster of Arts in Public Sector Leadership ● G. Cert in Public Sector Leadership Administration ● Executive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CP/ 1(2) ● 40CP/ (0,5) ● 100CP/ (2) ● 80CP/ 1(2)
International Tourism and Hospitality Management/ Sport Management/ Event Man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ster of Business with Honours (Event Management) ● Master of Business (Event Management) ● G. Cert in Event Management ● Master of Business with Honours (International Tourism and Hospitality Management) ● Master of Business (International Tourism and Hospitality Management) ● G. Cert in International Tourism and Hospitality Management ● Master of Business (Sport Management) ● Master of Business with Honours (Sport Management) ● Graduate Certificate in Sport Man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ster Honours: 120CP/ 1,5(3) ● Master: 80CP/ 1(2) ● G. Cert: 40CP/ 0.5(1)
Preparatory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aduate Certificate in Busi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CP/ 0.5(1)

<표 3-15> Griffith University의 교육학 분야 대학원 과정

분야	개설 과정
Adult and Vocational Education	● Master of Audit and Vocational Education
Applied Linguistics	● Master of Arts with Honours in Applied Linguistics ● Master of Arts in Applied Linguistics ● Graduate Certificate in Applied Linguistics
Behavior Management	● Graduate Certificate in Education Studies (Behaviour Management)
Drama Education	● Master of Drama Education with Honours ● Master of Drama Education ● Graduate Certificate in Drama Educ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 Graduate Certificat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 Doctor of Education ● Master of Education
Education (Leadership)	● Master of Education (Leadership)
Education (Middle Years)	● Graduate Diploma of Education - Middle Years
Education (Primary)	● Graduate Diploma of Education (Primary)
Education (Secondary)	● Graduate Diploma of Education (Secondary)
Education Studies	● Graduate Certificate in Education Studies
Educational Leadership	● Graduate Certificate in Educational Leadership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Education	● Graduate Certificate in Education Studies
Learning and Teaching	● Graduate Certificate in Education Studies (Learning and Teaching)
Music Education	● Graduate Certificate in Education Studies (Music Education)
Professional Partnerships	● Graduate Certificate in Education Studies (Professional Partnerships)
Special Education	● Master of Special Education ● Graduate Certificate in Special Education
Special Needs Education	● Graduate Certificate in Education Studies (Special Needs Education)
Teaching of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TESOL)	● Graduate Certificate in Teaching of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TESOL)
Training and Development	● Master of Training and Development ● Graduate Certificate in Training and Development
Visual Arts Education	● Graduate Certificate in Education Studies (Visual Arts Education)

<표 3-16> Griffith University 대학원 교육학과정의 특징

프로그램	학사 ^ 전공공부점 V	학사 ^ 특정전공 V	우등학사	승인된전문자격	정공서 특전에 의학이 사후 자	승인된 입학 경력	석사취득후 입학	추가 입학 조건	플 타 입 /트 타 기	입 학 학 기	총 취 득 학 점 ^ CP V	해 외 수 강 가 능	영 어 능 력	연구 박 사 연 계 과 정	연구 개 요 필 요
Mt Gravatt Campus															
Master of Adult and Vocational Education	*					*		*	1/2	1/2	80	*	*		
Master of Arts with Honours in Applied Linguistics					*				1.5/3	1/2	120	*	*	*	
Master of Arts in Applied Linguistics		*				*			1/2	1/2	80	*	*	*	
GC in Applied Linguistics		*				*			1PT	1/2	40	*	*		
Master of Drama Education with Honours					*			*	3PT	1	120			*	
Master of Drama Education	*					*		*	2PT	1	80				
GC in Drama Education	*					*		*	1PT	1	40				
Master of Education	*								1/2	1/2	80	*	*		
Master of Education(Leadership)	*								1/2	1	80	*	*		
GD of Education - Middle Years		*							1/2	1	80	*	*		
GD of Education - Primary		*							1/2	1	80	*	*		
GD of Education - Secondary		*							1/2	1	80	*	*		
GC in Education Studies	*								0.5/1	1/2	40	*	*		
GC in Education Studies (ICTEdu.)	*								1PT	1	40	*	*		
GC in Education Studies (Learning and Teaching)	*								1PT	1/2	40	*	*		
GC in Education Studies (Music Education)	*							*	0.5/1	3	40	*	*		
GC in Education Studies (Visual and Creative Arts)	*								1PT	1	40	*	*		
GC in Educational Leadership	*								1PT	1	40	*	*		
Master of Special Education	*					*			1PT/ <5PT	1/2	80	*	*	*	
GD in Special Education	*					*			1PT	1/2	40	*	*		
Master of Training and Development	*								1/2	1/2	80	*	*		

(표 계속)

프로그램	학사^ 전공불분명^V	학사^ 특정전공^V	우등학사	승인된전문자격	정공서 특정예의 학이 자	승인된 일정 경력	석사 취득 후 입학	추가 입학 조건	플 타 입/ 파 타 기 간	입 학 학 기	총 취 득 학 점 ^ CP ^ V	해 외 수 강 가 능	영 어 능 력	연 구 박 사 연 계 과 정	연 구 개 요 필 요
GC in Training and Development	*								0,5 PT	1/2	40	*	*		
Gold Coast Campus															
Master of Edu.	*								1/2	1/2/3	80	*	*		
Master of Edu.(Leadership)	*								1/2	1	80	*	*		
GD of Edu, - Middle Years		*							1/2	1	80	*	*		
GD of Edu, - Primary		*							1/2	1	80	*	*		
GD of Edu, - Secondary		*							1/2	1	80	*	*		
GC in Edu, Studies	*								0.5/1	1/2/3	40	*	*		
GC in Edu, Studies (Behavior Management)	*								1PT	1/2/3	40	*	*		
GC in Edu, Studies (ICT Edu.)	*								1PT	1	40	*	*		
GC in Edu, Studies (Professional Partnerships)	*								1PT	1/2	40	*	*		
GC in Edu, Studies (Special Needs Education)	*								1PT	1/2/3	40	*	*		
GC in Educational Leadership	*								1PT	1	40	*	*		
GC in TESOL	*								1PT	1/2/3	40	*	*		
Logan Campus															
GC in Early Childhood		*						*	1PT	1	40				

<표 3-17> 연방정부 재정지원 학생 정원과 지원 금액(2007)

구분	배정된 places의 수(EFTSL)			당초 지원금액 CGS (\$m)	실제 places의 수 (EFTSL)	지원금액의 조정 (\$)
	학사 과정	대학원 (비연구 과정)	합계			
Avondale College	445	23	468	4.1	461	-67,617
Charles Sturt Univ.	10,630	522	11,152	95.4	11,871	2,384,593
Macquarie Univ.	10,134	492	10,625	68.3	10,643	-406,012
Southern Cross Univ.	5,558	119	5,677	44.5	5,787	685,013
The Univ. of New England	6,788	803	7,591	57.7	7,291	-1,296,333
The Univ. of New South Wales	15,537	779	16,318	136.2	17,431	3,404,982
Univ. of Newcastle	13,249	194	13,443	117.3	13,907	2,932,029
The Univ. of Sydney	21,374	427	21,801	190.5	22,021	2,258,978
Univ. of Technology Sydney	12,678	508	13,187	99.9	13,605	2,496,922
Univ. of Western Sydney	19,047	265	19,312	142.7	19,732	0
Univ. of Wollongong	8,591	311	8,902	72.3	9,246	856,127
Deakin Univ.	13,778	442	14,220	109.2	14,841	2,729,288
La Trobe Univ.	14,071	823	14,895	116.3	15,186	0
Monash Univ.	20,289	1,442	21,731	178.2	22,444	4,379,540
Royal Melbourne Institute of Technology	13,158	445	13,603	120.4	13,901	2,693,747
Swinburne Univ. of Technology	5,610	19	5,629	45.1	6,220	1,127,362
Univ. of Ballart	3,401	100	3,501	29.8	3,414	0
The Univ. of Melbourne	17,389	1,280	18,669	167.6	18,863	0
Victoria Univ.	9,224	790	10,014	72.8	10,225	526,401

<표 계속>

구분	배정된 places의 수(EFTSL)			당초 지원금액 CGS (\$m)	실제 places의 수 (EFTSL)	지원금액의 조정 (\$)
	학사 과정	대학원 (비연구 과정)	합계			
Central Queensland Univ.	6,624	142	6,766	54.7	5,893	-3,944,087
Christian Heritage College	100	0	100	0.7	100	0
Griffith Univ.	17,508	403	17,911	141.8	18,015	-51,738
James Cook Univ.	7,979	235	8,214	77.1	7,771	-1,189,178
Queensland Univ. of Technology	19,581	953	20,534	154.2	21,405	3,855,384
The Univ. of Queensland	20,087	224	20,311	182.1	19,647	-2,178,974
Univ. of Southern Queensland	7,402	418	7,820	63.5	7,560	-106,214
Univ. of the Sunshine Coast	3,254	210	3,464	31.1	3,230	-380,835
Curtin Univ. of Technology	13,168	163	13,331	118.9	13,695	0
Edith Cowan Univ.	10,104	764	10,868	86.9	10,292	-1,999,507
Murdoch Univ.	7,153	200	7,353	60.0	7,130	-1,093,055
The Univ. of Notre Dame Australia	1,294	6	1,300	12.8	1,300	-98,437
The Univ. of Western Australia	10,151	270	10,421	90.6	10,474	747,990
Tabor College - Adelaide	100	0	100	0.8	98	-35,738
The Flinders Univ. of South Australia	7,795	295	8,090	67.6	8,256	1,058,312
The Univ. of Adelaide	9,245	247	9,492	84.8	9,732	2,119,876

〈표 계속〉

구분	배정된 places의 수(EFTSL)			당초 지원금액 CGS (\$m)	실제 places의 수 (EFTSL)	지원금액의 조정 (\$)
	학사 과정	대학원 (비연구 과정)	합계			
Univ. of South Australia	13,746	680	14,426	115.4	14,507	632,602
Australian Maritime College	434	0	434	4.8	427	0
Univ. of Tasmania	9,626	370	9,996	92.8	9,606	-1,571,942
Batchelor Institute of Indigenous Tertiary Education	484	14	498	5.3	455	-322,531
Charles Darwin Univ.	2,675	262	2,937	28.6	2,986	86,190
The Australian National Univ.	6,263	115	6,378	50.4	6,350	0
Univ. of Canberra	5,104	290	5,394	39.7	5,275	-196,149
Australian Catholic Univ.	6,828	587	7,415	59.7	7,442	-23,154
Total	407,656	16,632	424,288	3,492.6	428,735	20,013,700

자료: www.deewr.gov.au

제3절 외국 대학원 교육의 시사점

이상으로 미국의 대학원교육의 현황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았다. 미국은 대학에는 특수대학원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사회와 유사하게 성인들의 대학원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공통적 현상이다. 미국 대학원 교육제도를 탐색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대학원 교육에 대한 질관리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미국의 대학원 교육은 질관리 체제와 인증체제를 도입하여 교육의 질 보장이 중요한 관심사이다. 발급되는 석사학위의 수준에 적합한 인적, 물적 자원과 관리, 행정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학사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둘째, 대학원 교육 발전을 위한 정부와 대학원 각각의 역할 정립이 요구된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이 크지 않으며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기능과 방향제시 기능 정도를 수행한다. 주정부를 중심으로 하여 연방정부의 지원기능과 평가기능 등이 균형을 맞추어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방향조정 기능과 지원정책은 대학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교육수요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있다.

셋째, 성인학습자들이 대학원 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가정생활을 하는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하여 시간제 학생제도, 원격교육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넷째, 대학원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 교육수요자가 다양한 것처럼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도 매우 다양하고 전문성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학생들은 필요와 선호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의 대학원처럼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라 수강 시간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의 필요에 의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우리처럼 직장인이나 성인을 위한 특수대학원을 통하여 성인의

계속교육(학사이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즉, 성인만을 위한 별도의 기관이나 대학원의 유형은 상상하기 어렵다. 설혹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에 필요한 질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미국 대학원 교육의 핵심은 대학원 교육의 수준과 질로써 대학원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느냐에 있다. 이에 걸 맞는 교육을 할 자신이 없다면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러한 점은 반드시 학위과정에만 해당되거나 전통적인 대학교육 방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비학위과정과 원격교육과정도 동일하게 질 관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질 관리는 대학 자율적으로도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대학 공동체 내에서의 인증기관의 노력에 의해서도 강화되고 있다. 그에 따라 만약 질 관리만 잘 된다면, 성인의 학부 수준 이상의 계속 교육, 평생교육 노력에 대해 공적으로 통용되는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학점으로까지 전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굳이 학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필요한 과목 중심으로 대학원 수준의 교육을 받는 경우도 많이 존재한다.

미국 대학제도 중에서 우리와 가장 큰 차이가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인증과 질 관리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대학교육의 질의 차이를 가져오는 제도적 요인 중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고, 우리나라와 달리 특수대학원이라는 제도를 상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로 추정된다. 즉, 미국 대학에서 중요한 것은 학위의 숫자가 아니라, 발급되는 학위의 수준이 무엇이나이고, 그 기관(또는 과정)이 그 수준에 맞게 인적, 물적 자원과 관리, 행정지원체제를 갖추고 있느냐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사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의 계속교육도 이러한 양적, 질적 수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되기에 별도의 제도를 만들어 성인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방식인 것이다.

미국은 정부(연방이건 주 정부이건)의 책임이 크지 않고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의 인증(Accreditation)이 갖는 중요성이 더 크며,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서 개별 기관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어 대학 스스로의 질 관리 노력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는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학원교육제

도를 우리에게 접목하기 위해서는 대학 스스로 질 관리 노력을 할 수 있고, 대학 공동체 자체적으로 질 관리 노력을 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자율적인 역량 강화 노력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미국제도의 도입은 그간 미국에서 도입한 많은 제도가 궁극적으로 원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던 과거와 같은 문제를 동일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의 특수대학원이 사실상 야간에 이뤄지고 성인학습자의 대부분이 직장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식적으로 part-time 이수를 인정하되, full-time에 비해 이수하는 시간을 더 길게 만드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선대책을 어떻게 수립하든 간에 대학 스스로 질 관리를 하고 정부가 대학의 질 보증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기대했던 효과를 구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학원 교육은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특히 특수대학원은 대학의 경영 목적을 위한 도구, 학습자의 학벌관리를 위한 도구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규제를 개편하여 지금의 positive 방식 즉, 법령에 규정된 것을 중심으로 대학에 권한이나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에서 negative 방식 즉, 법령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대학의 자율사항으로 개편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신 정부의 규제는 미국처럼 질 관리를 중심으로 재편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의 활동을 유도해나가는 방향으로 개입방식을 발전시켜 가야 할 것이다.

호주도 한국이나 미국처럼 성인들의 대학원 교육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의 특수대학원과 같은 제도가 존재하지 않지만 호주 교육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격체계를 기초로 해서 호주의 대학원교육을 분석하였다.

호주의 대학원 교육이 갖는 특징은 크게 성인과 재직자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내용 제공, 자격 연계, 입학 접근성, 직무능력과 연계된 교육훈련 제공, 직업경험에 대한 인정, 대학경영의 자율성, 대학과정의 다양성과 유연성, 대학원 교육 전반에 걸친 질 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대학원 수료(Graduate Certificate, Diploma) 같은 자격 등이 존재함으로써, 최소 6개월이면 학사 이후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1년 이상 기

간 동안의 과정 설계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회의 수요에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는 과정들을 개설할 수 있는 장점도 존재하고 있다.

일부 과정의 경우엔 직업경험이나 선행학습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식자격이 없더라도 입학할 수 있으며, 과정이수 기간을 최대 절반으로 줄일 수도 있다. 그에 따라 공식자격이 없는 자도 직업경험을 인정받아 직업대학원수료(Vocational Graduate Certificate) 과정에 입학하고 그 이후 과정 박사까지 학습경로를 이어갈 수 있는 유연함이 존재한다. 과정 석·박사와 연구 석·박사의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학문적 활동과 지식창출 활동에 종사해야 하는 연구 석·박사 과정보다는 과정 석·박사를 통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호주의 대학원 교육은 특수대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성인과 재직자를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법령상의 규정이 없어도 실질적 성인 직업인들의 직무능력과 기술과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제도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볼때, 한국의 특수대학원이 사실상 야간에 이뤄지고 대부분 part-time으로 다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식적으로 part-time 이수를 인정하고 대신 full-time에 비해 이수하는 시간을 좀 더 길게 만드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자격(formal qualification)이 없어도 수학능력이 인정되고 풍부한 직업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입학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호주처럼 Graduate Certificate 자격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Graduate Certificate(Diploma) 자격이 도입되면, 굳이 석사과정을 만들 필요가 없고 노동시장 수요에 맞는 다양한 과정이 개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개선사항도 대학 스스로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정부가 대학의 질 보증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기대했던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지금처럼 대학원 교육은 형식화될 수밖에 없고 대학의 경영 목적을 위한 도구, 학습자의 학벌관리를 위한 도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제 4 장 특수대학원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정지선 · 이남철 · 이기성

제1절 특수대학원의 일반적 현황

대학의 새로운 기준인 성인학습의 관점에서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계속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특수대학원의 양적팽창은 보다 많은 교육기회의 제공으로 대학원 교육의 대중화를 선도하였다(서정현 외, 2006, p.186; 이시경, 2006, p.238). 특수대학원은 일반적으로 전문대학원이란 명칭으로 호칭되기도 했었는데, 전문대학원을 특수 전문직업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원으로 규정하게 됨으로써 특수대학원과 구분 명확해 졌다. 그러나 대학원들이 법령상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기능이 혼재되어 최근에는 대학원 유형별 특성화가 미흡해지고 있기 때문에 각 대학원의 특성화를 위해서 특수대학원은 직업인 또는 일반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의 제공이라는 주된 목적을 완수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1. 계열별, 지역별 현황

한국의 대학원제도는 1990년까지는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두 형태로 구성되었는데 이 시기에는 주로 경영학, 교육학 등 응용학문 위주의 특수대학원이 급격히 팽창되었다. 1998년에는 대학원 규정이 고등교육법시행령에 통합되면서 전문대학원이 신설되고 고등교육법의 목적에 따라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대학원 규정이 만들어졌다. 교육대학교나 산업대학교에서도 특수대학원 설치가 가능해졌고, 대학원대학에서는 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중 하나를 설치하도록 허용되었다. 특수대학원이 처음 설립된 것은 1959년 서울대학교에 행정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이며 그 후 교육대학원(1963년)이 설치되었다(이석열, 2007, p.374).

1960년대부터 대학원제도는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 두 가지 형태로 정착되었다. 1980년대에는 졸업정원제 도입으로 교수요원 확보를 위하여 대학원이 팽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1990년까지 응용학문인 경영, 법학, 공학, 교육 등의 분야에서 특수대학원이 급격히 팽창해 나갔다. 1990년에는 대학원(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이 298개이고 학생 수가 86,911명이었다. 2000년에는 특수대학원 학생 수만 3,269명이었고, 2008년에는 대학원 747개와 학생 수 145,976명으로 증가하였다. 1997년에는 대학원 규정이 제정되었다가 1998년에 고등교육법에 통합되어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의 세 가지 형태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

특수대학원의 종류는 무척 다양하여 현재 운영 중인 특수대학원의 종류는 전국적으로 대략 268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부록 6] 참조). 그 중에서 경영대학원, 공학대학원, 디자인대학원, 법무대학원, 보건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산업대학원, 상담대학원, 신학대학원, 언론홍보대학원, 예술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행정대학원 등이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특수대학원들이다. 경영대학원은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선도할 역량 있는 전문적인 경영관리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70여개 대학교

에서 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대학원은 실용적 학문연구를 고취시켜 실무능력을 강화하고 사회봉사의 생활화를 통하여 복지교육을 강화하며,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민주적 시민의식을 드높여 도덕적 품성을 갖춘 유능한 지도자 및 사회복지 이념에 따라 사회복지실천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약 60여개 대학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

2008년 특수대학원의 계열별 학과 수와 학생 수 현황은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과 수는 교육계열이 1,646개, 사회계열 1,201개로 다른 계열에 비해 많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입학정원은 인문계열이 17,60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회계열 13,449명, 예체능계열 10,303명으로 타 계열 비해 정원수가 비교적 많음을 알 수 있다. 재적 학생 수는 교육계열이 56,155명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사회계열이 43,402명으로 많았다. 그리고 전체대비 학생의 비율은 교육계열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계열이 29.7%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 특수대학원 계열별 학과수 및 학생수 현황(2008)

계열구분	학과수	입학정원	재적학생수	학생비율
인문계열	227	17,608	17,013	11.7%
사회계열	1,201	13,449	43,402	29.7%
교육계열	1,646	2,949	56,155	38.5%
공학계열	719	5,640	12,093	8.3%
자연계열	208	515	2,681	1.8%
의학계열	181	3,973	5,770	4.0%
예체능계열	411	10,303	8,862	6.1%
계	4,643	54,437	45,976	1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8).

2008년 특수대학원의 지역별 현황은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특수대학원을 설치하고 있는 학교 수, 학과 수, 입학정원, 재적학생 수가 서울과 경기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수대학원을 설치하고 있는 학교가 서울 227개, 경기 114개로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학과 수는 서울 1,324개, 경기 512개로 나타났다. 입학정원은 서울 19,994명, 경기 7,600이며, 재적학생 수는 서울 55,746명, 경기 19,083명으로 나타나 서울과 경기지역에 특수대학원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 특수대학원 지역별 현황 (2008)

	지역	특수대학원수	학과수	입학정원	재적학생수
1	서울	227	1,324	19,994	55,746
2	부산	47	369	3,355	8,552
3	대구	31	213	2,280	6,171
4	인천	14	112	1,466	3,383
5	광주	26	195	2,035	5,552
6	대전	41	229	2,677	6,071
7	울산	5	37	436	1,236
8	경기	114	512	7,600	19,083
9	강원	30	230	1,330	4,139
10	충북	25	186	2,231	6,490
11	충남	48	315	2,989	8,193
12	전북	38	262	2,085	5,760
13	전남	20	124	1,139	2,334
14	경북	47	213	2,385	6,348
15	경남	28	248	2,170	5,601
16	제주	6	74	265	1,317
	계	747	4,643	54,437	145,976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8).

2. 전공 선택과 교육비 총당

특수대학원을 선택할 때 학부와 다른 전공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결과는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학부와 다른 전공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7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문적 매력(11.5%), 적성 고려(9.5%), 취업과 경력개발(7.8%)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현 업무와 관련하여 학부와 다른 전공을 선택한 경우는 자연계열이 86.0%, 공학계열이 81.0%로 다른 계열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학문적 매력 때문에 학부와 전공을 다르게 선택한 경우는 인문계열 1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적성을 고려해서 학부와 다른 전공을 선택한 경우는 예체능계열 1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취업과 경력개발을 위해 학부와 다른 전공을 선택한 경우는 교육계열이 1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3> 학부와 다른 전공 선택 이유

(단위: %)

	현 업무 관련	학문적 매력	적성 고려	취업/경력 개발	기타	계
특수대학원 전체	70.3	11.5	9.5	7.8	0.9	100
인문계열	57.3	19.6	14.0	9.1	-	100
사회계열	72.3	12.2	6.6	7.7	1.1	100
교육계열	63.3	10.5	11.4	13.3	1.5	100
공학계열	81.0	7.5	4.9	6.2	0.4	100
자연계열	86.0	7.0	4.7	2.3	-	100
의약계열	76.6	9.6	9.6	3.2	1.0	100
예체능계열	64.9	13.3	15.6	6.2	-	100

자료: 정윤경(2007b).

특수대학원의 석사과정을 진학한 동기에 대한 결과는 <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심화교육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석사과정에 진학했다는 대답이 7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장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가 8.5%,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가 4.9%, 학력증진을 위해서가 4.7%,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가 1.6%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심화교육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진학한 경우는 의약계열이 9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장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진학한 경우는 사회계열이 1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진학한 경우는 교육계열이 1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증진을 위해 진학한 경우는 공학계열이 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4> 석사과정 진학동기

(단위: %)

	심화교육 및 전문성 강화	직장의 업무 수행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력증진	인적 네트워크 형성	기타	계
특수대학원 전체	78.0	8.5	4.9	4.7	1.6	2.3	100
인문계열	82.4	9.1	3.7	2.1	0.5	2.2	100
사회계열	77.9	13.3	0.7	4.2	1.5	2.4	100
교육계열	71.1	3.2	18.6	3.4	0.6	2.5	100
공학계열	71.2	12.3	1.6	7.4	4.0	3.5	100
자연계열	84.4	10.6	0.6	3.9	0.6	-	100
의약계열	96.3	1.9	0.9	0.9	-	-	100
예체능계열	84.8	3.8	2.0	6.1	1.2	2.1	100

자료: 정윤경(2007).

특수대학원을 진학해서 교육비를 충당하는 방법에 대한 결과는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본인의 소득에서 교육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7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 10.4%, 직장의 지원 3.6%, 장학금 3.3%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본인의 소득으로 교육비를 충당하는

경우는 교육계열이 8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족을 통해 교육비를 충당하는 경우는 예체능계열이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직장의 지원을 받아 교육비를 충당하는 경우는 인문계열이 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장학금으로 교육비를 충당하는 경우는 자연계열이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5> 교육비 충당 방법

(단위: %)

	본인의 소득	가족	직장의 지원	장학금	기타	계
특수대학원 전체	78.6	10.4	3.6	3.3	4.1	100
인문계열	69.0	13.9	8.0	2.1	7.0	100
사회계열	84.2	3.7	5.3	4.6	2.2	100
교육계열	85.2	12.0	-	1.2	1.6	100
공학계열	81.3	3.8	4.8	4.0	6.1	100
자연계열	80.6	6.1	7.2	5.0	1.1	100
의약계열	80.6	15.7	-	0.9	2.8	100
예체능계열	62.7	26.5	0.9	5.0	4.9	100

자료: 정윤경(2007).

3. 학위취득 및 취업 관련

특수대학원은 노동시장에서 학교로 이행하여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취업경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특수대학원 교육과정에는 이러한 학생들의 수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노동시장과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산업의 발전 방향과 일치하도록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이 구성되어야 하며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에 부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유망 산업과 유망 직업에 대한 예측과 국가 차원의 산업인력 수급 전망에 따라 학과 개설과 학생 수가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특수대학원 학생들의 취업, 전직, 이직 등을 위한 체계적인 취업 지원서비스와 진로지도가 필요하다.

산업계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가 필요로 하는 고급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재교육하는 특수대학원의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 대졸자가 계속교육훈련을 통해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특수대학원의 역할과 기능, 운영방식, 교육과정, 교육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개선 노력도 필요한 실정이다. 특수대학원을 졸업한 후 취업기관 유형에 대한 결과는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민간기관이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기관 33.8%, 정부기관 10.4%, 기타 5.9%, 법인단체와 정부투자기관이 5.1%, 프리랜서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기관 유형을 계열별로 살펴보면, 교육기관은 교육계열이 8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법인단체는 인문계열이 27.5%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민간기관은 공학계열이 64.4%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부기관은 사회계열이 2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부투자기관은 자연계열이 8.2%, 프리랜서는 예체능계열이 6.3%, 기타에서는 의약계열이 5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6> 취업기관 유형

(단위: %)

	교육기관	법인단체	민간기관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프리랜서	기타	계
특수대학원 전체	33.8	5.1	38.2	10.4	5.1	1.5	5.9	100
인문계열	46.8	27.5	10.5	9.4	2.9	2.9	0	100
사회계열	11.8	7.0	48.3	22.7	7.7	-	2.5	100
교육계열	86.0	2.2	7.1	0.9	1.3	1.3	1.2	100
공학계열	11.7	1.2	64.4	11.7	6.6	0.2	4.2	100
자연계열	26.3	2.3	40.9	16.4	8.2	0.6	5.3	100
의약계열	16.0	5.0	17.0	4.0	5.0	1.0	52.0 (51.0: 병원)	100
예체능계열	35.8	1.3	45.7	3.0	5.0	6.3	2.9	100

자료: 정윤경(2007).

취업정보 출처에 대한 결과는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선배나 동료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터넷 사이트가 29.2%, 지도교수 추천이 16.6%, 가족이나 친척의 도움이 7.2%, 채용회사 홈페이지가 4.0%, 헤드헌터를 통해서가 3.4%, 신문광고 0.8%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선배나 동료의 도움을 통해서 취업을 한 경우는 인문계열이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족이나 친척의 도움을 받은 경우에서도 인문계열이 2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통해서 취업을 한 경우에는 의약계열과 예체능계열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취업을 한 경우는 자연계열이 39.4% 가장 높게 나타났다. 헤드헌터를 통해서 취업을 한 경우는 공학계열이 7.4%로 가장 높았고, 채용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을 한 경우는 교육계열이 1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7> 취업정보 출처

(단위: %)

	선배 동료의 도움	가족 친척의 도움	지도교수 추천	인터넷 사이트	헤드 헌터	신문 광고	채용회사 홈페이지	기타	계
특수대학원 전체	35.5	7.2	16.6	29.2	3.4	0.8	4.0	3.3	100
인문계열	57.5	20.0	7.5	5.0	5.0	2.5	-	2.5	100
사회계열	39.7	10.3	12.1	27.6	5.2	-	3.4	1.7	100
교육계열	21.4	10.2	13.3	34.7	1.0	-	11.2	8.2	100
공학계열	33.6	2.5	11.5	38.5	7.4	1.6	2.5	2.4	100
자연계열	36.4	6.1	12.1	39.4	3.0	-	-	3.0	100
의약계열	28.6	-	28.6	39.3	3.6	-	-	-	100
예체능계열	38.1	7.6	28.6	20.0	1.0	1.0	1.9	1.8	100

자료: 정윤경(2007).

특수대학원 석사학위의 효용성에 대한 결과는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자기개발이 5점 만점에 3.4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문적 성장 3.37점, 사회적 인정, 직업전문성 제고, 인적네트워크 형성이 각각 3.20점, 전반적 효용이 3.05점, 취업력 제고 2.55점, 소득 증대 2.24점 순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자기개발은 예체능계열이 3.4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문적 성장은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이 각각 3.42점으로 타 계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인정은 교육계열과 공학계열이 각 3.2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업전문성 제고와 인적네트워크 형성에서 의약계열이 3.46점과 3.36점으로 가장 높았다. 전반적 효용성은 교육계열과 의약계열이 3.1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증대는 교육계열이 2.3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취업력 제고는 의약계열이 2.90점으로 가장 높았다.

<표 4-8> 석사학위의 효용성

(단위: 점/ 5점 만점)

	자기 개발	학문적 성장	사회적 인정	직업전문 성 제고	인적네트 워크형성	전반적 효용	소득 증대	취업력 제고
특수대학원 전체	3.40	3.37	3.20	3.20	3.20	3.05	2.24	2.55
인문계열	3.37	3.37	3.17	3.12	3.10	3.07	1.96	2.47
사회계열	3.40	3.30	3.14	3.08	3.28	3.03	2.11	2.42
교육계열	3.43	3.42	3.25	3.30	3.20	3.14	2.30	2.59
공학계열	3.35	3.42	3.25	3.21	3.17	3.00	2.36	2.55
자연계열	3.40	3.42	3.21	3.21	3.20	3.00	2.13	2.57
의약계열	3.44	3.42	3.07	3.46	3.36	3.14	2.04	2.90
예체능계열	3.45	3.31	3.17	3.16	3.14	3.01	2.29	2.57

자료: 정윤경(2007).

제2절 특수대학원 교육 CIPP 분석의 틀

특수대학원 교육은 다양한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을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수대학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CIPP 모형을 적용하여 교육 운영체제를 환경, 투입, 과정, 산출과정의 요인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그림 4-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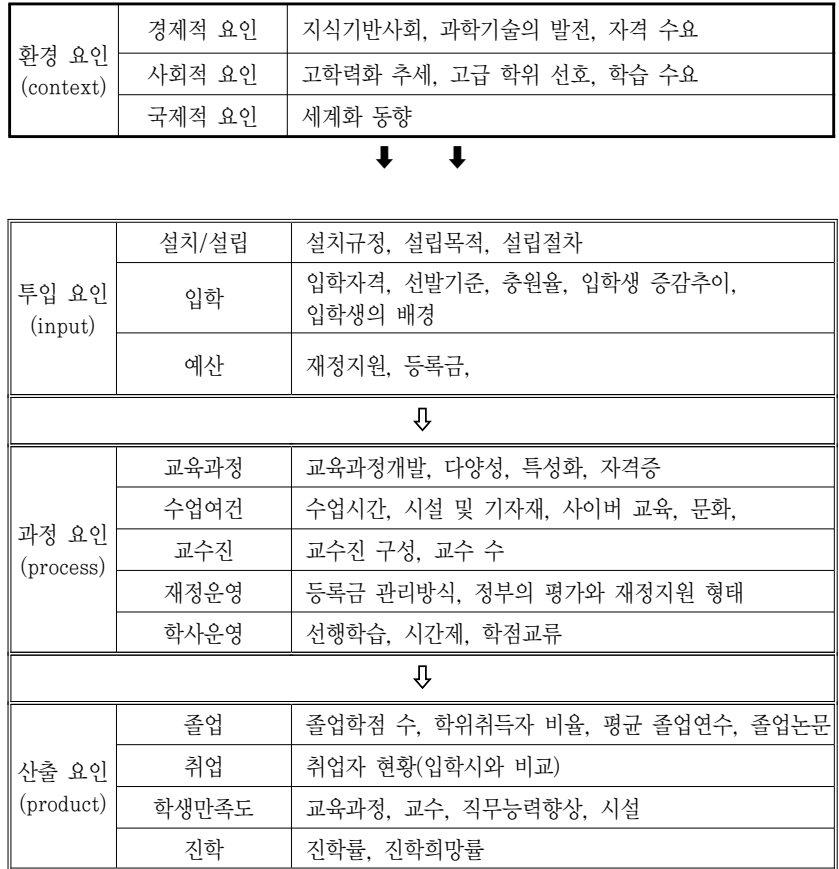
Stufflebeam(1971)은 교육, 인사, 프로젝트, 성과, 기관, 체제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를 위한 종합적인 분석의 틀로서 CIPP(context, input, process, product)모형을 제시하였다(Stufflebeam, D. 2002.; D. L. Stufflebeam & T. Kellaghan). CIPP 모형은 교육과정, 프로그램, 교육연구, 개발, 달성도 등 교육의 제반 활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의 일련의 단계들인 환경요인(context), 투입요인(input), 과정요인(process), 그리고 산출요인(product)을 분석하는 평가모형으로 활용된다. 개선과 대안 제시를 위한 연구과정에 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환경적 요인은 교육의 기획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들, 투입 요인은 설계 단계, 과정적 요인은 실행 단계, 그리고 산출 요인은 순환적 단계에서 결과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다. 환경적 요인은 교육적 활동이 전개되는 환경의 실제적 조건과 바람직한 조건을 기술하고, 여러 가지 교육적 필요들을 발견하고,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장애가 되는 문제점들을 포괄적으로 진단하여 교육 추진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 투입요인들은 특수대학원의 설립취지, 입학과정, 선발절차, 전형방법, 입학의 목적, 대학원 재정 등 실제 교육활동이 작동되기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물적·인적·재정적·문화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요소들이다. 또한 이러한 투입요소들을 바탕으로 특수대학원의 교육활동이 수행되는 과정에는 교육과정, 교수진, 수업여건, 학업지도, 시설 및 기자재 활용 등이 과정적 요인에 해당한다. 특수대

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이 완성되는 졸업 단계의 요인들로서 졸업논문, 학생의 만족도, 취업 및 진학 관련 요인들이 산출적 요인이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직장인이나 일반 성인들이 노동시장에서 교육기관으로 이행하여 재교육 혹은 계속교육을 추구하는 평생학습 차원의 work-to-school의 원활한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다. 특수대학원 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함에 있어서 환경, 투입, 과정, 산출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분석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림 4-1] 특수대학원 분석 모형



CIPP 모형에 따른 특수대학원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면담 조사 항목들을 투입, 과정, 산출 요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Input (투입 요인)

	조사 항목	세부 내용	조사 대상
1	특수대학원 설립 목적 및 취지(현실 적합성)	- 설립취지에 적합한 운영 - 괴리 이유 - 타대학원과의 차이점: 학위취득, 직무능력개발, 수익성 위주 등	교과부 담당자 행정부장 교수
2	설립 절차	- 학과 운영의 용이성, 수월성	교과부 담당자 행정부장
3	입학정원의 변동 현황에 대한 대학의 태도	- 인력수급 전망 등에 관한 협의 절차	교과부 담당자 행정부장
4	대학원 교육의 목적, 입학 동기	- 취업 목적 - 학위 취득 목적 - 상위과정 진학 - 직무능력향상 - 경력개발(또는 승진) - 기타	대학원생 졸업자
5	대학원 예산 운영	- 등록금 관리 방식	행정부장
6	개인 교육비 부담 현황	- 타대학원 대비 등록금의 적절성 - 자비 부담 정도 (고용보험기금, 회사지원, 대학원지원 장학금, 대출, 정부지원 등)	행정부장 대학원생
7	입학 자격 및 절차	- 접근의 용이성: 입학 전형제도 - 입학 정보 제공	행정부장 대학원생 교수
8	대학 선택의 이유	- 학생들의 대학 및 전공 선택 기준: 자택과의 거리, 직장과의 거리, 교육과정 선택의 폭 (만족도), 교수진에 대한 만족도, 학교 name value	대학원생
9	입학생의 배경	- 연령, 성별, 학부전공과의 일치도, 직업 등	행정부장 대학원생

2. Processes (과정적 요인)

	조사항목	세부 내용	조사 대상
1	교육과정 운영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대학원 설립목적 부합 교육과정 내용 - 성인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내용여부 - 학생들 및 산업체의 수요 반영 (현장적합성) - 학습 내용 및 수준의 적합성 - 프로그램 선택의 다양성 	교수 대학원생 졸업자
2	프로그램 운영 방식	cyber 강의의 필요성- 학생	대학원생 졸업자, 교수
3	교육과정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주기 - 개발시 참여자 - 전공학제간 연계 전공 개발 - 현장실무 교수진 참여 -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대학원 행정부장 교수
4	교수진 구성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1인당 학생수 - 학부, 타대학원 교수와의 차별화 - 특수대학원 교수 구성의 적절성 - 시간강사 구성 비율 	대학원 행정부장 교수 대학원생 졸업자
5	수업 여건 및 학업지도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계획서 배포 및 시행 - 수업평가 실시 - (지도)교수와의 면담: 학업 및 진로 상담관련 - 공간적, 시간적 여건: 정규, 비정규, 시간제, 야간, 주말 운영 등 - 수업방식: 강의중심, 과제중심, 토론중심, 발표중심, 인터넷중심 등 	대학원 행정부장 교수 대학원생 졸업자
6	수업의 연계성	- 타대학, 타전공과의 학점교류	대학원 행정부장 대학원생
7	연구여건	- 연구공간, 세미나실 등	대학원 행정부장 교수 대학원생
8	대학원의 문화적 특성	- 학문적 문화와 풍토 조성 여부	교수 대학원생 졸업자
9	자격증 관련	- 자격증 취득 관련 교육과정 운영 여부	대학원 행정부장 대학원생
10	정부의 평가 및 지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여부 및 주기 - 평가 결과의 활용도 및 개선 절차 - 정부의 행정적 지원 	정부담당자 - 서류 대학원 행정부장
11	학사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학습 학점 인정 - 시간제 학생의 학점 제한 - 학점 교류 	정부담당자 교수 대학원생

3. Products (산출적 요인)

산출	조사 항목	세부 내용	조사 대상
1	학생들의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과목 선택의 다양성 ② 강의 충실도 ③ 실험/실습 시설 및 연구환경 ④ 도서관 및 자료이용 ⑤ 행정 서비스의 질 ⑥ 교육서비스 대비 등록금 규모의 적절성 ⑦ 장학금의 취득 기회 ⑧ 교육연구 및 진로지도 ⑨ 교수의 질 ⑩ 직업능력개발 만족도 	대학원생 졸업자
2	졸업 논문 운영의 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 작성의 필요성 - 직무능력개발과의 관련성 - 논문계획/ 작성과정 - 논문심사 및 발표 	대학원 행정부장 교수 졸업자
3	졸업 후 직무능력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현황 - 졸업 후 직장에서의 인정(승진) (보수인상, 직무배치 혜택 등) - 현장적합성 - 자격증 관련성 	졸업자
4	졸업 후 취업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도 program - 입학 전과의 취업현황 비교 	대학원 행정부장 대학원생 졸업자
5	진학자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과정으로 진학률 - 진학 희망률 	대학원 행정부장 대학원생
6	특수대학원 개선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제도 개편 - 교육과정체제 개편 - 졸업제도 개편 - 강의의 질 개편 - 연구공간 및 시설의 확보 - 장학금의 확대 - 행정 서비스의 질 개선 - 논문(졸업) 및 진로지도체제 개편 	대학원 행정부장 교수 대학원생 졸업자

제3절 특수대학원 교육의 현황 분석

1. 특수대학원의 환경적 요인 (Contexts)

가. 평생직업의 시대와 Work-to-School

지식과 기술의 폭발적인 증가와 역동성, 직업과 직종의 변화, 문화와 생활양식의 세계적 교류 등은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 직업사회는 지식기반사회의 발전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크게 변화해 왔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의 창출·확산·활용 능력이 국가경제의 발전에 핵심요소가 되는 동시에, 개인의 직업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직업인으로서의 기본 능력이 되는 직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현대사회에서는 초기교육만으로 모두 망라할 수 없는 실정이 되었다. 지식과 기술의 생명주기가 짧아져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부단히 대체되고 보충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변화와 발전의 속도가 빠른 사회에서 개인은 노동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직업적 역량(competence)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등 제반 변화에 부응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평생직업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과학과 기술의 급속한 변화와 발전으로 회사에서 고용 안정에 대한 보장을 책임지지 않게 됨에 따라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져가는 추세이며, 개인들은 회사의 발전보다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먼저 생각하여 취업과 고용 가능성을 우선시 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미래학자들은 2020년경이 되면 73일을 주기로 지식이 2배로 증가하고, 2050년이 되면 현재 인류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은 1% 밖에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평생직업시대의 특징은 지식과 정보의 생명주기가 급감하는 대신 양적인 증가가 급속하며, 과학기술의 발전도 가속화되어 이를 기반으로 발전 변모해 나가는 새로운 산업과 직업세계에 적응하고 직업인으로서 역량을 갖

추기 위하여 누구든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최신화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학교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취업하여 각자의 일자리에서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전직이나 이직의 필요성에 직면하여 혹은 급변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요구하는 직무 역량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재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구조의 변모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보유한 근로자들만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며 생존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취업을 한 후에도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을 해야 하는 학습사회의 패러다임이 구현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학습모형은 학교교육을 받은 후 직장을 갖게 되면 교육은 일단 끝난 것으로 보는 중국형 교육제도가 지배적인 구도였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초기교육(initial education, 취업 전 학교교육)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학습을 재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요청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에서는 학교교육을 통하여 배운 지식과 기술만으로 사회인으로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재교육과 훈련을 위한 평생학습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근로자들과 성인들의 학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필요에 따라 계속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가 학습을 지원하는 체제 즉, 일과 학습이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순환교육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평생학습 사회의 도래로 초기교육만이 아니라 재교육과 훈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학습자의 유형이 다양화되어 감에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의 역할과 기능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식정보화시대에서 노동시장에서는 모든 분야를 두루 섭렵하는 범용인재(Generalist), 개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핵심 전문인재(Functional Specialist), 이 두 가지의 재능을 겸비한 T자형 인재 등 요구하는 기업의 인재상도 변화해가고 있다. 대학들도 산업수요에 부응함과 동시에 학습자들의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성인들의 지속적인 자기개발, 전직과 이직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 습득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근로자의 노동시장에서 학교로의 이행(WTS: Work-To-School)이 주요 관심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학교로의 이행은 노동시장에 진입 후에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훈련기관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정지선 외, 2008: 21). 이렇게 교육의 영역과 노동의 영역을 필요에 의하여 왕래하면서 학습과 직업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순환교육체제는 지식기반사회로 발전하면서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순환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OECD에서는 학교교육 이후 성인들에게 체계적인 접근을 통하여 초기교육 경험에서 간과되었던 요구를 충족시켜 주고 최신화되어야 할 교육내용을 제공하여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순환교육은 궁극적으로 세대 간 평등과 사회적 평등에 기여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이병희 외, 2006, p.142). 평생학습체제가 구축된 사회는 개인의 필요에 의하여 노동시장에서 교육시장으로의 왕래가 자유로운 순환교육 모형이 원활히 운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EU는 모든 교육과 훈련이 평생학습의 원칙(Principle of Lifelong Learning) 아래 추진된다고 규정함으로써 평생학습을 교육훈련정책의 기본원리로 개념화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02; 2005). 유럽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지식기반사회로 만들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 평생학습 강화를 설정한 것이다. 유럽의 미래는 사람과 그들이 가진 지식에 달려 있다는 관점 아래, 교육과 훈련에 관한 근본적인 접근법으로서 평생학습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평생학습을 유럽 고용전략의 틀에 의하여 개발된 법규와 정책에 의해 촉진하며 경제적인 측면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배제를 극복하여 더 통합적이고 민주적인 유럽을 만드는 데에도 기여한다는 관점을 견지한다(European Commission, 2001).

현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와 핵심인재 양성 및 과학 한국 건설 그리고 평생학습의 생활화라는 인재대국 건설의 3대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08; 교육과학기술부, 2008). 현 정부의 5대 국정지표와 192개 국정과제의 두 번째 국정지표인 인재대국 분야에는 3대 전략 목표로 공공성과 수월성, 다양성이 조화된 수요자 중심의 교육기회 제공과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창의적 핵심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한국건설과 이를 위한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교육과정의 선진화, R&D 투자의 전략적 확대 등 고급인력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일생동안 능력개발이 가능한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특수 대학원 교육은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기능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주요 이슈로 해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도 대학원 정원 정책의 기본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첫째, 대학원 정원 자율화정책기조를 견지하는 방향으로 정원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육의 질 확보와 책무성에 기초하여 인력을 양성하는 체제를 정착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취업실태 등 정보제공 확대 및 대학정보 공시체제 구축 등 시장기제를 통한 자율적 정원 조정을 유도한다. 둘째, 일반·전문·특수대학원의 대학원별 역할과 기능에 부응하는 특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셋째, 법정 정원기준을 준수하되, 국가정책상 반드시 필요한 분야의 인재양성에는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OECD는 향후 20년 내에 변화 가능한 미래의 대학을 여섯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하였는데(Vincent-Lancrin, 2005), 그 중에 하나로 성인이 진학하는 평생학습 형태의 고등교육기관인 평생학습/개방교육형(lifelong & open education)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는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으로서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술과 지식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고등교육이 기업이나 개인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전문능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등교육기관은 학습자 중심적이며,

교육 중심적 특성을 가지고, 단기과정과 원격교육 등이 강화된다. 정부나 독립된 기구가 질 확보(quality assurance)와 평가인정의 책임을 진다.

나. 고학력화와 대학원 수준의 평생직업교육

우리 사회는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이며 국민들이 고학력을 지향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강하여 우리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82.8%, 2008년). 우리 사회에서의 일류대학 진학이나 학벌은 노동시장에서 취업할 일자리의 질을 좌우하고 이는 곧 사회계층의 상승이동을 위한 중요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고학력화와 더불어 계속교육의 필요성에 의하여 노동시장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이행을 증가시킨다(David Neumark & Mary Joyce, 2001). 저숙련 인력을 공급하던 전문계 고등학교의 역할은 유명무실해지고 졸업생들은 대학으로의 진학을 선호한다. 전문대학 졸업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저숙련 일자리를 대체하거나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대학 졸업자들이 담당해 온 고숙련 일자리는 이제 대학원 수준의 인력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에서 요청하는 실무능력을 양성하는 실질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미흡하여 대학 졸업자들이 산업체로 진출한 이후 기업에서는 재교육에 대한 부담이 크다. 대기업에서조차 우수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들이 취업함에도 불구하고 대졸 신입사원의 직무능력 부족에 대한 불만과 재교육 비용 부담이 큰 실정이다³⁹⁾. 대학의 교육내용이 산업현장과의 괴리가 커서 실질적 직업능력 습득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력은 단순히 노동시장 진입의 신호기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 졸업 학력의 근로자들이

39) 채창균 외(2005); 손유미 외(2006). 기업의 신입사원 재교육 기간과 비용을 조사한 결과 재교육을 위한 업무습득기간이 대기업의 경우 평균 11.25개월, 중소기업의 경우 7.26개월, 업무 투입 전 기간은 대기업의 경우 29.6개월, 중소기업의 경우 16.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인당 업무습득기간에 소요되는 교육비용은 평균 360만원, 업무 투입 전 전기간에는 평균 3,675만원인 것으로 산출되었다.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속교육을 찾아서 대학원 교육을 찾는 경우도 많다.

IMF 금융위기 이후 근로자의 노동시장 재진입 및 전직이 확대되어 취업역량 강화가 주요 이슈가 되었고 이러한 산업 환경의 변화에 성인근로자들은 새로운 직업기술과 지식 습득을 위하여 재교육체제에 적극적 접근 기회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윤여각 외, 2000). 직업교육을 이수하는 성인학습자들의 개인적인 성장발전은 물론 국가적 차원의 산업기술인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단계의 계속교육 체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최지희 외, 2007 p.36).

초기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출하여 직업에 종사하면서 재교육이나 훈련의 필요성에 직면하여 대학을 비롯한 교육훈련기관으로 돌아와서 학습하는 순환교육체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다. 성인근로자들에게 재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고등교육기관들의 평생학습 기능과 역할의 확대가 절실해지고 있어 대학원은 성인근로자들의 직업세계와 교육을 연결하는 체제가 요구되고 있다. 고학력 추세와 맞물려 대학원 수준의 교육 수요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수대학원은 설립이 용이하며 질관리 체제가 부재하여 본래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수익성 추구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받게 된다면 받고 싶은 기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고등교육기관이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대학 평생교육원을 모두 포함하여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직자들이 각자의 학력수준에 적합한 고등교육기관에 반응한 것을 감안하면 대학원, 4년제 대학, 전문대학을 합하여 31.3%이다. 공공직업훈련기관이 19.7%, 민간교육훈련기관 16.2%, 기업체 또는 기업연수원 14.7%의 순이었다. 고등교육기관 중에서는 대학원에 대한 희망이 14.6%로 가장 높아서 응답자 중 대졸자가 많은 것과 유관함을 알 수 있다.

대학(원)에서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이유는 학위취득 42.1%, 현

재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하여 31.5%, 승진 13.3%, 전직 11.1%, 자격증 취득 10.6% 등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지선 외, 2008). 우리 사회에서 대학과 대학원은 학력상승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기관으로서 학습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학위취득과 직무능력 향상이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을 특수대학원이 수행하는 것이며, 이러한 취지에서 설립된 제도이다.

다. 특수대학원 학과 설립 기준과 평가

특수대학원 설립 기준 (특히 학과 신설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학과 신설이 용이하여 여건이 부실한 대학에서도 특수대학원의 학과를 비정상적으로 증설시키는 경우가 있어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힘들다. 학과 설립기준은 설치하고자 하는 특수대학원과 관련된 학부에 3명 이상의 전임교수를 확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일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에 비해서 상당히 완화된 기준이다.

특수대학원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특수대학원의 석사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수요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필요에 따라 설립이 수월한 학과 설립기준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설립준칙주의라는 원칙 아래 설립 후에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 등 교육여건이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평가가 뒷받침될 때에 비로소 설립준칙주의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특수대학원에 대한 별도의 공식적인 기관평가(교육대학원을 제외한)나 인증제 등이 부재하여 특수대학원의 질적 수준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높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2. 특수대학원 교육의 투입적 요인 분석

가. 설립절차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인력과 재교육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특수대학원이 설립되었다. 교육 통계로 정책개발대학원, 정책과학대학원, 정책대학원, 정책정보대학원 등의 명칭이 각 대학원의 고유명사가 아니라 구분 항목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분의 총 수는 2008년 268개이며, 2002년 282개, 1995년 86개로 증가 추세를 알 수 있다.

특수대학원의 설립절차 및 학과의 설치 및 운영은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특수대학원 설립규정에 의하면 교지, 평수, 교원 수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특수대학원의 학과 신설 기준은 학과 신설시 학부에 최소 3명 이상의 관련 분야 전임교원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교육과학기술부, 2009학년도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 및 정원조정계획)이 있다. 특수대학원은 학부에 비해서 설치하기가 어렵지 않다. 대학원의 교지 요건은 학부가 확보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공용하고 학부에 전임교수 3인 확보 또한 준수하기에 어려운 조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수대학원의 설립과 학과 설치 및 운영은 별 어려움 없이 추진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야간 수업이어서 전용건물이 마련되지 않아도 학부 건물을 야간시간에 사용할 수 있다. 입학정원도 학교 전체적으로 정해진 정원 내에서 타대학원과의 정원을 조정하여 특수대학원 정원이 할당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특수대학원의 설립과 운영은 별 어려움 없이 추진되어 왔다.

나. 입학절차

1) 입학정원

각 특수대학원의 입학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배정되는 인원 수에 따라 정해진다. 또한 입학 경쟁률은 학과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수도권에서는 대체로

평균 2:1~3:1 정도의 경쟁률을 유지해오고 있다. 교육학 분야, 사회복지 분야 등의 자격증이 주어지는 학과나 일부 인기 있는 분야의 특수대학원은 경쟁률이 3:1을 훨씬 웃돌기도 한다.

수도권 유명대학의 교육대학원이나 특성화된 J대학 예술대학원의 경쟁률은 5:1 정도이다. 이들은 그 분야에서 유명세가 있는 대학원들이며 대학원에 입학 하여 network를 구축하는 것이 성공적 진로라는 인식으로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 지방 학생들의 비율도 20~30%에 해당한다. 교육대학원에는 정교사 자격증 코스가 있어서 학부에서 교직과목을 선택하지 못하여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들의 수요가 아직은 있는 편이어서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비수도권 특수대학원의 입학 경쟁률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중장기적으로 정원 확보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에도 일부 비수도권 특수대학원에서는 입학정원을 간신히 채우고 있거나 조만간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 D대학 교육대학원의 경쟁률은 현재 2:1 정도인데 입학자원이 감소 추세이어서 곧 교육대학원 입학생 충원이 심각해 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성화된 특수대학원으로 알려진 비수도권 N대학 유리조형대학원의 경우 현재까지는 입학정원을 다 채웠으나 경쟁률이 높지 않으며, 지방의 B대학 산업대학원도 학생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비수도권 특수대학원들이 입학생 확보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였음을 시사한다.

2) 선정 절차

특수대학원 입학 정보는 주로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거나 일간지에 홍보한다. 비수도권 대학일수록 홍보에 적극적인 경향이다. 특수대학원 입학생은 원칙적으로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데 전형절차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하여 평가한다. 서류전형은 학부 성적, 포트폴리오 등 대학원별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량적 평가가 이루어

지지만 면접고사는 구술 위주이며 원장 및 전공과 교수의 재량에 의해 정성적 평가로 이루어진다.

서류와 면접 전형 시 직업적 특성과 전공의 관련성이 고려되며 재직자에 대한 가산점 여부는 학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 일부 대학원에서는 재직자를 위한 특별전형을 실시하기도 한다. 현장경험자나 현장경험 우수자, 산업체 임원, 공공기관 임직원, 교육계 및 연구소 임직원은 우대하는 경향이다.

특수대학원에서는 면접시 전공과 관련된 직장인인 경우에 입학 시 유리하게 평가되는 등 직업과 전공과의 관련성을 참작한다. 그러나 비수도권에서는 입학정원 채우기에 급급하므로 직업적 특성과 전공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크게 고려하지 않는 편이다. 또한 학생 모집시 학점은행제 출신이나 사이버 대학 출신 학생들은 선발과정에서 그리고 입학 후 수강 시에 실제 대학원 수업을 받을 만큼의 기초 학력이 부족하여 입학이나 수강에 불리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다. 입학동기와 대학원 선택 기준

특수대학원 학생들은 대부분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재직자들이며 직업인과 성인의 계속교육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다. 특수대학원 학생들의 입학 동기는 대체로 학위취득, 직무능력향상, 교수와 동료들과의 networking, 경력개발, 자격증 취득, 직장 내에서의 승진, 학문적 관심, 자기개발, 현업무의 전문성 확보, 자기개발을 통한 사회변화 적응 등 무척 다양하다. 전공의 특성과 대학원 소재지역이나 규모 및 개인의 학문적 배경 그리고 대학원의 사회적 인지도에 따라서 추구하는 교육의 목적은 달라진다. 두 가지 이상의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평생학습 차원에서 보면 현직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거나 실력을 쌓기 위한 목적 외에 퇴직 후 거취 문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입학하는 학생들도 있어 특수대학원 교육은 고령화 사회의 노후대책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특수대학원 학생들이 추구하는 교육의 목적은 학과별 전공별로도 차이가 있으며 교육대학원의 경우는 대부분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통한 임용고시 준비, 교원 임용, 기간제 교사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학위취득을 통한 직장 내 승진, 직무능력향상 등이 주요 목적이 되고 있다. 사회복지대학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여 자격증 취득이 주요 목적이 된다. 이와 같이 교육대학원이나 사회복지대학원과 같이 자격증 취득과정은 특수대학원 본래의 취지로 운영되는 평생직업교육이 되고 있다. 한편 교육대학원의 유아교육 전공 학생들은 대체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들은 직무능력향상 외에도 계열과 무관하게 교수 및 학생들끼리의 networking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같은 분야의 학생과 교수와의 네트워킹을 추구하는 경향은 수도권 대학원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 예술대학원에서는 영화제작자 간에 상호 네트워킹이 잘 되고 있어 융합프로젝트가 가능할 정도이다. 수도권의 유명 대학 행정대학원의 학생 중 30% 정도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근무자이고 정당이나 지자체 선출직을 위해 입학하는 학생들이 20%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 특수대학원이 다양한 수요를 흡수하는 평생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은 특수대학원을 선택할 때 대학의 사회적 명성, 우수한 교수진, 사회적 인지도, 교육프로그램, 교육의 질, 대학원의 위상, 고시 합격률 등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집 또는 직장과의 거리상 접근 용이성, 전공의 특성화 여부 등도 선택기준이 된다. 수도권의 경우 학교의 name value가 대학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고, 비수도권에서는 직장이나 집과의 거리도 주요 기준이 되고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사회 경제적 지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대학원의 사회적 명성과 다양한 인맥 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라. 예산 운영

1) 특수대학원 재정구조

대학운영에 경영의 개념이 자리 잡으면서 재정 수입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특수대학원의 재정수입은 대부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되지만 독립채산제는 아니다. 재정관리는 대학에서 중앙관리체제의 형태로 운영되고 특수대학원은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형태이다. 전체 등록금 수입은 학교 본부 재정으로 귀속되고 학생 수 대비로 중앙을 통해 지출 예산을 책정하여 배정받는다. 독립 건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없고 지출은 시간강사들의 강사료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약 70%의 등록금 수입은 본부에 납입되고, 입학 정원을 충원하면 약 30% 정도가 대학원의 자율 집행액이 된다. 이는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상체제인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센티브가 없는 대학도 있다.

특수대학원의 재정은 주로 장학금, 운영비, 행사경비, 원우회 지원비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장학금은 성적장학금, 교사장학금, 군인장학금, 총학생회 임원을 위주로 지급하는 공로장학금, 공무원장학금 등 기준이 분명한 장학금이 있다. 기준이 분명한 장학금을 제외하고 나면 같은 조건을 가지고서도 장학금을 받기도 하고 받지 못하기도 하는 지급 기준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는 장학금도 있다.

2) 등록금과 장학금

수도권에 소재한 특수대학원의 등록금은 일반대학원보다 비싸다. Y대학 행정대학원(특수대학원)의 경우 등록금이 540만 원인데, 일반대학원의 행정대학원 등록금은 450만 원이다. 반면에 비수도권에 소재한 특수대학원은 대체로 등록금이 타 대학원보다 싸다. 그리고 장학금도 많이 지급되어 지방대학의 특수대학원은 수익성이 적은 편이다. 면담조사 과정에서 지방대학 교학과 직원은 지방대학은 사정이 열악한데다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더

불어 빈익빈 부익부라는 점을 토로했다.

특수대학원 학생들은 직장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육비를 자비(부모님이나 가족이 부담하는 경우 포함)로 부담한다. 학생들 중에는 소속회사에서, 공무원의 경우는 정부에서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해 주기도 한다. 회사의 핵심인력으로 선정되어 등록금의 80% 가량을 지원받는다는 학생도 있었다. 회사에서 대학원 학생의 학업을 지원하는 조건 중에는 대학원 성적이 B학점 이상이 나와야 지원을 받는 등 각 회사의 정책에 따라 상이한 조건들이 있다. 수도권에서는 비교적 교육비 부담 방법이 다양한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주로 자비 부담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특수대학원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방법에도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대학원 학생은 교사자격취득 희망자와 현직 교사들이 약 7:3 정도의 비율로 구성된다. 현직교사들의 경우는 전공과 가장 유관한 직종으로서 '교사장학금' 명목의 장학금 혜택을 주는 대학원도 있다.

3. 과정적 요인 분석

가. 교육과정 운영 체제

1) 교육과정개발

교육과정 개발과정은 대학원별로 차이가 있는데 일부 전공에서는 겸임교수를 활용하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다.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교수들이 산업체와 연계하여 실시한다. 예를 들면, 교육대학원에는 교사양성위원회가 있어서 현직 교장(사범대학 부속 중고등학교)이 참여하기도 한다. J대학 예술대학원에서 교육과정 개발은 주로 2년 단위로 대폭 또는 소폭으로 이루어진다. 교육과정 개발 시 겸임교수, 시간강사, 학생이 참여하며 학생의 수요가 반영되기도 한다. Y대학 보건대학원에서는

교과과정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1년 1회, 1박 2일로 만족도를 조사하고 신설과목 필요성을 검토하며 전년도 강의평가 결과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반영한다.

교육과정의 개발과 절차 및 주기 등은 주임교수 및 교수들이 결정하여 실시한다. 교육과정 개발의 주기는 유연하게 운영되는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발하는 경우도 많다. 교수들은 교육과정 개발 시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 학생 수준에 적합하도록 노력한다. 수업 진행과정에서 실무중심의 강의를 하고 있다. 특히 원장 교체 시 신입원장의 의욕으로 신규 과정이 개발되기도 한다. 또한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해 수강자들에게 듣고 싶은 강좌를 조사한다.

일반대학원은 논문 중심, 특수대학원은 실무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커리큘럼은 유사하다. 전반적으로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며 특수대학원만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경우는 드물고 여건도 어려워 교육과정 개편은 필요시 수시로 부분적으로 하기도 한다. 간단한 방법으로 환경 변화에 맞추어 강의 내용만을 바꾸기도 한다.

2) 산업체와의 연계

특수대학원은 재직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교육의 주요 목적으로 하므로 산업체와의 연계 강화와 교육의 현장적응력 강화, 직무능력개발의 강화가 중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산업체의 수요 조사나 학생의 요구 반영은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과정 개발은 교육 수요자인 산업체와 학생들의 요구를 잘 반영하여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인문사회과학계열의 특수대학원 학생들은 대부분이 재직자들이고 나름대로 각자의 직업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현장실무자들이어서 현장실습에 대한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분야별 특성에 따라서 공학대학원, 산업(기업)대학원 등의 공학계열, 행정대학원, 보건대학원 등에서는 현장실습 실시 등 산학협력 교육의 필요성이 강하다. 대부분 학생들의 직업 분야와 대학

원 전공의 상관성이 높으며 현장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다.

산업체는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가 낮아 재직자들의 교육훈련 장소로 대학 교육을 선택하는 데에 주저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교육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수준과 차이가 매우 많다고 많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3.8%이다. 또한 기업 채용담당자들의 불만은 학교교육이 기업의 생산활동에서 요구되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84.3%로 나타나 대학교육과 산업현장과의 괴리가 자명하다(한국산업기술재단, 2006, p.177).⁴⁰⁾

<표 4-9> 학교교육과 현장의 괴리 정도

차이가 매우 많다	12.7%
차이가 많은 편이다	61.1%
보통이다	23.0%
차이가 적은 편이다	3.2%
차이가 매우 적다	0.0%

자료: 이태식 외(2004).

다양한 직업의 세계에 종사하게 될 인력을 배출하는 대학의 교과과정이 현장 중심의 내용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육은 이론과 현장이 분리되어 있다. 또한 대학에서 공급되는 인력은 주로 일반적 숙련(General Skill)에 기반을 둔 범용인력이 주를 이루고 있어 대기업에서는 실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산업 특수적 숙련인력(Industry Specific Skill)을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형성·축적하는 경향이다(채창균 외, 2005).

40) 윤대희·한경희(2004)의 연구에서도 대학교육에서 실습 및 현장적응력의 중요성이 4.40/5.0인 것에 비해 대학교육을 통하여 성취한 정도는 3.14/5.0에 불과하여 -1.26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윤대희·한경희(2004).

나. 교수진 구성

1) 외부강사의 비율

특수대학원 전담 교수진이 구성되어 있는 곳은 많지 않다. 학부와 일반대학원 교수진이 특수대학원 교수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수대학원 강의는 대부분 야간강의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특수대학원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인센티브가 작거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교수들의 사기진작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교수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에 호소하여 야간강의를 지탱해 나가기도 하지만 교수들의 열정이 장기간 가능하기 위하여 경제적 혹은 다른 방법으로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학생들은 대학원 선택 시 해당 대학 교수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특수대학원에는 자체 교수가 확보되지 않아 막상 입학하여 보면 강의시간에 외부 강사의 수업을 듣게 되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도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80% 정도가 외부강사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의 불만사항이 되고 있다.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원에서는 강의를 외부강사에게 의존하는 비중이 비수도권 대학원들에 비하여 작은 편이다.

특수대학원은 내부 교수진과 외부 강사로 구성되는데 내부강사와 외부강사의 비율은 학교마다 다양하다. 전공 분야별로 현장 전문가의 필요성 정도가 상이하지만 특수대학원 학생들 중에는 현장 전문가들이 많은 편이어서 외부 강사나 겸임교수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 실무에 밝고 전문성이 높은 인사를 섭외하는 경향이다. 한편 기업체 현장 실무 전문성이 높아 초빙하고자 하는 인사의 경우 바빠서 강의를 맡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외부강사인 경우에도 특수대학원에서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현장 실무전문가의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은 호의적인 태도를 갖게되고 만족도도 높았다.

2) 상담 및 학업지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직무능력향상 등 자신의 학업 목표와 자발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의지를 가지고 입학한 성인들이기 때문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교수와 동료들과의 학업에 대한 논의도 필요로 한다. 학생들에게는 진로에 대한 상담보다 학업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나 특수대학원은 주로 야간 수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수들과의 상담 시간이 부족하고 개별지도가 이루어지기 열악한 상황이다. 대체로 진로는 학생들이 스스로 개척하고 개발해 나가지만 코스워크 이나 졸업논문에 대한 지도를 받기 위하여 학업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에 교수를 만나야 하므로 쉽지 않다. 주기적으로 교수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진로와 학업의 문제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시설 및 연구여건

대부분의 특수대학원에서는 자체 건물이 확보되지 않으며 사용 공간이 절대 부족하다. 강의 공간이 협소하여 매 학기 강의실 건물이 변경되기도 한다. 단독 건물을 확보하지 않고 운영되는 특수대학원의 야간 수업은 보통 밤 10시 정도 까지 수업이 진행되므로 시설이 열악한 대학의 경우 특정 시간대에 수업이 집중되어 수업 공간 배정이 어렵거나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을 겪기도 한다. 첨단시설을 갖춘 지방의 C대학 특수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의 경우에도 야간 시설을 관리할 역량이 부족하여 야간 개방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즉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 늦은 시간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 조명, 수업 자료, 냉난방 등을 조달하고 관리할 서비스 역량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수대학원은 또한 학생들의 연구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수업이 대부분 야간에 이루어져 연구실 활용도가 저조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다. 학생들은 연구실이 필요할 때 대신에 원우회실을 이용하거나 세미나실, 강의실을 예약해서 이용하기도 하고 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하기도 한다. 원우회실은 주로 원우회 임원들의 모임 장소이어서 공부하기에 부적절하며 대체로 수업이 야간에 있는 특수대학원 학생들에게는 도서관 시간도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대로 되어 있어 불편과 불만이 크다.

시설 및 기자재도 학부와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실험실습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주간과 야간 과정이 함께 사용하는 실습기자재는 노후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 H대학 산업대학원 학생들은 강의 시설 및 기자재 여건이 열악하여 대학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예체능계열이나 이공계열에서는 실기연습, 실험실습 등을 위한 실습공간이나 작업실이 필수적이다. 학부의 시설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계열이나 인문계열보다는 자연계열이나 예체능계열이 연구 공간이나 실습 공간 등이 필수적이어서 가능한 상황에서는 우선 배정되기도 한다.

전공 계열을 막론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논문을 작성하거나 임용고시 준비를 위해 대학원 학생들의 학업을 위한 연구공간은 필수적이다. 대학원 차원에서 학생들을 위한 학습 공간을 확보하는 일에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라. 학사운영

1) 자격증 관련

일부 전공에서는 자격증이 수여된다. 예를 들면, 교육대학원에서는 2급 정교사자격증, 사회복지대학원에서는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수여된다. 교육대학원에는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많아 재교육, 계속교육의 기능과 더불어 양성교육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선행학습 인정과 학점교류

특수대학원의 편입은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지만 대부분의 특수대학원에는 편입제도가 없으며 선행학습이나 타대학 취득학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규정에 편입을 인정하고 있는 일부대학원에서도 실제 편입생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체로 학교 내 타전공 취득학점은 인정되고 있다. 학교에 따라 규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학 내 특수대학원끼리는 학점이 인정되고 일반대학원에서 3학점에 한하여 한 과목 이수를 인정한다. 반대로 일반대학원에서는 특수대학원 과목 이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편입을 하였거나 타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대학원도 있으며 기타 선행학습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부 대학원에서는 기 취득학점에 대한 인정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곳도 있다. 수도권 Y대학 보건대학원은 선행학습이나 타대학 취득 학점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신입학을 하더라도 같은 보건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해 준다. 수도권 K대학 공학대학원에는 학칙에 편입학을 인정하고 편입학자의 학점인정 내용을 규정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기득학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6학점 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수업 연한을 1학기 단축할 수 있다. 교육대학원 교사자격증 취득과정 학생들은 학부에서 기본 이수과목과 교직과목으로 취득한 학점이 있는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특수대학원은 타대학이나 타전공과의 학점 교류제도가 거의 없거나 미약하다. 성인들의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수대학원에서 선행학습이 인정되지 않는 점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대학원 간의 학점 교류를 통하여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를 확립하고 성인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향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주말수업

특수대학원 수업은 대부분 주중에 주 2-3일간 야간에 실시된다. 주중에 시간

이 부족하거나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일부 대학원에서는 직장인인 학생들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주말에 수업을 하기도 한다. 보강수업이나 시험 등도 비교적 모두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주말에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N 대학 아동복지대학원에서는 아동상담과목을 주말 수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마. 사이버 강의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어서 학업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는 특수대학원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하면 사이버 강의가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면담대상자들의 의견을 타진하였다. 사이버 강의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직장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므로 시간이 부족하여 사이버강의 개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사이버강의를 실시하면 학업이 수월해지는 측면도 있는 반면에 교수와 학생들이 면대 면으로 학습함으로써 학습 현장에서 배우는 것을 놓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전공 분야의 학문적 특성에 따라서 토론식 강의가 효과적이기도 하며 실습위주의 학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대면 교육이 효과적이다. 수업 참여, 학습의 질적 담보, 인적 교류, 네트워킹 소홀 등 우려의 의견도 많이 있었으며 학위 납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들은 사이버강의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은 것으로 요약된다. 실제 비수도권 특수대학원에는 사이버 강의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사이버 강의가 필수인 대학원도 있다. 사이버 강의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서 더 활성화되어 환영받고 있다.

특수대학원의 사이버강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수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재직자인 학생들의 등교부담을 경감한다는 측면에서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등교 부담이 줄어들면, 강의 개설에도 여유가 생겨서 교육과정이 다양해질 수 있다. 그러나 학교의 비용 지원과 시간 투자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바. 행정서비스

특수대학원 학사 운영에 대하여 교수들도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 많다. 학생들은 학업문제를 제외하고는 대학원 학업 절차와 제반 사항, 학사운영 등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위하여 행정직원과 교류를 많이한다. 특히 야간수업을 하는 특수대학원 학생들은 시간적 제약 등으로 행정실과의 교류가 잦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학교별로 차이가 크다. 행정 직원은 임시직들이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인력이 부족하여 야간에는 행정 직원이 없어서 학생들이 불편을 겪기도 한다. 학생들은 행정직원들의 권위적이고 불친절한 태도를 많이 지적하였다. S 대학원 학생의 면담 내용에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교수님보다 과장님이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지적하였다. 학생들은 교육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으며 오히려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입장인데 행정직원들은 조심스럽다는 표현을 하였다.

사. 자율적 학습모임

학생 개인마다 추구하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학업에 대한 열의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업에 열성적인 편이며 학생들끼리 자유스럽게 학술동아리, 스터디그룹, 연구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한다. 이를 통하여 지식의 연마와 친목을 도모하는 기회가 된다.

4. 산출적 요인 분석

가. 졸업 논문

졸업논문 운영에 관해서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 졸업 논문 작성 및 통과가 의무적인 대학원도 있고, 대학원에 따라서는 논문 대신에 논문대체 이수과목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졸업논문 작성 제출은 각 대학원의 방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논문을 필수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학점이 일정 성적(3.0-3.5점) 이상이 되면 논문작성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대학원도 있다. 또한 논문 대신에 '현장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학과에 따라서는 작품 전시로 대체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제작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학생들은 졸업논문을 쓰거나 대체 과목 이수를 선택할 수 있다. 논문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논문을 직무와 관련된 주제로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며, 직무능력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논문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논문을 선택하는 학생들 중에는 향후 박사과정으로 진학하거나 강단에 설 것에 대비하여 석사논문을 작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논문 지도와 작성에 대한 여건의 문제도 있다. 특수대학원 학생들은 학업과 직장 일을 병행하고 대학원 수업이 있는 날 야간에 짧은 틈을 내어 논문 지도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 논문의 질적 충실성을 기대하기에는 어렵다는 애로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 대학원에서는 졸업 논문 작성 절차를 내실화하기 위한 장치로 통계전담 조교를 두고, 4학기에 개인과제를 연구한 후, 2주 출석하여 지도교수와 면담을 거쳐 논문 작성을 시작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5학기 이상은 논문작성만 지도한다.

특수대학원에도 전공 특성에 따라서는 논문 작성이 필요하다. 코스워크를 마친 후 종합시험을 통과하면 논문을 작성하는 단계로 들어간다. 두 과목에 해당하는 논문 대체 학점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무능력 개발을 중시하여 논문 작성보다 실무와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여 논문을 대체하기도 한다. 특히 논문 작성 대신 6학점을 추가 이수하는 학생이 많아지고 있다. 초창기에는 논문을 거의 의무적으로 작성하였으나, 최근에는 학생들이 편의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논문작성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석사학위 논문 작성법을 학습하고 논문지도가 충실하게 운영되기 위하여 논문의 주제발굴과 논문작성 연구방법 등 관련 강의들이 개설될 필요가 있다. 실제 재직자들이 대부분인 특수대학원에서 30학점 중에 논문 작성과 관련된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특수대학원 학생들이 졸업시 논문을 작성할 필요성이 인정되기도 하지만 논문의 질관리가 어려운 실정이고 특수대학원의 목적상 재직자의 실무능력을 양성하고 재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학문을 추구하는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논문 작성을 의무화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나. 취업 및 진학

1) 졸업 후 취업

특수대학원 학생들은 입학 시부터 대부분이 재직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수대학원 내에서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는다. 교육대학원의 경우에는 현직 교원들도 많지만 교사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입학하였거나 임용고시에 지원하는 학생들도 많다. 또한 대학원 차원에서는 졸업자들의 취업현황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는 것도 쉽지 않아 대부분 취업 현황을 수집하거나 정리하지 않는다. 졸업자들의 추수관리도 수행되지 않는다.

졸업자들의 상당수는 이직을 전제로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보다는 현직을 유지하면서 능력을 향상하려는 의도를 가진 학생이 더 많다.

2) 진학

수도권 특수대학원에는 박사과정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비율이 특수대학원 학생 중에서 50% 정도 되지만 박사과정이 특수대학원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일반대학원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특수대학원 석사과정과 연결하여 박사과정에 입학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박사과정 입학 시도를 하는 졸업자들의 경우에도 실제로 진학에 성공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다. 학생 만족도

1) 교육에 대한 만족도

학생들은 특수대학원 교육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직무능력과 관련된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다. 행정대학원에서는 국가고시에 필요한 과목과 현실행정에 필요한 과목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2) 졸업 후 직무능력향상

특수대학원을 졸업한 후 상승된 학력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대부분은 직장 내 승진, 배치, 보수 등 직접적인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나 회사에 따라서는 본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미미한 수준이나마 보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수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들도 많다. 특히 교사들이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후에는 승진의 혜택이 있는 편이다.

라. 정부의 평가와 지원

특수대학원에 대한 별도의 정부의 평가와 지원은 없다. 대학평가는 대학 전체에 대한 평가로 수행되며 특수대학원은 그 중의 일부로 평가되거나 학부 평가만 분리하여 수행되기도 한다. 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교육통계를 조사할 때 대학 평가 차원에서 특수대학원이 포함되는 정도이다. 특수대학원은 학술적인 교육의 측면보다는 성인과 직장인의 자기 개발을 위한 계속교육을 담당하여 정부의 개입이 무척 미미하며 시장의 논리에 맡기고 있다. 평가가 이루어지는 학교들도 있으나 평가를 통해 특별히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이나 폐쇄 등 제재조치에 해당하는 페널티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이다.

제4절 특수대학원 운영상의 문제점

다양한 분야의 고급실무인력을 양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대학원이 대학의 수익성을 위한 기능을 한다는 지적이 있다. 특수대학원의 학생 수는 학부나 일반대학원 입학정원보다 크게 증가해 왔지만 빈약한 교수진, 열악한 학생 서비스, 부실한 학사관리와 학생복지 등에 대한 불만이 늘어가고 있다. 대학 졸업 학력의 성인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대학원 수준의 평생학습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대학원의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된 특수대학원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적 요인

가. 설립의 용이함과 질관리 체제의 부재

우리 사회에서 고학력을 추구하는 국민적 정서와 지식기반사회의 특성이 맞물려 특수대학원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특수대학원 설립은 비교적 용이하지만 설립 후 별도의 기관평가나 인증제 등이 부재하여 특수대학원이 난립과 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특수대학원의 목적은 직업인 또는 성인의 계속교육이고 work-to-school 관점에서 성인학습의 주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졸업 후 일반대학원의 박사과정 진입에 유용되는 상황에서 설립의 용이성과 질관리체제의 부재는 특수대학원 학과를 비정상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고 교육의 질적 저하도 우려될 만한 상황이다.

나. 정부와 대학 당국의 인식부족

대학 당국의 특수대학원의 발전에 대한 무관심으로 대학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교수의 질적 수준도 저조한 상태이다. 대학원은 대학 당국으로부터 예산을 배정받는 관계이어서 독자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며 자체적인 향상 발전을 도모하기 힘든 실정이다. 국가의 정책도 학부 수준의 대학에 집중되어 있어 대학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또한 특수대학원은 기능과 역할의 모호성으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사회적 기여도도 높지 않았다. 오히려 고급 학위를 남발한다는 비난과 학벌세탁을 위한 기관이라는 오명으로 인식되었다.

2. 투입요인

가. 등록금에 비하여 혜택이 부족하다.

수도권 특수대학원의 경우 일반대학원보다 학생들의 등록금이 더 비싼 경우가 많다. 이 등록금은 대학 본부에서 관리하며 특수대학원에 재정을 할당해준다. 특수대학원은 학부의 건물, 시설, 기자재를 공동으로 활용하므로 운영 예산은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대학 내에서도 특수대학원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특수대학원 자체 예산은 부족하다. 학생들의 워크숍 등 행사 지원 비용, 장학금, 홈페이지 개편 비용,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용 등의 교육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수대학원에서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이 장학금과 등록금 규모와 행정서비스 문제 등인데 그 중에서도 장학금과 등록금에 대하여 학생들은 더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되기를 기대하는 경향이다.

나. 장학금의 혜택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장학금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수대학원 학생들이 장학금을 취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직장인이라는 이유로 장학생 수가 평균 10~20% 정도에 불과하고 액수도 작다. 등록금 액수에 비하면 현재 지급되고 있는 장학금 액수나 학비 감면 액수는 매우 부족하다. 교외장학금과 교내 장학금이 더 많이 확보되고 증액되어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 큰 액수의 장학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학금 지급에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성적 장학금, 교사 장학금 등 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학원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하여 학생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장학금 액수의 규모 확대와 더불어 체계적 지급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 특수대학원 교육환경에 대한 대학의 인식이 부족하다.

대학 본부는 특수대학원을 취지에 적합한 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려는 의지보다는 학생 등록금으로부터의 수익성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학부 건물과 학부에 확보된 전임교수를 활용하여 특수대학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수대학원의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인식이 부족하며 투자를 통하여 발전된 교육기관으로 만들려는 계획에 대한 적극적 자세가 부족하다.

3. 과정적 요인

가. 특수대학원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이 부족하다.

특수대학원은 일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과는 설립 취지와 교육의 목적이

다르다. 성인과 직장인들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용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계속교육, 평생교육 차원의 교육과정으로 특성화되어야 한다. 이론교육 뿐만 아니라 실무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이론 중심의 교육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강하며 개설되는 과목도 일반대학원과 차별화가 어렵다. 직무 중심의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실험실습 등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여 학부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대학원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대학원 별 수요공급의 불균형, 기능과 역할의 모호성으로 인해 현재 대학원체제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사회적 기여도도 높지 않다.

실제 특수대학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특수대학원 자체의 고유한 커리큘럼이 부재하다.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기능 분화가 미흡하며 중복되는 교육과정이 많고, 대학원 역할에 따른 교육과정의 적합성이 미흡하다. 대부분의 커리큘럼이 일반대학원과 크게 다르지 않아 특수대학원 교육의 특색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 대학원 차원에서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새로운 시도가 부족하고 프로그램의 특성화와 다양화를 위한 노력도 절대적으로 미흡한 형편이다.

특수대학원은 성인 또는 직업인의 재교육과 직업지향교육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직업지향교육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즉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서 일반대학원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이 부족하며, 입학 및 졸업요건, 학사관리 등 학사 운영 면에서도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점차 고급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임에도 특수대학원의 기능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수도 많고 종류도 많은 특수대학원은 자체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이 부재한 상태에서 백화점식 전공 난립, 한정된 학생 수요, 제한된 교수 인력, 열악한 시설, 경쟁적 운영 등의 발전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문성 있는 평생직업 교육기관으로 발전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많은 경우 학장이 특수대학원장을 겸하고 있으므로 특수대학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준 높은 정책을 구상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현행 체제에서 대학의 행정이 학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특수대학원에 대한 책임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나. 전임교수가 부족하다.

특수대학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수진의 부족, 교육 조건의 미흡, 교육 과정 운영의 부실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특수대학원 설립 요건은 학부에 3인의 전공교수가 있는 조건이어서 특수대학원 설립은 비교적 용이하게 되고 있다. 운영에 있어서도 특수대학원 자체 전임교수 확보에 소홀하여 외부강사에게 강의를 맡기게 된다.

면담에 응했던 학생 중에는 입학 전 S대학 전공 교수님들에 대한 좋은 평가를 많이 접했던 터라 수업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전임교수님들 대부분이 학부와 일반대학원에서 수업을 하시고 특수대학원의 수업은 대부분 강사 위주로 진행되어서 아쉬운 점이 많다고 토로하였다. 또한 시간 강사의 비중이 많아서 강의의 질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외부 강사 중에는 교수급 강사가 아닌 경우도 많아 학생들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학부 교수가 특수대학원 강의를 겸임하게 되어 있고 일반대학원 강의까지 담당하는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교수들이 학부 강의와 일반대학원 강의에 더욱 치중하게 되며 특수대학원 강의에는 소홀해 질 우려가 있다. 또한 전임교수인 경우에도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맡기도 한다. 강의를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수들이 선호하지 않아 강사로 대체하게 되지만 강사도 해당 전공자를 찾기는 쉽지 않다.

다. 야간수업을 담당하는 교수들에 대한 보상체제가 미흡하다.

교수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되어야 한다. 특수대학원 교수들은 대체로 학부 수업과 일반대학원 수업 그리고 특수대학원 수업을 모두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특수대학원 수업은 야간이어서 교수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므로 야간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들에게는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 선발시에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선발 후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개인차가 커서 강의의 수준을 조정해야 하는 등 교수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수업시간에 토론 참여 준비가 성실하지 않아 교수 강의 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또한 networking, 직무능력 향상, 학위 취득, 학문추구 등 무척 다양한 학생들의 교육의 목적에 대한 요구를 최대한 만족시키면서 수업을 이끌고 나가는 것도 교수들의 몫이다. 학위 취득에만 연연하기도 하고, 직장 업무 때문에 과제 이행이 부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학생도 있다.

라. 학사관리가 부실하다.

학생들의 수강과목은 대학원 측에서 제시하는 강의시간표에 대체로 의존한다. 학생 대부분이 직장인이기 때문에 결석도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학교에서는 통제나 제재 방법이 별로 없다. 대학원에서는 출결상황과 관계없이 시험이나 레포트로 학점을 주고 있다. 행정대학원이나 언론대학원의 경우 대학원생 대부분이 간부 공무원, 군장교, 언론인들이어서 직업적 특성상 수업 분위기가 부실해지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신입생 유치 경쟁이 벌어지면서 교수들은 정책적으로 좋은 학점을 주어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유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대학원 교학과에서도 학생들에게 어렵지 않게 졸업이 가능하도록 교수진과 강사들에게 학생들의 편의를 봐 줄 것을 종용하고 있다.

종합시험을 형식적으로 치른 뒤에 논문만 제출하면 큰 어려움 없이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어 학사관리의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마. 어학능력 증진제도가 취약하다.

특수대학원 학생들은 대학원 입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업 의욕이 있음에도 대학원 졸업에 필수 요건인 어학 수준이 다소 낮은 현실이다. 이는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직장 일에 몰두하여 어학 실력을 향상시킬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수대학원에서는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직업능력 중에서 어학 능력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어학시험이 있지만 시험 통과하기 식으로 지나가고 나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할 뿐 실제 학생들의 어학실력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학능력이 졸업에 필수요건이고 어학 실력이 필수인 시대적 상황에서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대학원에서는 어학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지 않으므로 전공과 무관하게 어학 공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바. 학생들을 위한 연구시설이 부족하다.

학생들의 연구환경이 열악하며 야간의 특정 시간대에 수업이 집중되어 다양한 학습활동에 한계가 있다. 대학원생 연구실, 컴퓨터실, 실습실, 세미나실 등 학업에 필요한 시설이 미흡한데도 대학 본부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이다. 학생들이 비교적 시간을 낼 수 있는 토요일 일요일 등 주말과 주중에 등교하여 학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구 공간과 시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도서관 이용시간도 야간수업을 하는 특수대학원생들에게는 불리하게 짜여져 있다.

사. 행정서비스가 미흡하다.

특수대학원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부족하여 야간에 등교하는 학생들에게는 제공되는 서비스가 제한되어 불편을 겪게 된다. 또한 행정직원들의 행정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하여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도 친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적극적 재정지원과 더불어 학교 당국이 친절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인식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4. 산출 요인

가. 졸업 논문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다.

졸업제도가 합리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 현재 특수대학원의 졸업이수 학점 30학점은 논문을 쓰거나, 현장보고서로 대체하거나, 졸업작품 발표로 대신하는 경우 코스워크로 24학점을 이수하면 되므로 논문을 6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특수대학원 학생들은 각자의 결정에 의하여 선택한다.

논문 작성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논문지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논문이 작성되므로 질적인 수준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논문주제 선정 단계부터 계획서 작성, 자료조사 및 연구방법론 채택 등에 실질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코스워크 중에는 이러한 연구방법론에 관한 과목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실한 졸업 논문을 대신하여 직장인들에게 더욱 현장지향적이고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주기에 적합한 대체 수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나. 특수대학원 교육 평가 부재

출석체크와 강의계획서 배포 및 계획은 대학원마다 기본 수칙으로 준수되고 있고 강의 종료시에 실시하는 강의 평가도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학원 교육의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의견 조사는 거의 수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특수대학원에 대한 기관평가나 프로그램 평가 등은 수행되지 않고 있다. 특수대학원은 설립준칙주의에 의하여 설립이 용이하고 학생들의 석사학위 취득이 용이하게 운영되는 상황이어서 특수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가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가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 특수대학원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평가가 필요하다. 현재 대학평가는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나 특수대학원에 대한 평가가 부재한 실정이다.

제5장 고등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특수대학원 개선방안

정지선 · 이남철 · 이기성

대졸 학력의 성인이나 재직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특수대학원의 역할이다. 특수대학원을 비롯한 대학원 단계에 대한 학습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는 대학원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각각의 기능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 특수대학원만의 특성이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생직업의 시대에서 계속교육에 대한 성인과 근로자들의 학습수요는 증가할 것이고, 고령화 사회의 전개는 특수대학원 학습대상자의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고학력 사회에서 대학원의 문호는 대졸 학력의 성인들을 위하여 더욱 개방되어야 한다. 특수대학원이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갖추어 나가기 위하여 정부와 대학 당국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앞에서 분석된 현황과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면담조사와 외국의 사례 분석에서 도출된 시사점 등을 바탕으로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한 후 전문가협의회에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도출하였다.

특수대학원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대학원 수준의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들은 크게 특수대학원이 성인학습대학원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 정부의 특수대학원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특수대학원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내실화 방안, 그리고 work-to-school 내실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으로 대분하였다. 세부 개선방안들은 1~2년 정도의 기간 내에 추진해야 할 단기적 방안과 3~10년 정도의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야 할 방안으로 분류하고 주체별로 정부와 대학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나누어 논의하였다.

제1절 성인학습대학원으로서의 발전방안

1. 단기적 방안

가. 정부 차원의 과제

1) 특수대학원 교육의 목적 및 기능 재구축

국가적 차원에서 대학원 유형별 기능과 특성을 정립하고 그에 따라 특수대학원의 교육이념과 목적을 정리하여 대학원 유형별 기능 조정과 발전 방향을 명시해 주어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의 유형을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기술인력양성대학 등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별 특성화를 추진한다고 볼 때, 특수대학원 교육은 지식기반사회의 인력수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특수대학원은 성인과 재직자의 재교육과 계속교육에 중점을 두어 현장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본질적 기능이다. 성인들의 평생학습을 위한 성인학습대학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교육과정도 성인과 재직자 중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적인 내용으로 개편하여 전문성을 높이면서 일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과는 차별화되는 대학원 수준의 평생학습기관으로 고유영역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인력 수준별·산업 분야별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성인 중심 교육의 특성을 체계화하여 정체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고학력 성인들과 재직자들의 학습수요에 부응하는 work-to-school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인구의 증가로 향후 특수대학원에서 수용해야 할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고학력화 되는 우리 사회에서 특수대학원 교육은 수요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2) 특성화와 다양화를 통한 성인학습 수요 부응

특수대학원 교육은 특성화와 다양화를 병행하여 보다 많은 성인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과 특성화된 전공 분야를 개발하여 넓은 범위의 학습수요자를 위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대학 본부에서 특수대학원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타 대학원과 구별될 수 있는 특성을 명확히 가질 수 있도록 개편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시장경쟁의 원리에 의해 비교우위 분야를 개발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생 선발과 양성부터 학사관리, 교수 충원, 연구시설 확충, 교육과정 개발 등 각 특수대학원의 특성을 강화하는 일련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장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특수대학원의 인프라 구축에 재정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과 기타 프로그램 개발, 시설과 설비 등도 특수대학원의 설립 취지에 적합하게 마련되어야 하며, 독립건물을 확보하여 교육기관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여가야 할 것이다.

특수대학원 학생들은 현장 경력이 있는 재직자들이 대부분이지만 부분적으로는 현장경험이 없는 학생들도 있고 노동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양성교육을 목표로 입학한 학생들도 있다. 양성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더욱 현장 중심의 교육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즉 양성교육과정과 계속교육과정의 프로그램을 차별화하여 제작하고 운영해야 한다.

한 예로 교육대학원의 경우 자격증 취득을 위한 양성과정과 현직교사들의 재교육과정의 두 가지 그룹의 학습 수요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각각 자신의 목적에 적합한 교육과정이 집중적으로 실시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두 가지 성격의 수업이 혼재된 것에 불만을 가진다. 학습의 효율화를 위하여 교육대학원 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원화하여 각각의 목적에 적합한 학습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대학원 차원의 과제

1) 시간제 학생제도와 학점제도 도입

다양한 연령층의 평생학습 수요를 흡수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특수대학원 교육을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Part-Time) 학습으로도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특수대학원은 대부분의 학생이 주 2~3일 수업으로 4학기, 혹은 5학기 정도에 졸업하는 과정으로 굳어져 왔다. 졸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전공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이 4-5학기 졸업제이며, 의무 취득 학점 수는 24-30 학점이다. 특수대학원은 기본적으로 4학기 졸업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간제 학생(Part-Timer)의 개념이 없다.

그러나 학생의 진로계획과 사정을 고려하여 졸업장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아니라면 졸업 학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성인과 재직자들의 필요에 따라 개인적 여건에 적절하고 유연하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대학 학령인구 위주로 폐쇄적인 학제 구조로 운영되는 고등교육체제를 개방하여 성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학위와 직업자격이 연계되는 개방형 고등교육체제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대학원 수준의 평생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졸업 조건을 수업연한 중심에서 학점 중심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즉 기간과 무관하게 일정 학점을 충족하면 졸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시간제 학생을 허용하는 것이 평생학습의 취지에 더욱 부합한다.

재직자들은 시간제(Part-Time) 학습의 이점을 활용하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재직자들이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회사의 업무로드를 감안한 학점제를 바탕으로 한 시간제 학습제도가 시급히 활성화되고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합리적인 입학전형 정립

특수대학원 선발은 지원자들의 전문 분야 현장 경험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자들의 실제적인 경험과 다양한 능력을 반영하는 데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현장 경험에 바탕을 둔 특별전형 선발을 확대하여 능력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함과 동시에 지원자들의 부담을 줄여 나가야 한다.

특수대학원의 기능이 재직자와 성인들에게 고등교육 수준의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입학전형에서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과 전공과의 연계성, 진로계획과 학습계획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부성적이나 필기시험 등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는 일반전형보다는 재직 경력, 전공과의 연관성, 진로계획, 학업에 대한 의지 등을 평가할 수 있고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면접 중심의 특별전형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2. 중장기적 방안

가. 정부 차원의 과제

1) 모듈식 자격증과정 개설

특수대학원이 평생 성인교육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대학졸업 학력자를 대상으로 학습수요를 파악하는 일이 우선시된 후 특수대학원의 학습 수

요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수대학원이 이제까지 석사학위과정 제공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해 온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과정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성인과 직장인들이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격증 과정도 개설하여 학습자들이 학위과정 외에도 단기 자격증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자격증 과정은 또한 모듈식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 단위의 모듈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른 단위의 모듈을 이수하여 다른 자격증을 또 취득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일정 학점이 누적되면 학위 수여가 가능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단기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내용상 직무 단위 중심의 과정이면서, 전체적으로는 하나로 연결되는 유기적 과정으로 구성할 수 있는 모듈식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나. 대학원 차원의 과제

1) 선행경험학습 인증체제 도입

재직자 및 성인학습자의 전문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학습과정이 되기 위하여 선행학습과 경험학습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특수대학원에서 교육을 시작하기 이전 시점까지의 경험학습과 선행학습에 대한 인정을 기반으로 입학과 교육과정을 선택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경험 인증제도가 원활히 작동되면 대학원 수준의 학습 수요자의 요구에 수월하게 부응하여, 직업의 세계에서 재교육을 받기 위하여 교육기관을 찾아오는 성인들의 work-to-school 체제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행을 촉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입학전형 절차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제2절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방안

1. 단기적 방안

가. 정부 차원의 과제

1) 국가의 종합적 발전계획 수립

급변하는 직업세계에서 성인과 직장인들이 역량을 강화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서의 커리어를 추구할 수 있도록 변화해 나가야 한다. 우선 거시적이고 장기적 안목에서 특수대학원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 발전계획(master plan)을 수립해야 한다. 평생직업의 시대적·사회적 변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특수대학원 체제의 패러다임을 새로이 구성해 나가야 한다. 교육시장의 논리에 적합한 자유 경쟁의 원칙과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적용되는 지원정책을 포괄하는 국가적 차원의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한다. 마스터 플랜에 따라 실무 전문가로서의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들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2) 표준교육비 산정에 근거한 재정지원

특수대학원의 발전을 위하여 대학 차원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특수대학원 자체의 발전계획을 마련하여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수대학원의 주요 수입원은 학생 등록금이고 그 중의 일부를 대학원 운영비로 사용하게 된다. 학생 수가 늘어나면 대학의 수입은 증가하게 되지만 특수대학원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지불하면서도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대학원 교육을 받는 상황이다.

특수대학원 등록금이 대학 수익사업의 주요 수입원이 된다는 명제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부담하는 금액과 비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

어야 한다. 향후 고령층을 포함한 모든 성인의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정립하여야 하며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재직자들의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어 본래의 취지에 적합한 교육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과 설비 투자, 장학금 지급, 교강사 비용, 학생 활동비 등 다양한 항목의 소요예산이 적절히 지출되어 서비스 없는 권위적 교육, 부실한 교육시설 등이 해소되어야 한다.

대학 내의 구조적 모순은 특수대학원 질적 개선에 중요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부 교육에는 상당한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으나 대학원 발전을 위한 노력은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미흡한 실정이다. 우선적으로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원을 상대로 한 정부의 재정 지원사업도 주로 일반대학원 중심이고 특수대학원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은 생성되지 않는다.

특수대학원은 전공 분야별로 학습의 유형이 다양하여 교육비 소요 규모도 다양하다.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전공별 표준교육비를 산정하도록 한다. 책정된 표준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대학 본부로부터의 예산 증액과 더불어 특수대학원은 다양한 루트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재정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체의 기부금, 찬조금, 자체수입 등도 특수대학원의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소스로 활용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2. 중장기적 방안

가. 정부 차원의 과제

1)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방안 마련

특수대학원은 학습수요가 많아 기관 수, 학생 수가 일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보다 많다. 또한 특수대학원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직업이 전문화, 세분화,

다양화되면서 특수대학원 분야도 다양하게 세분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전문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품질 관리가 뒤따르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대학에서는 수입원으로 간주하여 학생 수 증원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학생들도 강의의 질보다 학위취득에 연연하는 문제점들이 중첩되어 있다.

특수대학원이 양적으로 우세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이제 양적인 발전과 더불어 질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경쟁력있고 우수한 특수대학원에 학생들이 집중되는 시장의 논리에 기반을 두고 운영 및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대학 본부 차원의 평가와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특수대학원은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며 평가대상도 아니어서 대학평가의 일부로 간주되는 정도였다. 이제는 특수대학원을 독립된 교육기관으로서 평가하고 재정도 지원되어야 한다. 대학원의 질적 개선을 위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여 대학원의 자율적인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대학이나 일반대학원처럼 정부 혹은 고등교육평가원⁴¹⁾(가칭)처럼 공신력 있는 기관에 평가를 위탁하여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를 실시하면 좋은 대학원에 우수한 학생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대학원에서도 학생유치와 대외적 명성을 위해 질 관리 노력을 경주하게 될 것이다. 교수진 구성의 합리성, 장학금 지급 비율, 행정 서비스 수준, 교육과정의 적절성 등 공통적으로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내용들을 포함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수가 개별 강좌에 대하여 실시하는 학생들의 강의 평가가 아니라, 대학원 교육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대학원 차원에서 학기별로 실시하여 개선방안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평가는 재정 지원을 위한 기준과 범위를 판단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대학원이 자체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면서 평가결과를

41) 대학과 대학원의 평가 기능을 담당하는 고등교육평가원의 설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고등교육평가원에서는 대학원의 발전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교과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생성하는 제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전계획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특수대학원에 대한 평가기능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하여 특수대학원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 사전적 규제 최소화과 사후 평가의 강화 차원에서 대학원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수대학원 교육 운영 상의 평가를 통하여 질 관리를 해 나가고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특수대학원만의 고유영역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2) 대학원 간 협력체제 구축

특수대학원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원 간에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질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대학원 간의 역할 분담, 상호 경쟁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상호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특수대학원의 특성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전국의 특수대학원이 상호 간에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대학원 간 병행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대학원 연계 학점 교류와 인정, 공동학위제도 확산, 다양한 학위과정 운영 등의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원 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유인책을 정부가 마련하여 리드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진학희망자에 대한 장기적 대책

특수대학원 과정은 석사학위 과정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 대부분이 직장인으로 구성된 학생들은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친 후 박사학위 과정으로의 진학을 희망하지만 특수대학원에는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되지 않아 진학의 꿈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박사학위 과정은 보통 일반대학원에 설치되어 있는데 유형이 다른 특수대학원 졸업자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으로 진학하기는 매우 어렵다. 주로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자들이 박사과정에 입학하고 특수대학원 졸업자들 중 일반대학원에 입학한 수는 소수에 불과하다.

특수대학원 학생들 중에서도 박사과정(학위 연계 과정) 진학을 희망하는 자가 많지만 현실 제도상 쉽지 않아 아예 포기해 버리고 잠재적 수요자로 은닉하

게 된다. 계속교육에 대한 이들의 학습의지를 지켜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성인학습대학원 체제가 구축되면 다양한 전공 분야의 박사과정 진학 희망 수요를 반영하여 전일제와 시간제 학습과정을 기반으로 양성과정, 향상과정, 자격증과정, 학위과정 등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특수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학문 중심의 박사학위인 Ph. D.와는 구별되는 실무 중심의 박사학위 Practical D. (가칭)가 설치·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고등교육법에 실무 중심의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특수대학원 내에 교육여건과 시설, 설비 등이 적절하게 갖추어진 곳을 선정하여 특수대학원 박사과정을 설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미국의 전문교육학박사(Ed. D.) 과정은 현직 교사, 카운슬러, 교육행정가, 교과전문가 등 교육현장 종사자들이 자신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입학하는 대학원 과정이다.

다만 박사과정의 특수대학원 설립은 설립 준칙주의에 의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되, 준칙을 통과하여 설립된 후에도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설립인가를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의 질을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3절 특수대학원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내실화 방안

1. 단기적 방안

가. 대학원 차원의 과제

1) 현장지향적 교육과정 개발

직업세계의 분화와 전문화가 심화되어 가듯이 특수대학원도 재직자를 위한

평생학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일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과는 차별화되는 특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학문의 추구보다는 재직자들의 계속교육기관으로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학력을 상승시키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산업계의 니즈에 부응하는 교육이 되기 위하여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기능 활성화가 필요하다. 교육과정도 특수대학원 특성에 적합하게 현장지향적인 교육과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산업체와 대학원 간의 협약을 통한 산학협력 교육,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기업의 니즈에 맞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과정 개편 시에는 산업체, 유관기관과의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한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실용적이고 직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특수대학원 교육이 산업계의 니즈에 일치하는 고급인력을 공급하여 총량적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특수대학원 학생들이 추구하는 교육의 목적이 각 개인마다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다양한 교과목들을 개설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수강 신청할 때 자신이 추구하는 교육목표와 진로계획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교육을 추구해야 한다. 맞춤형 교육과정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입직경로의 매칭 효율을 높여 준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교육과정을 현장 중심의 내용으로 내실화하기 위하여 특수대학원과 기업의 현직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수대학원의 교육과정 개발 시에 기업의 현직교육에 대한 요구를 수렴·반영하여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기업의 현직교육을 특수대학원에서 실시하는 방안이다.

2) 어학 프로그램 강화

성인이 어학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를 위한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어학능력은 거의 모든 직업군에서 필수적 능력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는 점증하고 있다. 대부분의 재직자들은 어학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설 학원 등에서 고비용의 교육비를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어 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대학원에서 제공하여 성인근로자의 학습수요를 흡수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우선 대학에 확보되어 있는 전문 인력을 활용하면 교육의 질이 보장될 수 있어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대학원에서 학점 과목으로 개설하기 쉽지 않으면 우선적으로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대학원 학생들에게 강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3) 졸업논문의 내실화와 자율화

졸업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교수의 논문지도가 체계화되어야 한다. 졸업논문지도는 전임교수와 겸임교수가 함께 참여하도록 한다. 졸업논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졸업자 중에는 배운 것을 정리한다는 입장에서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문제를 보고 분석 정리하는 훈련을 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특수대학원 학생들은 재직자로서 야간수업을 하면서 교수로부터 논문지도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박 겉핥기식 졸업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교수로부터 논문지도를 받기 위한 학생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 지도 교수의 논문학기 학생에 대한 배려 등이 어우러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적정 수준의 학위 논문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논문 작성에 필요한 연구방법론 과목도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논문의 계획서 제출 시 자신의 현업 혹은 직무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발표를 하도록 하고 우수 논문은 포상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특수대학원 교육의 본래 취지가 학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인으로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어서 전공 특성에 따라서 논문을 작성하는 것 대신에 현장적응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과목을 더 이수하거나 실습 혹은 작품전시회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직무능력 향상에

더욱 유익할 수도 있다. 또한 질적으로 만족스러운 논문이 산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논문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체방안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논문을 작성해야만 졸업할 수 있다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자기주도적 학습을 추진하는 성인학습자들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실효성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중장기적 방안

가. 정부 차원의 과제

1)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

국제화는 외국 교육기관과의 인적·물적·프로그램의 교류를 의미하는 것이며, 글로벌 시대에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외국 대학원들과의 국제적 교류가 활발해져야 한다. 외국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외국인 학생 입학, 교환교수, 교환학생, 교육과정 공동운영, 공동 학위과정 등을 실시하여 국제적 교육기관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일부 특수대학원에서는 국제적인 교류를 시도하고 있다. S대학 문화예술대학원은 중국의 유명 대학과 교류를 시도하는 등 대학원마다 국제교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국인 학생 및 교원을 교환하고 유치하는 등 국제 교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외국인 학생의 입학은 허용되고는 있으나 아직 제도 자체가 정착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평생학습기관을 찾는 외국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파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또한 외국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외국대학과 서로의 장점을 벤치마킹하여 상호이익이 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나. 대학원 차원의 과제

1) 학위의 공신력 제고

대학원 교육의 충실화와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 학위 취득 요건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하고, 대학원 평가 인증제를 통해서 학위의 사회적 공신력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가 일반대학원의 학사학위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사회 수요와 무관하게 학위 수여를 목적으로 특수대학원의 정원 확대와 사회의 간판주의에 편승하여 학위를 남발하는 경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 전반의 고학력 추세로 교원과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대학의 위상 제고 방안과 대학 재정 보완수단으로 특수대학원을 설립 운영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더한 것이다.

제4절 Work-to-school 내실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1. 단기적 방안

가. 정부 차원의 과제

1) 장학금의 확대 및 고용보험 환급

현재 특수대학원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은 소수의 학생에게만 혜택이 가고 있어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장학금 수혜 범위의 확대에 대하여는 교수, 행정직, 재학생, 졸업자 등 면담대상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는 바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장학금 지급 액수를 대폭 확대하여 수혜의 폭을 넓혀야 한다.

또한 장학금 지급 방식도 일정 기준을 정해 놓고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지급 기준이 당시의 대학원장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행정부장의 계획에 따라 변화하여 학기마다 지급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수혜자를 대폭 늘리는 것과 동시에 장학금 지급 기준의 체계화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일부 특수대학원의 경우 장학금 수혜 액수를 높이기 위하여 학비를 높게 책정한 후, 장학금 지급액을 증액하는 경우도 있다. 또, 일인당 장학금 수혜 액수는 적지만 장학금 수혜 학생의 수를 늘려 수혜율을 조정하는 경우도 발생된다. 실제로 납입하는 학비의 규모를 고려하여 장학금 지급액과 지급률을 편법적으로 조작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학금 수혜 학생 수만으로 장학제도 운영을 평가하기보다는 적절한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고용보험제도를 활용하여 재직자들이 교육훈련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성인 근로자들이 자신의 학비를 조달해야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경우가 많다. 고용보험 기금을 활용하여 재직자들의 교육비를 보조하도록 해야 한다.

나. 대학원 차원의 과제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양적 개선

고학력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국제적 수준의 성인을 위한 대학원으로 발전하여 글로벌 교육기관으로 국내외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특수대학원이 되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성인들의 직업능력개발과 work-to-school 차원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지향적 교육과정, 산학협력, 재직자의 니즈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적절한 시설 설비 등을 갖추어나가는 등 총체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현재 학생들은 전반적인 시설, 연구실, 열람실, 행정서비스 등이 취약하여 학비에 비하여 서비스 체감이 낮다는 지

적을 하고 있다. 불친절하고 권위적인 행정서비스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야간 수업은 하나의 완성된 교육체제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야간 수업이라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한을 받거나 불편함을 감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직원들의 퇴근시간 후에도 학업에 몰두하는 특수대학원 학생들을 위하여 행정 관련 업무 시간을 1시간 정도 늦추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또한 행정인력이 학생 수에 비하여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행정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특수대학원 운영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학원을 평가할 때에 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 1인당 행정지원 인력 지표를 도출하여 이를 준수하여 행정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

2)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학생들은 학교행사나 선·후배와의 모임을 통하여 네트워킹과 단합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다. 특수대학원 학생들에게는 학구적인 분위기와 더불어 친목도모도 중요한 부분이어서 대학원 차원에서 이에 대한 인식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수와 학생간의 교류와 단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사를 지원하고, 체육대회, 사은회 등의 친목연수 등을 활성화하여 교류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교류와 단합은 특수대학원 학생들의 커리어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사회인으로서의 인맥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학생 활동은 원우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원우들이 등록금 외에 부담해야 할 금전적 지출이 늘고 있다. 대학 당국은 원우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학생들끼리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학과의 벽을 넘어 원우 간에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3) 학생 정보 DB 구축

특수대학원 학생들의 연령은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하며 30-40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학생들의 성별구성도 전공에 따라 다양하다. 한 예술대학원의 경우에는 연소자 24세부터 고령자 49세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분포되어 있다. 학생의 성별, 연령, 직업, 출신학교, 전공, 가정적 배경, 종교, 성적, 소득 규모, 졸업 후 직장 변동 등에 관련된 정보가 누적되면 통계를 통하여 학생들의 진로와 학업지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특수대학원 입학 전과 졸업 후의 변동 사항들을 분석하여 대학원에서 교육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때 주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교육기관으로(work-to-school)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다시 노동시장(school-to-work)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공 및 학위별 취업현황과 취업의 질 등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분야별 인력수급의 불일치 현상 등에 관한 분석과 이에 대한 개선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을 판단하는 데에 주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학생들의 다양한 변화와 흐름을 연구하는 자료로도 유용하여 거시적 차원의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특수대학원에서 수집하는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한 자료는 학생들의 입학과 졸업 연도 등과 관련된 내용 정도로 기초적인 수준으로 정리되고 있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대학원 등에서는 관련 자료들이 충분하게 DB화 되어 있는데 특수대학원 학생들은 대부분 재직자이기 때문에 취업현황, 학부 전공과의 일치도, 현직과 전공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자료를 DB로 구축하여, follow up하고, 전산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립대학이나 지방대학이 학생 관련 정보를 더 많이 DB로 구축하고 있다. 수도권 소재 대학원의 행정부서는 학생들에 관한 정보자료가 DB화 되어있지 않거나 기본적인 자료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비수도권 대학원에는 DB를 갖추고 있어 학생관리 면에서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정부가 대학 정보 공시제를 실시하면서 DB

작업에 노력을 기울이는 추세이다.

4) 홈페이지 및 카페 이용 활성화

특수대학원 학생들은 유사한 전문직 분야의 교우들 간의 관계 또는 교수와의 관계를 통하여 상호간 정보 교환에 도움을 얻기도 한다. 특수대학원 재학생은 직장인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직장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원하는 만큼의 시간을 학교에서 지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홈페이지와 카페 개설을 지원하여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드나들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자주 얼굴을 대하기 힘든 특수대학원 학생들과 졸업자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학업 관련 정보, 직무 관련 정보 등 상호 교류가 활발해지고 우호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2. 중장기적 방안

가. 대학원 차원의 과제

1) 대학원 독립채산제 도입

대학원이 자체적으로 발전의 드라이브를 가지고 대학원 교육의 질적 우수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특수대학원의 예산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대학 본부가 대학원을 평가하여 실적에 따라 교부금을 배분하여 주는 체제이다. 특수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자체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독립채산제를 도입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수대학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권과 재량권을 이양하여 자율책임경영제와 함께 독립채산제를 적용하여 스스로 해결하기 힘들었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독자적 운영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2) 전임교수 확보와 현장경력 강사확보

특수대학원은 대학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율적 의사결정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고유의 영역으로 발전을 추구하도록 변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반이 갖추어지면 독자적인 교수진을 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체적으로 교육기관의 형태를 완성하여 자체 교수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다.

특수대학원 교수 관련 규정은 관련학부에 3명 이상의 교수가 확보되면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학원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 수를 보유하고 있는 특수대학원에서 전임교수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은 대학원 석사과정 전체의 질적 문제인 것이다. 실제 특수대학원 학생들의 수에 비하여 전임교수의 비율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생 정원 기준 대비 전임교수 확보를 명시하여 (예를 들면, 교수 1인당 학생 수 30명) 교육의 질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한 현재 전임교수들에게 특수대학원 강의를 책임시수로 인정하고 강사의 비중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 야간 수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체계화하여 적절하게 교수진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전임교수들을 보완할 수 있는 수준의 자격과 경력을 소지한 겸임교수나 외래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의 질을 높이고 이론과 실제의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외부 강사를 섭외할 때 시간 때우기 식의 차원에서 강사를 초빙하기 보다는 해당 전공과 관련된 현장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섭외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수대학원 학생들 자체가 현장전문가들인 경우가 많으므로 직무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선별하여 운영해 나가야 한다.

3) 연구공간과 시설 확보

야간에 등교하여 수업을 하는 특수대학원 학생들에게도 마땅히 대학원생 연구실과 세미나실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비싼 등록금을 지불하고 주경야독의 노력을 하는 학생들에게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야간 수업 전후 시간과 주말, 공휴일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대학원 차원에서 이러한 연구공간 제공이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한 학교는 단기계획으로, 그렇지 않은 학교는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수대학원에서 야간수업을 하는 학생들도 자유롭게 도서관을 이용하고 자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주간 학생들보다 등록금이 더 낮은 것도 아닌데 시설활용은 주간학생들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이다. 대학에 따라서는 도서관 이용을 4학기까지만 허용하고 논문학기인 5학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학생들이 겪는 불편과 불만이 무척 크다.

도서관 자체만으로도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향후 지역사회개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관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대학원처럼 밤 시간을 활용하여 대학원 공부를 하는 학생을 위하여서도 도서관을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5절 특수대학원 개선방안의 장·단기적 주체별 분류

<표 5-1> 주체별 장·단기적 개선방안

기간	주체	개선방안
단기 (1~2년 이내)	정부	특수대학원 교육의 목적 및 기능 재정립
		종합적 발전계획 수립
		표준교육비 산정과 재정지원
		특성화와 다양화 유도
		장학금 확대 및 고용보험 환급
	대학원	시간제 학생제도 도입
		합리적인 입학전형 정립
		현장지향적 교육과정개발
		어학 프로그램 강화
		졸업 논문의 내실화와 자율화
		행정서비스의 질적 양적 개선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학생 정보 DB 구축
		홈페이지 및 카페 이용 활성화
중장기 (3~10년 이후)	정부	특수대학원 평가방안 마련
		대학원 간 협력체제 구축
		진학희망자에 대한 대책
		모듈식 자격증과정 개설
		국제교류의 활성화 지원
	대학원	선행경험학습 인증체제 도입
		독립채산제 도입
		학위 공신력 제고
		전임교수 확보와 현장경력 강사 확보
		연구공간과 시설 확보

제6장 요약 및 결론

정지선

제1절 요약

대학원 교육제도는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의 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그 중에서 특수대학원은 직업인을 비롯한 일반 성인들의 계속교육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석사학위 과정의 고등교육기관이다. 직장인들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그리고 산업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실용적 교육을 추구하는 곳이 특수대학원이다. 특수대학원은 양적으로는 급속하게 팽창되어왔지만 교육 운영이 비체계적이며 산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연구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인 특수대학원이 성인 및 직업인들의 계속교육과 재교육을 위한 실무 중심의 직업교육기관으로서 work-to-school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특수대학원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또한 성인들의 직업능력개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함으로써 성인을 위한 고등 평생학습기관으로서 발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외국의 사례로 우리와 공통적으로 성인들의 대학원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제도가 유사한 미국과 평생학습 차원의 교육체제가 잘 정립된 호주의 대학원교육제도를 탐색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가장 참고가 될 만한 점은 대학원 교육을 운영함에 있어서 인증기관의 역할이 무척 강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대학원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게 된다. 또한 비학위 과정, 파트타임 등 학습자의 사정에 맞게 운영되고, 경험학습을 인정하고 학점으로 전환과정이 제도화되어 있다. 우리 대학원과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자율성 정도이다. 대학원 스스로 사명과 목적을 정하고, 그 사명과 목적에 맞게 학사조직을 편성·운영하고, 각종 지원시스템을 스스로 갖춘다는 점이 특기할만하다.

CIPP 분석의 틀에 따라 면담조사를 거쳐 특수대학원 교육을 분석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고학력화, 지식기반사회, 과학기술의 급속한 변화 발전 등에 의하여 평생학습으로서의 대학원 교육의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특수대학원 설립절차는 용이하지만 질 관리 체계가 부재하여 대학에서는 본래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수익성 추구라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학생들은 용이하게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였다. 또한 평생직업 교육으로서의 특수대학원 고유의 교육영역이 확보되지 못한 실정이다.

석사학위 과정 대학원으로서의 평생학습 기능을 담당하는 특수대학원의 개선방안은 국가와 대학의 두 주체가 담당해야 할 과제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특수대학원이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성인학습 대학원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우선 특수대학원 교육의 목적과 기능이 재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학위과정만이 아니라 자격증과정, 단기과정, 모듈식 교육과정의 개념을 도입하여 늘어가는 고학력 평생학습 수요에 대비하여 work-to-school 기능을 수행하는 블루오션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 국가적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다양한 교육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교육역량을 갖추고 특성화를 추진하여 특수대학원의 고유영역을 확보해야 한다.

자율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표준교육비를 근거로 특수대학원에 대한 재

정지원을 강화해나감과 동시에 독립채산제를 도입하도록 한다. 성인 재직자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선행학습에 대한 인증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며 수업연한제도보다는 학점제도를 기반으로 한 시간제 학습을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대학원은 산업체와 협약을 통하여 현장지향적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2절 결론

평생직업의 시대가 전개되면서 순환교육, 평생학습, 계속교육, 노동시장에서 학교로의 이행(work-to-school)이 빈번해지는 지식기반사회에서 특수대학원은 대학을 졸업한 직업인 및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대학원 수준의 재교육 및 계속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수대학원은 양적으로 급속하게 팽창되어 왔지만 교육공급자, 교육수요자, 정부의 세 주체가 각각의 편익성을 추구하면서 교육의 질적 발전에 대한 관심 부족 속에서 본래의 취지와 다른 모습으로 발전되어 왔다.

세계적으로 대학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대학의 성인학습자를 위한 기능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노동시장과 학교로의 이행이 빈번해지는 순환교육적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Trow의 고등교육 발전론에 따르면 이제까지의 성인교육, 공공직업훈련, 기업 내 교육 등 비형식적인 중등 후 교육과 정규교육이 통합되는 방향으로 발전 변화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보편화와 발 맞추어 대학원은 성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누구나 새로운 학습의 방법과 수단을 개발 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성인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고학력을 소지한 직장인들과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수대학원은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다양

화와 특성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고령화로 접어들어 고령층의 학습의 수요에도 부응해야 할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평생학습의 필요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여 특수대학원은 누적된 교육운영 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기능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때이다.

특수대학원이 고학력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갖고 공신력을 얻기 위하여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대학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학원의 유형별 즉,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의 기능과 특성을 정립하여 인식을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규제를 개편하여 지금의 positive 방식 즉, 법령에 규정된 것을 중심으로 대학에 권한이나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에서 negative 방식 즉, 법령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대학의 자율사항으로 개편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특수대학원 관리를 교육의 질 관리 중심으로 재편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의 활동을 유도해나가는 방향으로 개입방식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특수대학원이 자체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는 독립된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대학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특수대학원이 대학의 하부 조직의 하나로 수익사업 기관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평생학습기관으로서 다양한 잠재적 학습자원을 위한 특성을 개발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수대학원이 성인학습대학원이라는 면모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고등교육법에 대학원 유형별 역할과 기능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특수대학원,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의 기능과 역할이 불분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 성인과 재직자들의 평생학습의 기회를 보장하며 대학원 수준의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학위과정 외에도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어야 한다. 특수대학원의 난립을 방지하고 박사과정에 대한 수요도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할 수 있는 대학원 제도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특수대학원은 평생학습기관의 특성을 구비하도록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관점에서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분석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와 대학이 인식하고 노력해야 할 다양한 개선방안들을 도출하였다. 국가적 차원의 대학원 수준의 평생학습을 위한 종합적 발전계획과 재정지원은 가장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줄 것이다. 특수대학원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원 평가방안도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특수대학원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특수대학원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특수대학원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특수대학원은 일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으나 기능 수행과정에서 세 가지 유형의 대학원의 특성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각 대학원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기 위하여 정부에서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각인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특수대학원의 고학력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고령 화사회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인학습자들의 학습요구를 포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나가도록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성인과 재직자의 연령 범위를 30~40대를 중심으로 가늠하는 추세이지만 저출산 고령 화사회에서 50~60대와 그 이상의 연령층에게 필요한 학습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특수대학원의 종류와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대학과 정부 차원이 특수대학원의 질 관리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공유하도록 하고 특수대학원 교육의 개선방안들이 제시되었다.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요구와 수요, 이를 충족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 정부의 지원 등이 조화를 이루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특수대학원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학력 평생학습체제

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러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대학원의 교수, 행정직원, 학생과 졸업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면담조사 결과 분석내용을 기반으로 하였다. 전국에 수많은 특수대학원들 중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계열별로 조사를 하였으나 다양한 특수대학원 유형에도 불구하고 16개 대학원을 면담조사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각 계열별 유형별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학의 교수, 행정직원, 학생, 졸업자들을 면담하였으나 특수대학원 교육의 수요처인 산업체의 의견을 담지 못한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거시적이고 국제적인 비교를 통하여 대학원의 유형별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수대학원을 일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과의 비교연구를 수행하여 성인을 위한 평생학습기관으로서 성인학습대학원 체제로 개편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SUMMARY

Measures of Improving Special Graduate Schools for Higher Vocational Education

Jisun Chung, Namchul Lee, Kisung Lee

1. Research Outline

In general graduate education programs are classified into Graduate School,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and Special Graduate School. The aim of education of Special Graduate Schools is to provide continuing education to adults and employees who try to develop professional skills and seek the Master's Degree. The education program of special graduate schools has been criticized inefficiency and unsystematic administration while number of special graduate schools have increased tremendously.

This study i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activation of work-to-school function of special graduate schools by eliciting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investigating the situations and problems of operation of education. The research methods employed are domestic and oversea literature survey, gathering statistical data,

council meetings, in-depth interviews with professors, administrators, students, graduates.

2. Case Studies of Foreign Countries

The educational system of USA is rather similar to Korean and that of Australia is well established in terms of lifelong learning. The demands of graduate education of both countries have been increasing recently, which is common to Korea.

The lessons from the foreign case studies are as follows. First, the graduate schools are operated by being certified by authorities, which results in the quality control of education services. Second, the graduate schools have autonomy to establish development goals, to decide management,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and expenditures. Third, operating the adult learning programs graduate schools provide various programs and courses to fit the situation of individuals.

3. Interview Results

The situation of special graduate schools is analyzed with the frame of CIPP. The demand of graduate school education has been increased with the advent of knowledge based society,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y based on academic success, and national pursuit of high academic achievement. The education of special graduate schools has been established with the simple regulation on the one hand, and carried out without quality control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education of special graduate schools could not realize its own aim.

4. Improvement Measures of Special Graduate School Education

First, the special graduate schools should develop into adult learning graduate school. Specifically, the aim and function of special graduate school should be rebuilt for higher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and work-to-school. Then not only degree programs but also certification programs with various length of courses and terms. Students can participate in graduate courses as part-time base and full-time base.

Second, funding system and administrative support are to be enforced. The master plan for comprehensive development of special graduate school should be established. Government funding should be based on the standard educational expenses. The self-supporting system can flourish the education with the autonomy of the graduate school.

Third, advancement of lifelong learning programs should be pursued,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field-oriented curriculum. Especially the linkage between education and industries should be strengthened cooperating exchang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each other.

Fourth, the infrastructure of work-to-school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arrange the learning environment for the adult learners. Government funding may ease the economic difficulty of students with scholarship, and employment insurance system. The quality and quantity of administrative services for evening school students should be improved increasing the number of administrators.

〈부 록〉

〈부록 1〉 특수대학원 CIPP 모형에 따른 면담 내용의 틀

〈부록 2〉 특수대학원 면담조사지

〈부록 3〉 특수대학원의 종류와 설립목적

〈부록 1〉 특수대학원 CIPP 모형에 따른 면담 내용의 틀

1. Input (투입 요인)

	조사 항목	세부 내용	조사 대상
1	특수대학원 설립 목적 및 취지(현실 적합성) (각 대상자의 시각의 차이 분석)	- 설립취지에 적합한 운영 - 피리 이유 - 타대학원과의 차이점: 학위취득, 직무능력개발, 수익성 위주 등	교과부 담당자 행정부장 교수
2	설립 절차	- 학과 운영의 용이성, 수월성	교과부 담당자 행정부장
3	입학정원의 변동 현황에 대한 대학의 태도	- 인력수급 전망 등에 관한 협의 절차	교과부 담당자 행정부장
4	대학원 교육의 목적, 입학 동기	- 취업 목적 - 학위 취득 목적 - 상위과정 진학 - 직무능력향상 - 경력개발(또는 승진) - 기타	대학원생 졸업자
5	대학원 예산 운영	- 등록금 관리 방식	행정부장
6	개인 교육비 부담 현황	- 타대학원 대비 등록금의 적절성 - 자비 부담 정도 (고용보험기금, 회사지원, 대학원지원 장학금, 대출, 정부지원 등)	행정부장 대학원생
7	입학 자격 및 절차	- 점근의 용이성: 입학 전형제도 - 입학 정보 제공	행정부장 대학원생 교수
8	대학 선택의 이유	- 학생들의 대학 및 전공 선택 기준: 자택과의 거리, 직장과의 거리, 교육과정 선택의 폭 (만족도), 교수진에 대한 만족도, 학교 name value	대학원생
9	입학생의 배경	- 연령, 성별, 학부전공과의 일치도, 직업 등	행정부장 대학원생

2. Processes (과정적 요인)

	조사항목	세부 내용	조사 대상
1	교육과정 운영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대학원 설립목적 부합 교육과정과 내용 - 성인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내용여부 - 학생들 및 산업체의 수요 반영 (현장적합성) - 학습 내용 및 수준의 적합성 - 프로그램 선택의 다양성 	교수 대학원생 졸업자
2	프로그램 운영 방식	cyber 강의의 필요성- 학생	대학원생 졸업자 교수
3	교육과정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주기 - 개발시 참여자 - 전공·학제간 연계 전공 개발 - 현장실무 교수진 참여 -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행정부장 교수
4	교수진 구성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1인당 학생수 - 학부, 타대학원 교수와의 차별화 - 특수대학원 교수 구성의 적절성 - 시간강사 구성 비율 	행정부장 교수 대학원생 졸업자
5	수업 여건 및 학업지도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계획서 배포 및 시행 - 수업평가 실시 - (지도)교수와의 면담: 학업 및 진로 상담 관련 - 공간적, 시간적 여건: 정규, 비정규, 시간제, 야간, 주말 운영 등 - 수업방식: 강의중심, 과제중심, 토론중심, 발표중심, 인터넷중심 등 	행정부장 교수 대학원생 졸업자
6	수업의 연계성	- 타대학, 타전공과의 학점교류	행정부장 대학원생
7	연구여건	- 연구공간, 세미나실 등	행정부장 교수 대학원생
8	대학원의 문화적 특성	- 학문적 문화와 풍토 조성 여부	교수 대학원생 졸업자
9	자격증 관련	- 자격증 취득 관련 교육과정 운영 여부	행정부장 대학원생
10	정부의 평가 및 지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여부 및 주기 - 평가 결과의 활용도 및 개선 절차 -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정부담당자 - 서류 행정부장
11	학사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학습 학점 인정 - 시간제 학생의 학점 제한 - 학점 교류 	정부담당자 교수 대학원생

3.Products (산출적 요인)

산출	조사 항목	세부 내용	조사 대상
1	학생들의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과목 선택의 다양성 ② 강의 충실도 ③ 실험/실습 시설 및 연구환경 ④ 도서관 및 자료이용 ⑤ 행정 서비스의 질 ⑥ 교육서비스 대비 등록금 규모의 적절성 ⑦ 장학금의 취득 기회 ⑧ 교육·연구 및 진로지도 ⑨ 교수의 질 ⑩ 직업능력개발 만족도 	대학원생 졸업자
2	졸업 논문 운영의 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 작성의 필요성 - 직무능력개발과의 관련성 - 논문계획/ 작성과정 - 논문심사 및 발표 	행정부장 교수 졸업자
3	졸업 후 직무능력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현황 - 졸업 후 직장에서의 인정(승진) (보수인상, 직무배치 혜택 등) - 현장적합성 - 자격증 관련성 	졸업자
4	졸업 후 취업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도 program - 입학 전과의 취업현황 비교 	행정부장 대학원생 졸업자
5	진학자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과정으로 진학률 - 진학 희망률 	행정부장 대학원생
6	특수대학원 개선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제도 개편 - 교육과정체제 개편 - 졸업제도 개편 - 강의의 질 개편 - 연구공간 및 시설의 확보 - 장학금의 확대 - 행정 서비스의 질 개선 - 논문(졸업) 및 진로지도체제 개편 	행정부장 교수 대학원생 졸업자

〈부록 2〉 특수대학원 면담조사지

2-1. 정부부처 담당자 대상

1. 특수대학원 교육이 설립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괴리되는 부분은 무엇이고, 괴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참고사항 1>

○ 특수대학원의 교육 목적: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고등교육법 제29조의 2)

- 특수대학원 교육의 취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의 부합성
 (계속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 여부?)
 - 특수대학원 운영의 실제 vs. 설립의 목적과 취지
 (학위취득, 직업능력개발, 직무능력향상 등)
 - 특수대학원 교육과 타대학원 (일반, 전문)과의 차이점
2. 특수대학원 설립절차는 설립규정에 부합하게 추진되는가?

<참고사항 2>

○ 특수대학원 학과 신설 기준:
 학과 신설시 학부에 최소 3명 이상의 관련 분야 전임교원 확보
 (과학기술부, 2009학년도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 및 정원조정계획)

- 인력수급전망, 전년도 정원 정책(예고사항 등), 정부 부처의
 인력수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지?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
 학생정원 관리 업무 절차)
 - 경쟁률 증감에 대한 이유?
 - 경쟁률 향상을 위해 대학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 최소 지원인원 규정 여부
 - 면접대상자 규정
 - 관련 학장, 본부에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등
3. 특수대학원의 문제점은 (질적 수준 포함)?
 4. 특수대학원의 개선사항들은?

2-2. 교학과장 대상 면담조사지

I. < 투입 요인 >

I-1. 특수대학원 교육이 설립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괴리되는 부분은 무엇이고, 괴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참고사항 1>

○ 특수대학원의 교육 목적: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 2)

- 특수대학원 교육의 취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의 부합성
- 특수대학원 운영의 실제 vs. 설립의 목적과 취지 (학위취득, 직업능력개발, 직무능력향상 등)
- 특수대학원 교육과 타대학원 (일반, 전문)과의 차이점

I-2. 학과설치 및 운영의 용이성

<참고사항 2>

○ 특수대학원 학과 신설 기준:
학과 신설시 학부에 최소 3명 이상의 관련 분야 전임교원 확보
(과학기술부, 2009학년도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 및 정원조정계획)

- 특수대학원 (및 학과) 설치 규정 준수 여부
- 학과 설치 및 운영의 용이성, 수월성
- 인력수급 관련 정부 등과의 협의 절차

I-3. 특수대학원 운영의 수익 구조 관련

I-4. 특수대학원 입학 경쟁률이 타대학원보다 높을 경우, 그 이유는?

I-5. 입학 자격 및 선발 기준

- 입학 자격 및 전형제도, 입학 정보 제공(홍보)
- 재직자에 대한 고려 여부: 직업적 특성 고려 여부
- 선행학습 인정 / 타대학 취득 학점 인정 여부

I-6. 대학원생 관리체제

- 대학원생 배경변인 (연령, 성별, 학부 전공과의 일치도, 직업 등)
관련 D/B화 구축 여부

II. < 과정적 요인 >

II-7.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의 내실

- 특수대학원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절차 및 주기
- 일반대학원이나 타 대학원 교육과정과의 차별성/특성화?
- 현장 적합성에 대한 고려 여부
- 학생과 산업체의 수요 조사 및 반영 여부 및 주기
- 학생의 교육 요구와 학생 수준 적합도
- 산업체 등 현장 연계 교육 프로그램 여부
-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자: 교수, 산업체 인사 참여 여부,
- 전공·학제간 연계 전공 개발

II-8. 수업 여건 및 학업지도의 적절성

- 근무시간 이외의 수업 실시 등 (야간, 주말 등)
- 야간 6시~10시 수업시간의 집중도로 인한 문제점?
- cyber 강의 실시 여부 및 필요성
- 강의계획서 배포 및 시행 정도
- 학생의 강의평가 실시 여부
- 학업 및 진로 상담기회 제공 정도
- 출석부 관리의 철저성
- 관련 학생자료 점검 여부

II-9. 교수진 구성

- 학부, 타대학원 교수와의 차별성
- 교수 구성의 적절성
- 교수의 강의 부담 정도 (학부 및 타 대학원 수업 포함)

- 현장실무 교수진 참여

II-10. 시간강사 선정 기준 및 방법

- 시간강사 선정 기준
- 시간강사 선정 방법: 졸업자 활용 / 웹사이트 공고 등
- 강의로 퇴출된 강사, 사례 유무

II-11. 직무관련 교육과정

- 교육과정의 현장적합성 점검 여부
- 교육과정에 산업 발전의 방향성과의 일치도
- 자격증 취득 과정 제공 여부

II-12. 학사 운영 관련

- 학부 학위과정 초과 이수학점 인정
- 시간제 원생의 수강신청 학점 제한 여부
- 타대학, 타전공과의 학점 교류 (수업의 연계성)

II-13. 연구여건

- 연구 공간, 세미나실 제공 등

II-14. 정부의 평가와 지원

- 정부의 평가 여부 및 주기
- 대학 차원의 평가 대비 문제점과 애로사항
- 평가 결과의 활용도 및 개선 절차
- 행·재정적 지원 내용

III. < 산출 요인 >

III-15. 졸업 후 취업 현황

- 취업 알선 프로그램이 있는지?
- 입학시의 취업률과 졸업 후의 취업률?

III-16.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 대학원 교육에 대한 학생과 직장의 만족도 실시

Ⅲ-17. 특수대학원 운영의 문제점(질적 수준 포함)은?

Ⅲ-18. 특수대학원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 입학제도 개편
- 교육과정체제 개편
- 졸업제도 개편
- 강의의 질 개편
- 연구공간 및 시설의 확보
- 장학금의 확대
- 행정 서비스의 질 개선
- 논문(졸업) 및 진로지도체제 개편 등

2-3. 교수 대상 면담조사지

I. < 투입 요인 >

I-1. 특수대학원은 본래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괴리되는 부분은 무엇이고, 괴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참고사항 1>

○ 특수대학원의 교육 목적: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고등교육법 제29조의 2)

- 특수대학원 교육의 취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의 부합성
(계속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 여부?)
- 특수대학원 운영의 실제 vs. 설립의 목적과 취지 (학위취득,
직업능력개발, 직무능력향상 등)
- 특수대학원 교육과 타대학원 (일반, 전문)과의 차이점

II-2. 입학 자격 및 선발 기준

- 입학시 재직자에 대한 고려 여부: 직업적 특성 고려 여부
- 입학전형제도 (일반-특별전형)
- 선행학습 인정 / 타대학 취득 학점 인정 여부

II. < 과정적 요인 >

II-3.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의 내실화

- 개발 주기
- 개발시 참여자 (산업체 인사)
- 학생의 수요 반영
- 프로그램의 특성화
-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한 선택의 가능성 여부

- II-4.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열의와 태도는 어떠한가?
- 매우 학구적이다 / 아니다
 - 학생들끼리의 networking을 중시한다.
 - 형식적으로 수업하고 학점을 탄다.
 - 학생의 강의평가 실시 여부
- II-5. 교수진 구성은 특수대학원 특성에 적합하게 운영되는가?
- 학부나 일반대학원과 동일
 - 특수대학원 전임교수로 구성
- II-6. 정규시간 이외 (야간, 주말) 수업에 대한 교수 인센티브는 어떤 정도인가?
- 수당 및 인센티브 여부
 - 학업지도 및 진로 상담기회에 대한 애로 사항 및 수월성 여부
 - 취업지도 및 취업 알선 여부
- II-7. 수업 여건
- 강의 시설 및 기자재 여건 - 학생, 교수
- II-8. 학업지도의 적절성
- 강의계획서 배포 및 계획 달성 여부
 - 수업방식: 강의 중심, 과제, 토론, 발표, 인터넷 활용 등 : 교수, 학생)
 - 학업 및 진로 상담기회 제공 정도
 - 출석부 관리 철저
 - 관련 학생자료 점검 여부
 - cyber 교육의 필요성 및 실시 여부
- II-9. 학사 운영 관련
- 학부 학위과정 초과 이수학점 인정
 - 시간제 원생의 수강신청 학점 제한 여부
 - 타대학, 타전공과의 학점 교류

III. < 산출 요인 >

III-10. 졸업 논문 운영의 내실화

- 논문 작성의 필요성 여부
- 논문 작성과정의 내실화 장치
- 석사논문 작성과정에 교수의 지도 정도?
- 석사논문 심사과정과 발표 관련 사항
- 논문 주제와 직무능력과의 연관성
- 특수대학원 졸업논문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III-11. 특수대학원 교육에 대한 학생(졸업자)의 만족도는 대체로 어떠한가? 만족도가 높은 강의는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

(학위 취득 만족, 직무능력향상 만족)

III-12. 학위 취득의 수월성

III-13. 특수대학원의 문제점들은? (질적 수준 포함)

III-14. 특수대학원 교육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 입학제도 개편
- 교육과정체제 개편
- 졸업제도 개편
- 강의의 질 개선
- 연구 공간 및 시설의 확보
- 장학금의 확대
- 행정 서비스의 질 개선
- 논문(졸업) 및 진로지도체제 개편

2-4. 재학생 대상 면담조사지

I. < 투입 요인 >

I-1. 대학원 입학 동기는 무엇인가?

- 취업 (직무능력향상)
- 학위취득
- 상위과정 진학
- 경력개발 (또는 승진)
- 학생 또는 교수와의 networking
- 기타

I-2. 입학 전의 대학원 입학의 목적이 재학 중에도 그대로 운영되는가?

I-3. 교육비 부담?

- 자비, 회사지원, 대학원지원 (장학금), 고영보험기금, 대출, 기타

I-4. 입학 절차

- 재직자에 대한 고려 여부: 직업적 특성 고려 여부
- 입학전형제도
- 선행학습 인정 - 타대학 취득 학점 인정 여부
- 입학 정보 제공 (홍보 포함)

I-5. 대학 선택의 이유

-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 학교의 name value
- 직장 및 자택과의 거리
- 교수진에 대한 만족도

II. < 과정적 요인 >

II-6.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

- 일반대학원이나 타 대학원 교육과정과의 차별성, 특성화?
- 학생과 산업체의 수요 조사 및 반영 여부 및 주기
- 학생의 교육 요구와 학생 수준 적합도
- 산업체 등 현장 연계 교육 프로그램 여부
- 현장실습의 필요성 및 실시 여부
- 자격증 취득 관련 과정에 대한 필요성 및 제공 여부

II-7. 교수진에 대한 만족도

- 교수진 전반에 대한 만족도
- 교수 1인당 학생수
- 학부 및 타대학원 교수와의 차별성
- 교수 구성의 적절성
- 시간강사 구성 비율
- 현장실무 교수진 참여

II-8. 수업 여건 및 학업지도의 적절성

- 강의계획서 배포 및 시행 정도
- 학생의 강의평가 실시 여부
- 학업 및 진로 상담기회 제공 정도
- 강의 시설 여건: 시설, 기자재의 충분성
- 수업방식: 강의중심, 과제중심, 토론중심, 발표중심, 인터넷중심 등
- cyber교육에 대한 필요성 및 실시 여부

II-9. 학사 운영 관련

- 학부 학위과정 초과 이수학점 인정
- 시간제 원생의 수강신청 학점 제한 여부
- 타대학, 타전공과의 학점 교류(학업의 연계성)

II-10. 대학원생의 연구 여건

- 연구공간, 세미나실 등

II-11. 대학원의 문화적 특성

- 학문적 문화와 풍토 조성 여부

III. < 산출 요인 >

III-12. 교육에 대한 만족도

- 대학원에서 만족도 조사 여부
- 대학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
 - ① 교과목 선택의 다양성
 - ② 강의 내용
 - ③ 실험/실습 시설 및 연구환경
 - ④ 도서관 및 자료이용
 - ⑤ 행정 서비스의 질
 - ⑥ 교육서비스 대비 등록금 규모의 적절성
 - ⑦ 장학금의 취득 기회
 - ⑧ 교육·연구 및 진로지도
 - ⑨ 교수의 질
 - ⑩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 ⑪ 직무능력개발 및 학문적 향상에 대한 만족도

III-13. 졸업 요건

- 학점 수 및 졸업 논문: 졸업 학점수? 논문 필수 / 논문 필요성 여부
- 논문과 직무능력 향상과의 관련성

III-14. 졸업 후 취업

- 학교에 취업 알선 프로그램이 있는지?
- 졸업 후 직장에서 승진 등 혜택이 있는지?
- 입학 시의 직장과 졸업 후의 직장이 동일?

III-15. 진학자 / 취업 희망

- 졸업 후 박사과정으로 진학 희망?
- 취업 / 이직 (전직) 희망? - 이유는?

III-16. 특수대학원 교육의 애로사항은?/전반적인 문제점은?(질적 수준 포함)

Ⅲ-17. 특수대학원 교육의 개선사항은?

- 입학제도 개편
- 교육과정체제 개편
- 졸업제도 개편
- 강의의 질 개편
- 연구 공간 및 시설의 확보
- 장학금의 확대
- 행정 서비스의 질 개선
- 논문(졸업) 및 진로지도체제 개편

2-5. 졸업자 대상 면담조사지

I. < 투입 요인 >

I-1. 특수대학원에 입학 동기는 무엇인가?

- 직장에서 승진에 유리한 여건을 위하여
- 박사과정 진학을 위하여
- 학력(학벌) 신장을 위하여
- 순수하게 학문적인 목적으로
- 직무능력향상
- 학생 및 교수와의 networking을 위하여

I-2. 대학 선택의 이유

-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 학교의 name value
- 직장 및 자택과의 거리
- 교수진에 대한 만족도

II. < 과정적 요인 >

II-3. 재직자에 대한 배려가 있었는가?

- 입학 조건 등의 적절성
- 근무시간 이외의 수업 실시 등 (야간, 주말 등)
- 학생들의 학업 수요조사 및 반영 정도
- 재직자 / 성인 석사과정 학생에 적합성 여부?

II-4. 교수진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 교수 1인당 학생수
- 교수진 구성의 적절성

II-5. 수업 여건 및 학업지도가 적절했는가?

- 수업계획서 배포 및 계획 달성도
- 학생의 강의평가 실시 여부
- 석사과정 학업에 대한 내실 및 충실성
- 학업지도 및 진로 상담기회 제공 정도
- 강의 시설 여건
- 학업 분위기
- cyber 교육의 필요성 및 실시 여부

II-6. 대학원의 문화적 특성은 무엇이었는가?

- 학문적 문화와 풍토 조성 여부

II-7. 교육과정이 직무와 관련성이 높은가?

- 교육과정의 현장적합성 점검 여부
- 현장실무 교수진 참여
- 교육과정에 산업 발전의 방향성과의 일치도
- 자격증 취득 코스 및 관련 강좌 제공 여부
- 현장실습 실시 등 산학협력 교육의 필요성 및 실시 여부
(직무능력개발에의 적절성)

III. < 산출적 요인 >

III-8. 학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 대학원에서 만족도 조사 여부
- 대학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
 - ① 교과목 선택의 다양성
 - ② 강의 내용
 - ③ 실험/실습 시설 및 연구환경
 - ④ 도서관 및 자료이용
 - ⑤ 행정 서비스의 질

- ⑥ 교육서비스 대비 등록금 규모의 적절성
- ⑦ 장학금의 취득 기회
- ⑧ 교육·연구 및 진로지도
- ⑨ 교수의 질
- ⑩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 ⑪ 직무능력개발 및 학문적 향상에 대한 만족도

III-9. 졸업 후 직장에서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 대학원 학업에 대한 직장 내 승진/배치/보수 혜택 등
- 직장에서 본인의 향상에 대한 만족도

III-10. 졸업논문 작성과정은 내실있게 진행되었는가?

- 논문 주제와 직무능력과의 연관성
- 교수 지도의 충실성
- 학위 취득의 수월성
- 석사논문 심사 과정과 발표 관련 사항
- 논문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III-11. 특수대학원 과정시 어려웠던 점 / 특수대학원의 문제점들은?

III-12. 특수 대학원 교육의 개선사항은?

- 입학제도 개편
- 교육과정체제 개편
- 졸업제도 개편
- 강의의 질 개편
- 연구공간 및 시설의 확보
- 장학금의 확대
- 행정 서비스의 질 개선
- 논문(졸업) 및 진로지도체제 개편

〈부록 3〉 특수대학원의 종류와 설립목적

대학원명	대학명	설립목적
간호 대학원	가천의과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연세대학교	사회의 구조변화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전문간호사 양성을 목적으로 함
건강과학 대학원	순천향대학교	건강과학, 스포츠의학, 보건정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국민보건 및 국민건강증진을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우수한 인재양성과 이들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함
건강증진 대학원	한서대학교	시대가 요구하는 제3의 의학이라 할 수 있는 자연의학을 기초로 하여 다양한 건강증진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실제 건강지도에 접목시킬 수 있는 전문지도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함
건설 대학원	중앙대학교	건설기술 및 설계, 계획에 관한 이론과 최첨단 과학기술을 건설 산업에 응용할 수 있는 최신기법을 연구, 교육함으로써 건설기술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함
경영 대학원	가톨릭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원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진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삼육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수원대학교, 아주대학교,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위덕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양대학교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선도할 역량 있는 전문적인 경영관리자 양성을 목적으로 함.

대학원명	대학명	설립목적
경영대학원 (iMBA) 대학원	성균관대학교	현대산업사회의 경영지도자에게 필요한 비전을 향상시켜 주며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경영능력을 배양시켜 줌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경영·행정 대학원	서남대학교	학술의 이론과 과학적 방법을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고 독창적 능력을 함양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경영정보 대학원	고려대학교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를 대상으로 고도의 경영관리 기법의 수련과 연마를 통해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함
경영정책과학 대학원	강릉대학교	경영 및 정책과학 분야의 최고관리자로서의 지도자적 자질 양성을 목적으로 함
경영행정 대학원	건양대학교, 공주대학교, 관동대학교, 군산대학교, 극동대학교, 대불대학교, 목포대학교, 서경대학교, 성결대학교, 세명대학교, 순천대학교, 안양대학교, 우석대학교, 탐라대학교, 한려대학교, 한중대학교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력자원을 개발하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유능한 경영·관리자를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대전대학교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할 지역행정 및 사회복지 전문지도자 육성을 목적으로 함
경영행정 외국어대학원	충주대학교	산업현장인의 능력개발과 기술의 향상을 기하고 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창의적인 경영행정인 육성을 목적으로 함
경제대학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국제적인 안목과 실제적인 경제해결 문제 능력을 갖춘 창조적인 인재양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대학원명	대학명	설립목적
경찰법무대학원	동아대학교, 한세대학교	전문분야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이론과 응용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법률전문가를 양성을 목적으로 함
고등경영대학원	성민대학교	국가, 사회 및 교회에 봉사할 지도자와 교역자의 전문적인 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공공정책대학원	서강대학교, 아주대학교	급변하는 시대 환경 속에서 이론과 실무, 그리고 정책을 체계적으로 결합, 연구하여 21세기의 한국 인력을 선도해 나갈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함.
공연예술대학원	동덕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전문적인 공연예술인을 양성하여 문화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공학대학원	고려대학교, 수원대학교, 우송대학교, 연세대학교, 인하대학교, 한양대학교	고도 산업사회를 주도할 고급 전문기술인에게 이론적 지식을 부여하고, 고급기술인 및 경영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관리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함
과학기술대학원	성균관대학교	실무에서의 생산성 향상과 전문기술분야의 실용교육 습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 국가 산업발전과 21세기 과학기술분야의 지도적인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함
광고홍보대학원	홍익대학교	-
관광대학원	경희대학교, 세종대학교	문화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관광산업분야의 전문적인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함
관광축제호텔대학원	배재대학교	학교와 현장 교육, 학계와 업계의 여러 인사들과의 교류 등을 통해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경영전략적 사고를 가진 관광축제호텔전문인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학원명	대학명	설립목적
교육대학원	가야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원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경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관동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극동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대불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상명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남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여수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울산대학교, 위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제주대학교, 제주교육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창원대학교, 천안대학교, 청주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충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탐라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서대학교, 홍익대학교, 협성대학교	교원들이 재교육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각 전공분야의 학문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융합시키고 각 교육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학원명	대학명	설립목적
교육경영관리 대학원	홍익대학교	-
교육정보 대학원	공주대학교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학교교육, 사회교육 및 교육정보산업에 기여할 유능한 교육정보화 전문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함
교육정책 대학원	한국교원대학교	평생학습의 확대에 따라 21세기를 선도할 교육정책 입안자 및 수행자 등 교육행정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함
교회음악 대학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교회음악전문가를 양성하여 교회음악을 바르게 연구하고 교육함으로써 지도자적 인격과 창조적 능력을 갖춘 교회음악지도자를 배출하고 교회와 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함
교회지도자 대학원	총신대학교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개혁신학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기독교 신앙과 가치관에 입각하여 교회와 사회 각 분야에서 일할 유능하고 신실한 신앙 인격과 전문성을 겸비한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함
국가전략 대학원	성균관대학교	여러 전공영역을 포괄하는 융합교육을 통해 폭넓은 사고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실용적 교육을 통해 현실문제의 해결능력을 가진 21세기형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함
국방전략 대학원	한남대학교	국방행정 및 정책과 경영 전반에 걸친 과학적인 연구와 전문적인 실무 교육을 통하여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유능한 군 간부를 양성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학원명	대학명	설립목적
국제경영대학원	대구대학교, 동서대학교, 중앙대학교, 한동대학교, 홍익대학교	국내외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해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함
국제관계대학원	숙명여자대학교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제기구 또는 비정부기구 등의 국제관계 분야의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제관광대학원	한양대학교	산·관·학 등 각 분야에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관광전문인력을 고객만족 정신에 입각하여 양성하며, 타 교육기관과 차별화·특성화된 교육을 지향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대학원 육성을 목적으로 함
국제대학원	경북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명지대학교, 부경대학교, 아주대학교, 한성대학교	국제화를 능동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함
국제법무대학원	경희대학교	정부, 법조계, 공·사기업체의 국제법무 담당 전문가를 재교육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국제법무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함
국제정보대학원	동국대학교	-
국제통상대학원	배재대학교, 숭실대학교	급변하는 국제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통상 및 지역전문 고급인력 육성을 목적을 함
국제통상경영대학원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 및 경영이론과 현지어를 바탕으로 세계화의 새로운 기업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국제경영전문인 육성을 목적으로 함
국제통상물류대학원	인하대학교	동북아의 경제협력과 통상·금융·교통·물류에 관한 교육과 연구 활동을 통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인력을 양성·배출함을 목적으로 함

대학원명	대학명	설립목적
국제평화 인권대학원	한신대학교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수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본교의 건학정신을 구현하고, 세계화시대의 불확실성과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기회로서의 세계화를 활용하기 위한 유능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함
국토방재 대학원	관동대학교	21세기 이후에 예상되는 해안재해의 예방관리전문가의 양성과 안전한 도시 사회기반시설 건설 및 매니지먼트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함
군사·산업정보 대학원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산업정보학의 심도있는 교육을 통해 정보중심사회에 적응하며 정보사회를 창조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기술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글로벌인적자원 개발대학원	중앙대학교	국가인적자원개발과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 해운물류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함
글로벌창업 대학원	호서대학교	글로벌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창업에 필요한 실무지식과 기술을 함양하여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함
금융공학대학원	수원대학교	금융공학의 제반 분야를 대상으로 실무중심의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전반의 여러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금융공학의 전문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함
기독교사회복지 대학원	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 교육하여 민족과 사회에 봉사할 기독교 사회복지 전문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함
기독교상담 대학원	호남신학대학교	-
기독교학 대학원	승실대학교	복음주의적이고 교회연합적인 영성신학을 위해 성경중심의 종교개혁적인 문화변혁의 신학을 추구하고 목회지향적이고 선교지향적인 사회봉사신학을 실천하여 한국교회의 성장과 선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학원명	대학명	설립목적
기독교신학대학원	백석대학교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의 나라 중심, 교회 중심의 확고한 신앙과 신학을 가진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사역자, 신학자들을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록과학대학원	명지대학교	21세기 정보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기록관리, 스포츠 기록 분석의 실용화를 선도하는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노동대학원	창원대학교, 고려대학교	학제간의 분리에 따르는 한계를 극복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노동문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과 독자적인 연구능력 및 실제 문제 해결능력을 갖춘 전문인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함
노사관계대학원	숭실대학교	노동계, 경영계와 공공단체 등 각 분야에서 노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노동질서·노사관계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농업개발대학원	경북대학교, 전북대학교	국제사회의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농산물의 수입 개방화 및 농업의 국제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함
농축대학원	건국대학교	농축산 관련 전문분야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전문가 또는 이 분야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중문화예술대학원	단국대학교	뮤지컬과 대중음악 전문가, 그리고 그런 분야를 제작, 관리하는 인재를 양성 또는 재교육하여 대중문화 분야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체의학대학원	경기대학교, 전주대학교, 포천중문의과대학교	의료사회의 필연적 변화와 더불어 요구되는 대체의학 분야를 선도할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함
도시개발대학원	가야대학교	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인성을 겸비한 정직한 교원, 전문적인 지식과 교수기술을 갖춘 지성적인 교원, 교육현장의 문제를 발견하고 슬기롭게 해결하는 창의적인 교육전문가, 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교과지도능력을 가진 예비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함

대학원명	대학명	설립목적
도시과학 대학원	서울시립대학교	이론과 실제를 접목시킨 도시문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동서보완의학 대학원	원광대학교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조화를 통해 한 차원 높은 종합적 전일의학을 창출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함
동양학대학원	원광대학교	국가와 인류발전에 기여할 도덕적·지성적 인물을 배출하고, 동양의 전통사상과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디자인대학원	건국대학교, 경일대학교,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상명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우송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조선대학교	글로벌 시대에 미래 한국을 이끌어 갈 창의적 디자인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디자인 문화정보 대학원	경원대학교	정보화시대를 추구하는 첨단 디지털영상기술, 고부가가치 문화정보, 디자인정책과 아이덴티티 등의 특성화된 신지식 교육과 최신 문화정보 습득을 통해 디자인문화정보산업 전반에서 요구되는 국제 수준의 전략적 디자이너 양성을 목적으로 함
디지털문화 대학원	한세대학교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각정보디자인학, 실내건축디자인학 분야의 전반적이고 심층적인 이론을 연구, 개발함으로써 전문인을 양성하여 우리나라 친환경 디자인 분야의 기술과 이론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멀티미디어 대학원	경성대학교	국가의 인류발전에 필요한 멀티미디어 기술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지독적 인격과 독창적 능력을 갖춘 고급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함

대학원명	대학명	설립목적
목회대학원	백석대학교	목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을 예견·분석·탐구하고, 목회 전문 소양교육과 재교육을 통하여 목회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과 리더십 배양을 목적으로 함
목회신학대학원	감리교신학대학교	기독교대한감리교회에서 사역할 전문 목회자, 선교사 및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함
문예창작대학원	국민대학교, 한신대학교	시, 소설, 평론 등 분야별로 창작활동에 우선권을 두는 실질교육을 통해 우수한 문예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문화대학원	성공회대학교	문화와 예술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한 관점과 인문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현장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함
문화복지상담대학원	호서대학교	세계화, 정보화 추세에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문화적 감성과 돌보는 리더십을 갖춘 뜻있는 고급인력을 배출하여 우리 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문화산업대학원	성신여자대학교, 전주대학교	산업진흥과 경제 발전에 관한 학술이론과 응용방법을 일층 심오하게 교수·연구하여 문화발전과 산업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문화영상창업대학원	에원예술대학교	특화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전문 창업자의 발굴 및 양성 등 예비창업자 인프라를 강화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문화영성대학원	가톨릭대학교	가톨릭 전통과 사상을 바탕으로 문화와 영성의 다양한 현상에 대하여 폭넓게 접근함으로써 현대 세계 속에서 인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학원명	대학명	설립목적
문화예술경영 대학원	추계예술대학교	문화가 국가 경쟁력으로 발돋움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문화산업의 경영 전문인력, 즉 문화산업 MBA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문화예술 대학원	경기대학교, 동국대학교, 명지대학교, 상명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변화하는 사회, 교육환경 속에서 문화예술계의 인재를 육성하는 동시에 기존의 문화예술 현장에 생산적 자극과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인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미술대학원	수원대학교, 홍익대학교	예술이론과 미적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고 지도적 인격과 독창적 능력을 함양하여 새 시대의 문화 창조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미술디자인 대학원	경기대학교	미술디자인 분야에서 성실성과 창의력을 발휘하고 전문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미용예술 대학원	서경대학교	미용학문의 과학과 예술성을 상호보완 하는 미용교육지도자 및 미용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번역TESOL 대학원	성균관대학교	-
법무대학원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배재대학교, 연세대학교, 영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적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수법 분야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할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법무행정 대학원	대진대학교	법학 이론과 실재를 교수·연구함으로써 능력 있는 법 생활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벤처창업 대학원	진주산업대학교	벤처경영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고급 벤처경영관리자 및 창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함
병원경영 대학원	가천의과대학교	각 경영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이를 통해 인류발전에 기여, 실질적인 병원경영 능력을 배양, 국내는 물론 국제 병원경영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학원명	대학명	설립목적
보건과학대학원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인간의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 식품, 환경에 관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연구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보건대학원	가톨릭대학교, 경북대학교, 고려대학교, 고신대학교, 남부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불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을지의과대학교, 인제대학교, 전북대학교, 조선대학교, 충남대학교, 한림대학교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이론을 습득케 할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급변하고 있는 보건의료 문제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보건복지대학원	가천의과대학교, 건양대학교, 삼육대학교, 우송대학교, 포천중문의과대학교	보건과 의료, 복지를 접목시킨 융합교육으로 고령사회를 선도해 나갈 새로운 리더들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보건스포츠대학원	대전대학교	뉴 밀레니엄 시대의 보건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보건과 스포츠를 융합하여 이론과 실천적 지식을 겸비한 인재를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보건환경대학원	연세대학교, 원광대학교	보건, 의료,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함
보육대학원	한국성서대학교	밀알정신을 구현하는 초교과적 전문지도자로서 보육현장을 창의적으로 변화, 발전시킬 수 있는 보육 전문인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복지대학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사랑과 섬김의 기독교 정신을 체득하여 환경과 대상에 따라 적합하고 체계적인 복지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함
복지행정대학원	호남대학교	-
부동산대학원	건국대학교, 영산대학교, 한성대학교, 명지대학교	부동산학의 학문적 발전과 부동산건설·개발, 관련세제와 법규, 공경매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함

대학원명	대학명	설립목적
부동산행정 대학원	강남대학교	부동산 분야의 학문과 교육의 실용화를 실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불교대학원	동국대학교, 위덕대학교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연령, 성별, 국적, 종교를 초월해서 사부대중이 함께 할 수 있는 "참사람 열린교육"의 실천도량으로서 불국토의 미래를 열어나갈 불교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비만미용향장 대학원	동덕여자대학교	비만에 관련된 다양한 지식들을 습득하고, 영양상담 및 식이 지도를 통한 체중조절과 비만에 관련된 각종 합병증의 예방 및 심리 치료와 운동을 통해 지속적인 체중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회개발 대학원	광주여자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동신대학교, 중앙대학교	사회개발과 연구의 선구적인 학풍을 근간으로 하여 국제화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이론과 기술, 가치관을 겸비한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회과학 대학원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서경대학교, 협성대학교	사회현상의 이해 및 사회발전에 관한 제반이론과 실제적인 정책방안들을 연구하고 교육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우리사회의 각 분야에 필요한 효율적인 발전방안을 창출함과 동시에 제반 사회과학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함
사회교육 대학원	명지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학문적 연구와 사회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국가의 정신건강을 위한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함
사회문화 대학원	한남대학교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역개발분야의 새로운 사회문화관련 학문이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서해안시대의 개막과 지방자치의 실시를 대비할 수 있는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학원명	대학명	설립목적
사회복지대학원	가톨릭대학교, 경기대학교, 경성대학교,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남부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불대학교, 동아대학교, 명지대학교, 백석대학교, 서울기독교대학교,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수원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위덕대학교, 인제대학교, 총신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평택대학교, 한림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세대학교, 한려대학교	실용적 학문연구를 고취시켜 실무능력을 강화하고 사회봉사의 생활화를 통하여 복지교육을 강화하며,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민주적 시민의식을 드높여 도덕적 품성을 갖춘 유능한 지도자 및 사회복지 이념에 따라 사회복지실천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회복지기독교대학원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와 기독교 신학분야에 관한 심오한 학문연구와 학술이론 및 실제 응용방법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며,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지도자적 인격을 갖추고 독창적 능력을 함양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회복지실천대학원	한신대학교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활동에 필요한 이론과 실천적인 기술을 익혀 이론적 분석과 실천적 개입의 균형을 이룬 사회복지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상지대학교	사회복지이론 연구와 현장실습 및 견학·연습 등을 통해 사회복지이론과 실무에 강한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학원명	대학명	설립목적
사회복지·행정 대학원	청주대학교	행정 및 관리의 새로운 인식과 시각의 전환에 바탕을 둔 조감적 접근을 통해 균형 잡힌 사회관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고도의 관리능력을 가진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회정책대학원	서남대학교	사회정책관련 분야와 관련된 학술 이론과 과학적 방법을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고 독창적 능력을 함양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사회체육대학원	한국체육대학교, 경원대학교	사회체육전반에 걸친 폭넓은 학문이론을 바탕으로 그 응용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도자로서의 인격과 창의적 능력을 발현함으로써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체육분야 전문가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산업대학원	강릉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일대학교, 경상대학교, 광주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상주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서울, 시립대학교, 서원대학교, 세종대학교, 순천대학교, 아주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초당대학교, 충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려대학교, 한밭대학교, 홍익대학교	세분화, 정보화 되어가는 미래 산업사회의 요구에 맞도록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고급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학원명	대학명	설립목적
산업경영대학원	경주대학교, 청주대학교, 호남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은 산업체와 기업계의 중진급 인사들을 바탕으로 산업경영기술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하여 산업경영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	한양대학교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이론과 기술을 산업현장과 기업경영자에게 습득케 함으로써 한국의 경제 자립 건설에 기여하고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산업 지도자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함
산업과학대학원	공주대학교	산업기술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 및 교수하여 지도자적 인격을 도야하고 창의력을 함양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함
산업기술대학원	목포대학교, 전북대학교, 신문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선진 산업기술에 관한 학문적 이론과 실체를 교육시킴으로써 지도자적인 인격과 독창적 능력을 갖춘 고급 기술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산업기술정보대학원	승실대학교	심오한 학문과 첨단응용 기술교육을 통해 국제화, 개방화 및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각 분야별로 미래사회를 주도해 나갈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산업미술대학원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 산업공예에 관한 심오한 이론과 실무를 실제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 토론하여 산업계의 지도적인 인격을 완성하고 전문기술에 입각한 독창적인 능력을 함양하여 우리나라 산업계의 발전에 기여 봉사할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함
산업·경영대학원	원광대학교	국가의 산업발전과 인류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산업·정보대학원	창원대학교	창원 및 인근지역 산업체에 근무하는 기술자 및 기업 경영자에게 산업기술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하여 기술자로 하여금 산업체 현장에서 신기술 개발과 연구업무를 담당할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학원명	대학명	설립목적
산업정보대학원	경기대학교, 극동대학교, 단국대학교, 동아대학교, 목원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영동대학교, 경원대학교	현대산업기술 및 관리의 이론과 실체를 체계적으로 연구, 교육하여 산업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 경영인 및 고급기술인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중앙대학교	기업과 사회를 리드하는 전문경영인과 관리자, 지역혁신리더, 창업경영인과 창업전문 컨설턴트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산업환경대학원	경원대학교	산업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공학 분야의 기초이론과 응용분야에 대한 기본기술의 재교육과 최신 첨단기술의 교육 및 연구를 통해 산업기술 전반에서 요구되는 고급 산업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함
산학협력대학원	전남대학교	산업기술의 이론과 실체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교수하고 연구함으로써 지도적 인격과 독창적 능력을 갖춘 고급기술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상담대학원	백석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전주대학교, 총신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평택대학교, 한동대학교	상담에 대한 전문성과 신앙인격을 겸비한 상담사 및 상담지도자를 양성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상담복지대학원	한영신학대학교	상담 전공시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유능한 목회상담자, 평신도 상담자, 기독교상담자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상담심리대학원	가톨릭대학교	전문적 자질과 건전한 심성을 갖춘 전문 실무 상담자를 교육,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상담치료대학원	광신대학교	상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상담가로서 능력과 지질을 향상시켜 상담의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상담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학원명	대학명	설립목적
생명환경과학 대학원	고려대학교	우리나라의 식량 생산 기술의 발전을 주도할 전문인력에게 학문적 독창성과 사회적 지도력을 함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생활과학 대학원	성균관대학교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직접 기여할 수 있는 학문을 지향하며 각 전공분야 간 학제적 접근을 통하여 전통과 첨단과의 조화로운 생활문화를 창출하고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생활정보 대학원	고신대학교	신구약성경과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과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생활환경 및 과학기술정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과 실무를 연구, 교수하며 합리적이고 창조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생활환경 대학원	연세대학교	세계화와 정보화의 급변하는 생활환경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교육을 통해 새로운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인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선교대학원	고신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총신대학교	교회사역과 선교사역 및 국가, 세계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선교사, 목회자 그리고 평신도 전문인 사역자를 양성하고 필요에 따라 선교 사역자들을 재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선교복지 대학원	동서대학교	기독교 선교정신에 바탕을 둔 전문사회복지사, 목회상담심리전문가, 교회음악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선교신학 대학원	관동대학교, 전주대학교	선교사의 자질함양, 선교학과 신학의 이론과 실제 학습을 통해 영동지역 복음화와 미전도 지역 선교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함
성결신학 대학원	성결대학교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양성하는 대학이념을 바탕으로 기독교적 지도자, 창의적 전문인, 자율적 봉사자를 실현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의 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대학원명	대학명	설립목적
세계선교대학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선교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전문화된 선교인력 개발과 연구,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한 학문 분야를 연구하며 전문적인 선교지도자를 교육하고 양성함을 목적으로 함
세무대학원	홍익대학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세무 및 관련경영기법의 활용을 통한 경영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전문인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수사과학대학원	경북대학교	법의학, 범죄수사학, 전산정보통신,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심리학, 정신의학, 법의 인류학, 경제학, 역사 등 전반적인 교육과 연구를 통해 각종 사고의 예방과 범죄 행위에 대한 과학수사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수산해양대학원	전남대학교	학문의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심화시키고 지도력과 창의력을 갖춘 수산 해양인을 육성함으로써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스포츠과학대학원	경기대학교, 단국대학교, 영남대학교	체계적인 이론과 과학적인 실무를 겸비한 전문 스포츠 지도자와 국민건강과 생활 체육의 선진화를 위한 생활체육 전문지도자 양성을 목적을 함
스포츠산업대학원	계명대학교, 국민대학교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교육을 통해 스포츠 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스포츠재활과학대학원	한신대학교	웰빙을 위한 건강증진은 물론 장애 및 노화에 따른 신체운동기능을 재활 또는 향상시켜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능력을 형성시켜주는 전문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함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성공회대학교	노인, 장애인, 아동, 가족복지 등 사회복지실천과 상담, 정책 각 분야에 걸친 복지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신문방송대학원	중앙대학교	언론현상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교수함으로써 우리나라 언론장달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적 관리 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함

대학원명	대학명	설립목적
신학대학원	감리교신학대학교, 고신대학교, 광신대학교, 그리스도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신대학교, 루터대학교, 목원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순복음대학원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안양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신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갈빈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 협성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주역이 될 선교일꾼의 양성과, 기독교 문화 창달에 기여할 일꾼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함
실용음악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	멀티미디어 첨단기기와 컴퓨터를 활용한 음악창작, 영상음악과 사운드 디자인, 레코딩 엔지니어 분야의 전문인력, 현대적 교수법을 활용한 피아노교육 전문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함
실천신학대학원	강남대학교	신학의 학술적 이론과 학문적 방법을 철저히 연구·교수하여 기독교 지도자적인 인격을 함양하고 독창적인 능력을 배양하여 교회와 사회에 봉사할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함
아시아태평양 국제신학대학원	한일장신대학교	아시아, 아프리카 민족들이 신앙적·지적·문화적·민족적 위기를 극복하고, 기독교 신앙으로 지역사회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함
아트·디자인 대학원	성신여자대학교	전문 조형지식과 교육의 연구를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교양과 능력을 갖춘 전문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함
아트퓨전디자인 대학원	경희대학교	미래예술, 디자인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갖춘 국제적 수준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학원명	대학명	설립목적
안전보건경영대학원	한성대학교	산업안전보건 분야와 관련된 지식을 심층적으로 연구 교육하여 기업의 생존전략에서 중요한 안전보건리스크 관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언론광고홍보대학원	목원대학교	관련실무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학문과 기술을 교육함으로써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의 환경적 변화에 대처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함
언론대학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한국언론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매스컴관련 산업의 전문인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언론정보대학원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저널리즘, 전략 커뮤니케이션 및 문화 콘텐츠 분야의 이론과 실무 교육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언론 및 문화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적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함
언론홍보대학원	건국대학교, 광주대학교, 동아대학교, 세종대학교,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의 새로운 이론과 방법을 연구·교육하여 사회의 발전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여성문화복지대학원	호서대학교	사회복지의 개별영역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인력을 양성하고,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21세기 복지사회를 위하여 사명감과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회복지사 양성을 목적으로 함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	숙명여자대학교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국가차원의 여성인적자원 수요예측, 개발 등을 통해 인적자원개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여성학대학원	계명대학교	여성관련 분야에 관한 이론과 방법을 연구·교수하여 여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와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함

대학원명	대학명	설립목적
연합신학대학원	계명대학교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신학의 이론과 목회의 실재를 접목시켜 현장감 있는 신학을 연구하고 한국 교회의 유능한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함
영산신학대학원	한세대학교	한국과 세계의 목회 지망생들과 목회자들에게 본이 되는 영적 지도자상을 심어주고, 한국적 상황의 독특한 신학을 정립하여 한국 신학의 위상을 높이고 영산 신학의 저변 확대를 통해 세계 신학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영상대학원	세종대학교, 홍익대학교	독창적 능력 함양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영상인을 양성하여 문화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영상예술대학원	공주대학교	첨단 영상정보공학의 응용기술과 선진 문화예술의 표현방법을 연구 및 교수하고 독창적인 기술과 예술의 통합능력을 함양하여 지역개발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유능하고 참신한 고급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함
영상정보대학원	동의대학교	21세기 첨단산업인 영상산업분야의 전문인력양성을 교육의 목적으로 함
예배찬양사역대학원	서울장신대학교	현대의 변화된 모습의 예배에 음악적, 신학적인 지식과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예배사역자 혹은 찬양사역자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예술대학원	계명대학교, 동아대학교, 용인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협성대학교	예술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교수하고, 탁월한 실기 능력을 지닌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함
원격대학원	숙명여자대학교, 중부대학교	최신 전문지식과 정보기술에 대한 교육자원을 디지털화하여 시공간을 초월한 원격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가 필요로 하는 경쟁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아교육대학원	계명대학교	변화하는 사회와 교육적 필요에 부응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유아교육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안목과 지식 및 실천적 능력을 갖춘 유아교육 전문가와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함

대학원명	대학명	설립목적
유통경영 대학원	명지대학교	유통, 물류, 조달 분야의 전문지식을 이론과 실무가 균형 있도록 교수·연구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음악대학원	남부대학교, 백석대학교, 수원대학교	현대 사회에 필요한 문화의 힘을 음악대학원을 통해 고취시킴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전공자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하는 전문가를 양성을 목적으로 함
음악치료 대학원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적 기술과 역량을 높여 음악치료를 통해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갈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의료경영 대학원	가톨릭대학교, 계명대학교	기관, 의료산업, 연구기관, 정부, 보험자 등이 필요로 하고 있는 의료경영 전문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함
의약식품 대학원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의약품, 식품, 화장품 산업의 정책 결정과 제품 개발 및 마케팅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의용과학 대학원	고려대학교	MRI개발 등과 관련된 의료정보 기기분야, 생명공학과 관련된 식품생명분야, 사회체육과 관련된 응용과학분야 등에 대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학제간 연구를 통해 전문인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함
인력대학원	성신여자대학교	혁신적인 이론을 함양하고 다양한 국내·외 기업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 평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추구할 수 있는 인사관리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함
인문산업 대학원	중부대학교	산업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이에게 현대산업기술 및 경영관리의 이론과 실체를 연구 교수하며, 독창적 능력과 지도적 인격을 갖춘 최고급 기술인 및 경영인 양성을 목적으로 함
인문정보 대학원	고려대학교	전통 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우리말과 글의 현대적인 교육, 보다 빠른 정보와 지식의 증대를 위한 외국 문헌에 대한 신속하고도 정확한 번역인의 양성과 고령화 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상담사(가족, 청소년, 노인) 및케어매니저 양성을 목적으로 함

대학원명	대학명	설립목적
임상간호대학원	가톨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을지외과대학교	21세기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요구되는 전문적 지식과 고급간호실무 능력을 갖춘 간호전문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함
임상간호정보대학원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와 실버산업을 특성화 분야로 육성하기 위한 건강·간호·보건의료 및 정보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임상보건과학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	멀티미디어 첨단기기와 컴퓨터를 활용한 음악창작, 영상음악과 사운드 디자인, 레코딩 엔지니어 분야의 전문인력, 현대적 교수법을 활용한 피아노교육 전문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함
임상약학대학원	경성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영남대학교	임상 및 사회약학 교육을 발전시키고 여건을 조성해 줄 자질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함
임상치과대학원	가톨릭대학교	특수치과분야에 관한 학술적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육하고 연구함으로써 이 분야 지도자로서의 인격, 능력, 창의력을 갖춘 유능한 의료인을 양성하여 국민 구강보건 및 치의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임상치의학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의 개방 및 세계화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일반 치과 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 치과의사에게 전문화된 치의학 임상수련을 제공함으로써 구강보건 관리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여성 전문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함
자동차선박기술대학원	울산대학교	지역산업의 기술자립화를 위하여 전자 및 정보통신, 첨단소재 공학을 접목한 자동차, 조선분야의 융합기술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함
재활과학대학원	대구대학교	국가발전과 장애인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재활에 필요한 학습이론과 실재를 연구하여 복지국가를 건설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함

대학원명	대학명	설립목적
재활보건과학 대학원	용인대학교	학술연구 능력과 지도력을 함양하고 새로운 보건과학지식 습득과 정보능력을 배양하여 지역과 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재활복지 대학원	나사렛대학교	기독교정신과 민주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심오하고 새로운 학술적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교수하며, 나사렛성결회의 신조와 헌법에 기준한 교육을 실시하여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사역자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와 국가와 인류에 봉사할 지도자 배출을 목적으로 함
전자정부 대학원	한경대학교	공무원, 공공부문종사자 및 공공부문 연구학도에 평생교육, 열린교육, 실무전문교육 및 정보화교육의 장을 펼쳐 공복으로서의 품성과 함께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전통문화예술 대학원	숙명여자대학교	-
정경대학원	연세대학교	변화하는 사회전반의 이론과 실무를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교수하며 지도자적 인격과 창의적 지식 및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정보과학 대학원	강원대학교, 순천대학교, 전북대학교, 숭실대학교, 원광대학교	정보산업분야의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정보대학원	동양대학교, 중앙대학교, 평택대학교	정보화 시대에 맞는 첨단이론과 전문지식을 연구·교육하여 정보화분야의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정보복지 대학원	광운대학교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행정 공무원 및 복지·상담·문화산업 종사자들의 재교육과 연수교육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함

대학원명	대학명	설립목적
정보산업대학원	한남대학교, 한라대학교, 한서대학교, 청운대학교	산학연계를 통한 산업현장인의 능력개발과 산업기술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학술연구의 지도능력과 독창력을 함양하기 위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함
정보통신대학원	건국대학교, 광운대학교, 단국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배재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인천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21세기의 정보기술 시대와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 경쟁력 있는 신기술 개발과 정보화에 대한 국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보 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정책경영대학원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분야의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재교육 및 평생교육을 통하여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고 구국·자주·자립의 정신을 함양하고 관련 분야의 현 장 실무능력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함
정책과학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 행정, 경제, 언론 등 각 분야의 최신 이론 및 경향을 연구하여 현직에서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교육함을 목적으로 함
정책대학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울산대학교, 조선대학교	새로운 지식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현실적인 당면 정책과제들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정책정보대학원	경북대학교	인문사회 분야의 산·학 협동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및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정치경영대학원	상명대학교	현대사회의 정치, 행정, 경영 및 사회복지분야를 전문화하여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고급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함
정치대학원	국민대학교	정치네트워크화와 세계화를 기반으로 한국정치의 선진화를 이끌어갈 차세대 정치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형대학원	영남대학교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 예술인 및 디자이너의 양성과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교육개혁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함

대학원명	대학명	설립목적
종합예술대학원	국민대학교	전문성과 창의성, 그리고 기량과 리더십을 갖추어서 우리나라의 예술계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활약할 인력을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택대학원	서울산업대학교	주택 산업 및 문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특화된 고급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및 교육을 통하여 주택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주거문화를 창달함을 목적으로 함
중소기업대학원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분야의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여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중소기업인과 경영 및 기술지도에 관한 전문지도사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능형자동차 대학원	계명대학교	자동차 분야에서의 세계표준 소프트웨어 OS 플랫폼에 기반을 둔 응용부품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는 추세에서 자동차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지식인을 양성할 것을 목적으로 함
지식서비스&컨설팅 대학원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는 실무자형 교과과정의 연구와 교육을 통해 전문 컨설턴트로 양성되어 기업의 내적역량을 제점검함과 동시에 외부 환경변화를 신속히 유입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함
창업경영대학원	한밭대학교	기술과 경영에 관한 학문적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함으로써 지도적 인격과 독창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국가와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체육대학원	경희대학교	체육을 과학적인 연구방법으로 분석 이론과 실제의 현실화 교육을 통해 한국체육을 이끌어갈 유능한 체육 전문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체육과학 대학원	용인대학교	체육과 관련된 학술이론과 응용방법을 심오하게 연구 및 교육하여 창의적인 학술연구능력과 지도력을 갖춘 고등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함

대학원명	대학명	설립목적
치유상담대학원	서울기독대학교	현대사회에서 소외되고, 병들고, 고통 받는 자를 위하여 그 치유책을 전인적인 방법인 심신적, 신학적, 사회적으로 접근하여 인간을 총체적으로 치유하는 방법론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함
컴퓨터과학기술대학원	고려대학교	컴퓨터 과학 기술의 이론과 실재를 더욱 심오하게 연구, 교육함으로써 국가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함
코칭능력개발대학원	호서대학교	학문의 이론과 전문적인실기를 교육하여 축구 지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춘 전문 축구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함
태권도대학원	용인대학교, 영산대학교	태권도 관련이론과 응용방법을 심오하게 연구 및 교육하여 창의적인 학술연구능력과 지도력을 갖춘 고등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함
테크노경영대학원	경희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21세기 정보화 인터넷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적 지식과 신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함
통번역대학원	선문대학교	통번역 능력뿐만 아니라 경제, IT 관련 지식과 실무 영어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함
통역대학원	한영신학대학교	새 천년 디지털 정보시대에 폭주하는 국내외 통역 번역 수요에 부응하고, 초일류 통역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함
통역번역대학원	부산외국어대학교, 한동대학교	21세기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함
통일대학원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은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우리 민족의 최대 숙원인 민족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연구와, 통일과 북한에 관한 전문적 교육을 목적으로 함
특허법무대학원	충남대학교	특허법무와 관련된 이론과 실무를 연구·교육하며, 해당분야 전문인력들이 상호관심사를 논의하고 발진방향을 모색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국가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함

대학원명	대학명	설립목적
평화복지대학원	경희대학교	평화학 관련 기초 및 응용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통해 평화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문인력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함
평화안보대학원	충남대학교	21세기 국가안보의 성격이 다차원화, 전문화되어 가는 추세에 부응하여 종합적, 학제적인 교육 및 연구를 통하여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평화와 안보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함
피아노페다고지대학원	한세대학교	실용적인 전문지식교육, 특성화된 맞춤 교육, 세계화 교육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21C의 전문 피아노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함
학제신학대학원	한남대학교	목회자들이 사회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뿐 아니라 목회, 상담, 설교, 행정 등 목회의 제반 분야에서 더 나은 이해와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 목적이 있음
한림국제대학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21세기 한국의 국제화를 선도할 전문지식을 가진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항공경영대학원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과 관광, 공항관리·물류관리·항공우주법 분야 등의 영역과 함께 정보통신과 항공우주 분야 등 기술경영의 분야에서 21세기 국가산업을 이끌어 나갈 전문가 양성과 함께 일반기업경영,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잠재력을 갖춘 인적 자원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목적으로 함
해사산업대학원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과 관련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연구하고 독창적인 학술연구능력을 함양하여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해양산업대학원	목포해양대학교	해양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산업인 및 경영인이나 앞으로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이에게 차원 높은 현대 정보기술, 해운경영, 산업기술의 이론과 실제를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교수하며 독창적인 능력과 지도적인 인격을 갖춘 고급 기술인 및 경영인을 양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대학원명	대학명	설립목적
행정경영대학원	안동대학교	사회과학 제 분야의 학문적인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하고 교수함과 동시에, 사회의 각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행정대학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공공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정책과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함
NGO 정책대학원	한일장신대학교	인간, 사회 그리고 국가에 대한 학제적 연구와 교육을 통해 인류의 평화와 공영을 지향하는 21세기 NGO지도자 육성을 목적으로 함

참고문헌

- 강인수(2002). 「대학원 교육의 이념과 기능」, 『대학교육』, 제120호, 13-21쪽,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교육인적자원부(2004). 『고급두뇌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전국 대학원 석박사과정 운영 기본 통계』.
- _____ (2006). 『(고급 두뇌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전국 대학원 석·박사과정 운영 기본 통계』.
- 교육과학기술부(2008). 『평생교육백서』.
- _____ (2009). 「2009학년도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 및 정원조정계획」,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 권대봉(2004). 「특수대학원 운영의 문제와 개선방안」, 『대학교육』, 제130호, 29-39쪽,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김성기(2000). 「특수대학원의 역할: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중심으로」, 『법률행정논집』, 제20호, 531-568쪽.
- 김용복(2004). 「일반대학원 운영의 문제와 개선 방안: 독립성 찾기, 그리고 경쟁력 살 붙이기」, 『대학교육』, 제130호, 16-23쪽,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김원찬(2004). 「대학원 교육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대학교육』, 제130호, 8-15쪽,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김형관(2004). 『전문대학원 운영 현황 기초조사 및 질 제고 방안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08).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서』.
- 류지성(2008). 『과학기술 고급두뇌 확보 방안』, 삼성경제연구소.
- 박윤성(2004). 「우리나라 대학원 제도에 관한 고찰: 대학원 교육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반상진 외(2003). 『지식기반 사회에 적합한 대학원 교육의 질 제고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변기용(2007). 「국제교육표준분류(ISCED-97)에 따른 현행 고등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교교육연구』, 제17권 제3호, 109-138쪽.
- 서정현 외(2006). 『대학원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원체제 개편 및 제도개선 시행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윤여각 외(2000).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고등 교육 체제 개혁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병희 외(2006). 『평생학습과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석열(2007). 「특수대학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인문학연구』, 제34권 제2호, 373-397쪽.
- 이시경(2006). 「특수대학원의 운영개선방안-행정·정책대학원을 중심으로-」, 『사회과학 논총』, 제25권 제1호, 235-251쪽.
- 이영선(2004). 「전문대학원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대학교육』, 제130호, 24-28쪽,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이종구(2003). 「교육대학원 풍경」, 『교육비평』, 제12호, 377-381쪽.
- 이주호 외(2008). 『2008 대학원의 세계: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교육과학기술부.
- 이태식 외(2003). 「엔지니어링 인력양성에 대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만족도 조사: 대학교육을 중심으로」, 『대한토목학회논문집』, 제23권 제1호, 79-88쪽.
- 임수민(2008). 「직장인의 특수대학원 학습참여가 생활만족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장필화(2002). 「대학원 교육의 현황과 과제」, 『대학교육』, 제120호, 7-12쪽,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정말희(2004). 「특수대학원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아주

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정윤경 외(2007a). 『2007년 미래의 직업세계 인프라 구축: 대학원의 세계』, 교육과학기술부.

정윤경(2007b). 『2008 대학원의 세계: 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지선 외(2002). 『생애에 걸친 직업교육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고등교육기관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_____ (2008). 『재직근로자의 노동시장에서 학교로의 이행 촉진방안: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태화 외(2007). 『일과 학습이 하나 되는 직업교육체제 구축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채창균 외(2005).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인적자원개발(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운실(2008). 「이명박 정부의 평생교육 정책기조와 추진전략 분석: 평생학습계좌제 정책을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제15집 제2호, 127-155쪽, 한국교육정치학회.

최지희 외(2007). 『재직근로자의 노동시장에서 학교로의 이행 촉진을 위한 기업-고등교육기관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2008). 국가교육통계연구센터 교육통계서비스

_____ (2009). 국가교육통계연구센터 교육통계서비스

_____. 『교육통계연보』, 2000년-2007년 자료.

Advisory Committee on Graduate Education and American Competitiveness.(2007). Graduate Education: The Backbone of American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Council of Graduate Schools

-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2008). Course Evaluation Handbook.
- AQFAB.(2007). Australian Qualification Framework Implementation Handbook(Fourth Edition).
- AUQA.(2009). *Audit Manual*(Version 6.0).
-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ct 1991. (27 July 2001 수정법률)
- AVCC.(2007). *Australian University Handbook 2007*.
- Bond University Act 1987 (4 March 2005 수정법률, Queensland)
- CAEL.(1999). *Serving Adult Learners in Higher Education: Findings from CAEL's Benchmarking Study*.
- CHEA.(2008). The Condition of Accreditation: U.S. Accreditation in 2007.
- Council of Graduate Schools.(2005). Graduate Education and the Public Good
- David Neumark and Mary Joyce. 2001. "Evaluating School-to-Work Programs Using the New NLSY." Human Resources Vol.36 No.4, pp. 666~702.
- DEEWR.(2009). Review of Australian Higher Education (Final Report). Australian Government.
- DEEWR.(2008a). Higher Education Report 2007. Australian Government.
- DEEWR.(2008b). Audit Handbook for non self-accrediting Higher Education Providers.
- DEEWR.(2009). Review of Australian Higher Education (Final Report). Australian Government.
- DEST.(2007a). Training Packages@Work: Back 2 Basics(Edition 3). Australian Government.
- DEST.(2007b). AQTF 2007 User's Guide to the Essential Standards for Registration. Commonwealth of Australia.

- Distance Education and Training Council(DETC)(2009).
- Distance Education and Training Council.(2009). Directory of Accredited Institutions.
-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 Brief Overview.
- European Commission, 2001, 2002, 2005
- Griffith University.(2009). Postgraduate Degrees(Program Guide for Australian Students)
- Higher Education Support Act 2003(7 April 2009 수정법률)
- Higher Education Provider Guidelines(2 November 2007 제정)
- Higher Education (General Provisions) Act 2008 (1 August 2008 제정, Queensland)
- IBSA.(2008). ICA05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raining Package. Commonwealth of Australia
- Judith S. Eaton.(2008). Accreditation and Recognition in the United States.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 MCEETYA.(2007). National Protocols for Higher Education Approval Processes.
- Middle States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2006). Characteristics of Excellence in Higher Education: Eligibility Requirements and Standards for Accreditation.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2008).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 2008. U.S. Department of Education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2009). Distance Education at Degree-Granting Postsecondary Institutions: 2006-2007. U.S. Department of Education.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2009) .U.S. Department of Education.

OECD.(2005). Education at a Glance.

QPAC.(2008). Tertiary Entry Guide(prerequisites). Queensland Government.

QSA.(2008). The QCE Handbook. Queensland Government.

Royal Melbourne Institute of Technology.(2009). 2009 Program Guide(Postgraduate).

Southbank Institute of Technology.(2009). 2009 Guide to Vocational Graduate Qualifications.

Stufflebeam, D. 2002. The CIPP Model for Evaluation

Stufflebeam D. & Kellaghan T.(eds.), The International Handbook of Educational Evaluation,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The Higher Education Opportunity Act (Public Law 110-315)

<http://www.carnegiefoundation.org/classifications/>

<http://www.deewr.gov.au>

<http://www.ed.gov/international/usnei/edlite-index.html>

<http://www.ed.gov/about/offices/list/ous/international/edus/overview.doc>

<http://www.ed.gov/about/offices/list/ous/international/usnei/us/edlite-officials.html>

<http://www.ed.gov/policy/highered/leg/hea08/index.html>

<http://nces.ed.gov/ipeds/>

<http://www.iacet.org/>

<http://www.cael.org/>

<http://www.acenet.edu/AM/Template.cfm?Section=Home>

<http://www.aqf.edu.au>

<http://www.qsa.qld.edu.au>

<http://www.deewr.gov.au>

<http://www.hrd.qut.edu.au>
<http://www.acenet.edu/AM/Template.cfm?&TEMPLATE=/CM/ContentDisplay.cfm&CONTENTID=26248>
<http://www.cgsnet.org/Default.aspx?tabid=120>
http://www.fulbright.be/Studies_in_the_US/Graduate/Structure.htm
<http://www.ed.gov/international/usnei/us/accred-fed.doc>
<http://www.ed.gov/international/usnei/us/accred-postsec.doc>
<http://www.ed.gov/international/usnei/us/accred-school.doc>
<http://www.ed.gov/international/usnei/us/accred-state.doc>
<http://www.aqf.edu.au>
<http://www.qsa.qld.edu.au>
<http://www.deewr.gov.au>
<http://www.hrd.qut.edu.au>
<http://www.training.com.au>

<연구협의회>

강창동, 김기승, 김성후, 김환식, 박만곤,

반상진, 손준종, 신현석, 양정호, 연강호,

이병식, 이석열, 이일용, 조용하

■ 저자 약력

- 정지선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이남철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이기성
 - 숭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 교수

고등직업교육을 위한 특수대학원 개선방안 연구

- | | |
|-----------|---|
| · 발행연월일 | 2009년 11월 29일 인쇄
2009년 11월 30일 발행 |
| · 발 행 인 | 권 대 봉 |
| · 발 행 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5-949,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5-1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 화: (02)3485-5000, 5100
팩 스: (02)3485-5200 |
| · 인 쇄 처 | (주)신전 (02)2264-7727 |
| · 등 록 일 자 | 1998년 6월 11일 |
| · 등 록 번 호 | 제16-1681호 |
| · I S B N | 978-89-6355-076-3 93370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값 7,000원>